

1. 뷰티스타일링의 이해

1. 뷰티스타일링의 정의

뷰티스타일링이란,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중요수단으로서 헤어, 메이크업, 패션, 컬러 등이 조합되어 외적 이미지 뿐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까지 향상시키는 토탈 뷰티의 개념이다. 뷰티스타일리스트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감각과 기술, 풍부한 감성과 자신만의 구성력과 표현테크닉 및 기획력을 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패션, 컬러 등 뷰티 영역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을 창안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아름다운 스타일만이 아닌 체형, 얼굴 모양 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른 전체와의 조화가 중요하다.

뷰티스타일리스트는 패션 분야를 비롯하여 방송, 잡지, 광고, 영화, 연극, 이벤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를 기획하고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소품까지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창조한다. 즉, 뷰티스타일리스트는 뷰티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 및 시대정신을 종합하여 창의적인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뷰티전문가이다.

2. 뷰티스타일링의 목적

- 새로운 시대감각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컨셉에 따라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유동하는 뷰티와 패션트랜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소비 시장을 민감하게 파악하며 차기 시즌의 경향과 정보를 예측하는 시대감각 창조력, 기획력과 연출력이 요구된다.
- 유행을 창조하며 분석하고 사회의 요구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와 기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 뷰티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 전문 인력 배출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3. 뷰티스타일링의 요소

뷰티디자인의 요소로서 점, 선, 면,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있다.

(1) 점(spot)

- 일반적인 의미는 크기를 갖고 있지 않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

-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 크기나 길이 등에 의해 면과 선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눈의 목표를 세우는 표식, 조그마한 존재, 미세한 것
- 점은 위치와 점과 점사이의 공간, 점의 배열에 따른 운동감, 원근감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패션에서는 점의 크기와 배열 등에 따라 다양한 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2) 선(line)

- 일반적인 개념은 크기가 없는 점의 연장
- 실과 같은 것
- 길이와 위치만 있고 폭과 부피가 없는 것
- 공간에서의 방향성과 길이가 있는 가늘고 긴 것
- 선이 놓이는 방향과 길이에 따라 각기 방향성이나 운동력을 표출하는 것
- 직선과 곡선으로 분류
 - 남성적 요소가 강하며 가는 선, 굵은 선, 긴 선으로 분류
 - 가는 선 : 섬세, 예민, 미약함 속에서도 직선이 가진 팽팽한 긴장감 있음
 - 굵은 선 : 호쾌, 중후, 속에서도 선이 가지고 있는 힘찬 긴장감이 있음
 - 긴 선 : 시간성, 지속성, 약간 느린 운동감을 표출
- 직선 : 심리적 인상은 속도감, 긴장감, 직접성, 예리함, 명쾌성, 간결성
- 곡선 : 심리적 인상은 유연, 풍요, 우아, 간접성, 경쾌, 약동, 리드미컬, 온화
 - 여성적 요소가 강하며 기하곡선, 자유곡선으로 분류
 - 기하곡선 : 현대적이고 예리한 합리적인 리듬을 표출
 - 자유곡선 : 변화가 있고 유연성이 있는 리듬을 표출
- 선의 역할은 메이크업 및 패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 선은 의복구성선을 이루고 있고, 선의 굵기, 방향과 간격에 의해 시각적 착시현상을 주어 외형이 좌우될 정도로 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굴 및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3) 면(plane)

- 점의 확대와 선이 이동한 자취로 길이와 폭의 값은 가지며, 넓이는 존재하나 두께는 없다.
- 입체를 생성하는 기본요소로 질감, 원근감, 색 등을 표현할 수 있다.
 - 직선적인 면 : 남성적인, 신뢰감을 주는, 안정감 있는, 명료한, 직접적인
 - 기하학적인 면 : 불안정한, 기계적인, 추상적인
 - 유기적인 면 : 자유스러운, 활발한
 - 평면 : 간결한, 곧은, 평활한
 - 곡면 : 부드러운, 동적인

(4) 형태(Form)

- 형으로 구성된 윤곽, 내부 구조 등을 포함한 3차원적인 모습
- 물체가 입체로 보이는 부분을 뜻함
- 색채와 더불어 물체를 인식하는 시각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5) 색채(color)

- 물리적 현상인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그와 같은 지각현상과 마찬가지의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현상
- 색의 3속성은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
- 색상 : 모든 색의 종류로 난색계, 한색계, 중성계로 구분
 - 난색계 : 주황(yellow red)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줌
 - 한색계 : 파랑(blue)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색상은 차가운 느낌을 줌
 - 중성계 : 녹색(green)이나 보라(purple) 주변의 색상은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을 주지 않음
- 명도 : 색의 밝기의 정도를 말하며 명색, 중명색, 암색으로 구분
 - 명색 : 백색계
 - 중명색 : 회색계
 - 암색 : 흑색계
- 채도(chroma) : 색의 강약 정도를 말하며 순색, 청색, 탁색으로 구분
 - 순색(pure color) : 색상 중에서 가장 강한 색으로 채도가 높은 색
 - 청색(clear color) : 순색에 백색 또는 흑색을 섞은 색
 - 탁색(dull color) : 순색에 흑과 백, 즉 회색을 섞은 색

(6) 질감(texture)

- 물체의 표면이 갖는 질감
-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촉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
-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으로 구분
 - 촉각적 질감(tactile texture) : 실제로 만져서 알 수 있음
 - 시각적 질감(visual texture) : 시각으로 그 촉감의 차이를 구별

4. 뷰티스타일링의 원리

뷰티디자인의 원리에는 통일, 조화, 비례, 균형, 율동, 강조, 대비 등이 있다.

(1) 통일(unity)

-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 된 것으로 형, 색, 재료 및 기술상에서 미적 관계의 결합이나 질서

(2) 조화(harmony)

-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지님
- 둘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이 상호 관계에 대한 미적 가치 판단으로 서로 분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고차의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에 일어나는 미적 현상
 - 유사조화 : 친근감, 부드러움
 - 대비조화 : 극적효과, 긴장감

(3) 비례(proportion)

- 요소들의 분포, 면적, 길이 등의 대비 관계로 부분을 연관시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
- 크기나 장단의 비로 질서나 변화를 갖게 하는 원리

(4) 균형(balance)

- 물리적 구조와 색채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 좌우 비대칭형에서 얻을 수 있는 형태상의 시각적, 정신적 안정감
- 선, 면, 형태, 크기, 방향, 질감, 색채, 명도 등 시각요소의 배치량과 성질 등의 결합에 의해서 표현
 - 대칭 : 정적균형으로 안정적, 통일감, 딱딱한 느낌
 - 비대칭 : 동적균형으로 양쪽이 서로 같지 않은 상태

(5) 율동(rhythm)

- 요소의 규칙적인 특징을 반복 교차시키는데서 오는 움직임
- 각 부분 사이에 시각적인 강한 힘,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기는 원리
- 통일성을 전제로 한 동적 변화
- 각 요소들의 강약이나 단위의 장단이 주기성이나 규칙성을 가지면서 연속되는 운동
 - 점증(gradation) : 기본적으로 유사한 일련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 반복(repetition)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것

(6) 강조(accent)

- 어떤 주변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요소

(7) 대비(contrast)

- 대비는 단위형, 즉 형태나 색채 같은 요소에다 대비를 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
- 성질 혹은 분량을 달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접근할 때 일어나는 현상

2. 뷰티스타일링의 분야

I. 메이크업

1. 메이크업의 정의

메이크업이란 말은 'MAKE : 만든다', 'UP : 더 낫게', 즉 어떤 것을 더 낫게 만든다는 뜻이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메이크업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 코스메틱(cosmetic)을 포함한 의미로 그리스어인 '코스메티코스(cosmeticos)'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잘 정리한다', '감싼다'는 뜻으로, 그 의미는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뜻한다. 메이크업의 의미는 그 시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 연관을 가지며, 그 시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며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이란 의미는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는 코디네이션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화장뿐 아니라 그 화장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 즉 T.O.P. 또는 5W(Who, When, Where, What, Why)에 맞게 전체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를 단순히 외적인 측면을 가꾸는 작업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가치까지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메이크업의 목적

(1) 장식설

카두베이족은 온몸을 문신으로 장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인류최초의 화장의 목적은 장식이라는 설이 지배적인데 원시시대에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기는 것으로 메이크업을 대신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강한 욕망은 매우 다양한 신체상의 장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감이나 만족감같은 심리적인 표현을 하기위하여 상흔, 문신, 신체변형, 채색 등을 하였다.

(2) 종교설

파푸아뉴기니아(Papua New Guinea)의 여인이 제식을 위해 격식을 갖추어 화장을 한 모습을 보면 신에 대한 예의 또는 신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화장이 종교적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에는 초자연과의 융합을 위하여 가면을 착용했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위장하거나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전투에 나가는 전사들은 승전을 위하여, 환자들은 질병을 쫓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약료로 치장하였다. 적색, 흰색, 검정색, 다흥색 등의 약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3) 보호설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을 했다는 것인데, 고대 이집트 여인은 검정색 코올(Kohl)을 이용한 눈화장술로써 강한 바람이나 곤충, 모래,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보호했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자연환경 내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학설이다

(4) 본능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드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족을 이어나가려고 하며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은 인간에게도 예외일 수 없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과시욕구가 있다.

(5) 신분표시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외모로 부를 과시하고 신분을 나타낸다. 즉, 특징적인 표시, 신체적 장식으로 소속집단을 나타내고 자연속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지었다. 또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했다.

3. 얼굴구조의 이해

얼굴부분의 골격과 근육에 대한 이해는 작품에서의 특정한 성격으로 인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확한 골격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작품을 돋보일 수 있게 된다.

(1) 얼굴의 골격

얼굴의 뼈와 안면 근육을 파악하고 인물분석과 함께 변화에 따른 절대적 기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의 골격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두개골은 두골과, 안면골로 구분된다. 두골은 전두골, 두정골, 측두골, 후두골, 접형골, 사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면골은 상악골, 하악골, 권골, 비근골, 누골, 구개골, 하비갑개골, 서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개골은 전체적으로 21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마부분은 전두골로 이루어져 있고, 눈썹의 용기와 안와(눈구멍)의 위쪽을 형성하고 있다.

전두골의 옆에 두 개의 커다란 두정골이 있고, 두정골의 뒤쪽에는 후두골이 있으며, 후두골은 목과 척추의 강력한 신근이 있다. 두정골 아래 머리의 측면에 측두골이 있고, 측두골은 협골(뺨의 뼈)과 추체(뿔체)라 부른다.

접형골은 머리를 감싸고 있고 안와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사골과 누골로 되어있다. 이 두 개의 뼈는 양쪽 눈의 간격을 결정한다.

비량(콧등)은 두 개의 비골로 형성되어 있으며, 안와의 위쪽부분은 아이홀 메이크업할 때의 기준선이 된다.

상악골의 협골돌기와 측두골의 협골부가 협골궁을 이루고 있다.

하악골은 V자형을 하고 있으며 측두골과 관절이 결합하여 하악관절을 형성한다. 하악골은 얼굴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각의 지면이 넓으면 사각형이 되고 각이 없으면 긴얼굴형이나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의 얼굴형을 갖게 된다.

(2) 얼굴의 근육

얼굴의 근육은 메이크업할 때에 화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준다. 측두근은 부채꼴 모양의 근육으로 하악골의 근돌기를 덮고 있고, 하악지 앞면의 가장자리를 아래쪽으로 뺀고 있다.

안륜근 위의 추미근은 눈썹을 그릴 때 고려해야 할 근육이고 눈썹의 인상을 좌우한다.

하순하제근은 턱끝을 덮고 있는 근육이고, 근육이 움직일 때 보조개가 생기기도 한다.

구륜근은 입 주위의 띠모양으로 있고 입꼬리의 처짐과 상승이 결정되어 입술 수정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상순비익거근은 상악골의 앞면 위쪽 부분의 눈과 코 사이를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뺀고, 두 개의 근육조각에 의해 코의 연골과 상순에 부착되어 있다.

상순거근, 대협골근, 소협골근은 협골궁의 바로 아래에 연결되어 있다.

안륜근은 팔약근 모양의 근육이다.

후두-전두근은 눈썹 주위부터 머리 아래까지 둥근 부분(돔) 전체를 덮고 있는 폭이 넓은 근육질의 층이다. 앞면의 근육층은 모상건막과 후두부에 연결되어 있다.

(3) 얼굴의 비율

- 가로분할 : 얼굴 정면을 가로로 헤어라인에서 눈썹, 눈썹에서 콧망울까지, 콧망울에서 턱끝까지 3등분으로 나뉜다.
- 세로분할 : 얼굴 정면을 세로로 옆 헤어라인에서 눈꼬리까지, 눈꼬리에서 눈앞머리까지, 눈앞머리에서 반대 눈앞머리까지, 눈머리에서 눈꼬리까지, 눈꼬리에서 헤어라인까지 5등분으로 나뉜다.
- 눈썹의 위치 : 얼굴길이의 1/3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눈썹 앞머리에는 콧볼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에서 시작하고 눈썹꼬리는 콧망울 끝에서 눈꼬리를 지난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 눈머리 위치 : 콧볼과 콧망울의 중간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에 위치한다.
- 콧볼의 위치 : 이마에서 약 2/3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 이상적인 입술 : 정면에서 눈동자 안쪽선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이며 윗입술 1 : 아랫입술 1.5 비율이 적당하다.

(4) 얼굴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 둥근 얼굴형 : 볼과 턱이 둥글고 이마와 헤어라인도 둥근 형태로 귀여운 이미지의 얼굴형이고 한국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세로선이나 전체적으로 쉐딩처리를 하고 상승선을 이용하여 성숙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 각진 얼굴형 : 이마와 헤어라인이 직선적이고 이마와 턱선이 넓으며 각이 있어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얼굴형이다. 이마와 턱선을 쉐딩처리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며 눈썹형태도 곡선으로 표현해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 역삼각형의 얼굴형 : 이마가 넓고 눈사이가 멀며 턱이 가름하여 좁고 광대뼈가 높은 얼굴형으로 이마부분을 쉐딩처리하고 양쪽 턱끝을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눈썹 앞머리를 좁혀준다.
- 삼각형 얼굴형 : 이마의 폭이 좁고 턱선이 넓으며 눈사이가 가까운 얼굴형으로 턱선을 쉐딩처리한다. 눈썹 양 끝에 포인트를 주고, 미간부분에 하이라이트처리하며 그라데이션한다.
- 긴 얼굴형 : 긴 형은 성숙된 이미지를 주며 나이가 들어 보일수 있는 이미지이고 이마와 턱밑 코끝에 쉐딩처리를 한다. 눈썹은 일자형이나 기본형으로 그려 긴 얼굴이 분할되어 보이도록 한다.

(5) 눈썹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 수평형(일자형) : 짧고 활동적인 느낌, 긴얼굴형이나 폭이 좁은 얼굴에 어울린다.
- 상승형 : 동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 등근얼굴형이나 개성이 없는 얼굴에 어울린다.
- 각진형 :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 등근얼굴, 삼각형얼굴에 어울린다.
- 아치형 : 여성적이며 성숙된 이미지, 이마가 넓은형, 턱이 각진형, 역삼각형에 어울린다.
- 처진형 :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어리석고 슬픈 느낌도 있다. 날카롭고 뾰족한 이미지에 어울린다.

(6) 입술의 형태

눈동자 안쪽에서 일직선으로 내려 구각과 만나는 위치로 설정되었을 때 균형잡힌 입술이다.

- 인 커브 : 귀여운 이미지로 입술라인보다 1~2mm정도 안쪽에 그리며 두꺼운 입술형을 수정할 때 그린다.
- 스트레이트 : 립라인을 직선으로 그리며 지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 아웃커브 : 관능적이고 성숙된 이미지로 원래 입술보다 1~2mm정도 밖으로 넓게 그려주며 가는 입술을 수정할 때 그린다.

4. 메이크업의 역사

〈서양〉

1. 고대시대

(1) 이집트 (B.C. 3200년 경)

1) 문화사적 배경

최초의 민족국가였던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하며 정착했고, 정치, 문화, 예술등에서 우수한

문화를 발달시켰다. 나일강의 멤피스(Memphis)지방을 중심으로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4000년에 이르기까지 20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던 이집트가 기원전 3000년에 메네스(Menes)왕에 의해 이집트는 통일되었고 메네스왕은 최초의 파라오가 되었다.

2) 화장형태

B.C. 7500년 이집트에서부터 인류는 본격적인 화장을 시작하였다. B.C. 3000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용술이 종교적 의식의 절차에서 몸을 단장하는 것으로서 중요시 여겨졌고, 이러한 의식은 성직자 계층에 의해 담당되어졌다.

이집트인들의 영원불멸사상에 따라 성직자들은 제단에 바치는 향료 등을 만드는 데에 골몰했고 멜러카이트(malachite, 청동)를 원료로 초록색계통의 색들을 다양한 톤으로 뽑아낼 수 있었다. 멜러카이트는 아프리카, 아시아, 우랄산맥일대, 영국의 크라운웰지방, 미국의 아리조나주, 호주 등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이집트인들은 장신구로서도 애용하였다.

- 화장품 : 유황성분이 섞인 납종류-걸리너, 앤티모니도 사용
- 코울(Kohl) :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그림. (검정, 회색, 녹색, 단색 등)
 - 멜러카이트와 걸리너, 앤티모니의 가루를 동물기름과 섞어서 만든 액체
 - 곤충, 강렬한 태양광선, 모래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
- 앤티모니나 미묵 : 눈물샘을 자극하여 사막의 자연환경에서 눈을 보호. 호루스의 눈을 상징
- 눈화장 : 검은 미묵을 칠한 물고기형태 : 녹청색화장료를 사용, 강한 색조로 표현, 곤충으로부터 눈을 보호
- 눈썹 : 검은색으로 길게 늘여 그림
- 볼과 입술 : 붉은 황토흙 오우커(Ocher)를 양의 기름으로 반죽해서 붓으로 바름
- 연지, 입술엔 홍색, 뺨에는 분홍색으로 칠함(헤나). 색이 있는 꽃잎들을 으깨어 사용. 분도 사용함

(2) 그리스 (B.C. 3000~B.C. 400)

1) 문화사적 배경

기원전 2000년 경 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아인, 도오리아인이 남하하여 크리트의 전성기 문명을 흡수하면서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다. 기원전 1200년 경에 도오리아족의 그리스 침입으로 미케네 문명은 사라지고 유일하게 아테네 폴리스의 주류를 이룬 이오니아인들이 아테네 지방과 아티카 지방에서 도오리아족과 끊임없이 항전을 하였다. 이 전쟁이 이후에 오오리아족은 펠레폰네스반도와 크리트 섬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이오니아인에 의한 그리스 문명이 개화하기 시작했다.

2) 화장형태

- 자연그대로의 꾸밈없는 인간의 모습을 중시하는 헬레니즘 문명의 사상과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여성의 지위

가 하락→색조화장이 발달하지 못함

- 부분과 전체의 균형에서 비롯되는 조화를 중시. 비율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
- 남자 : 목욕후 마사지를 즐김, 머리기름과 향유 등을 바름
- 여자 : 정숙, 겸손한 품성이 요구되었으므로 화장을 별로 하지 않음.
- 임상생리학의 아버지 : · 칼렌(Galen, A.D. 130~200)
 - 이집트 화장품의 기록을 체계화하여 최초로 약학과 본초학을 접목시켜 콜드크림 만듬
- 콜드크림: 피부의 수분증발막아주고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며 2천년동안 판매
- 코스메티케 테크네(kosmetike techne) : 의학에 속하는 학문, 의학적인 보호수단으로서의 화장술
- 코모티케 테크네(komotike techne) : 과도한 장식적인 화장술. 동양의 짙은 화장에 영향줌, 아테네 매료시킴
- 여인 :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입욕 – 마요나라(marjoram)의 꽃과 포도꽃에서 얻은 향료
- 푸른 산화연을 개어 만든 루즈로 볼과 입술을 칠하고 흰 납가루를 분으로 사용
- 볼 : 채도 떨어뜨린 후 볼에 바름
- 붉은색 : 이집트의 무화과나 으깬 나무딸기가 재료로 쓰임
- 눈썹 : 미간을 좁게보이기 위해 검고 길게 늘어뜨려 그림, 인조눈썹 사용

(3) 로마(B.C. 8세기~3세기)

1) 문화사적 배경

로마의 역사는 B.C 8세기 중기로부터 A.D 5세기 후기에 이르는 약 13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B.C 6세기 말 왕정 폐지 후의 공화정 수립부터 B.C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A.D 5세기 후기 게르만 민족에 의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의 두 시기로 크게 나뉜다.

로마의 계급은 귀족(patricius), 평민(plebs), 예민(cliens), 노예(servus)로 구성되었다.

- 귀족 : 특권, 지배계급,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토지소유자
- 평민 : 비특권, 피지배계급으로서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음
 - 자유민, 소농, 임금노동자, 수공예자 등
- 예민 : 귀족의 보호아래서 귀족의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권은 인정받지 못함. 평민이나 해방된 노예가 예민으로 격하 또는 승격되는 수가 있음
- 노예 : 전쟁 포로거나 부채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

2) 화장형태

- 그리스의 헬레니즘사상을 이어받아 육체적인 조화로움을 승상해서 운동으로 몸을 가꾸
- 그리스의 코스메티케 : 건강유지를 위한 무해한 미용술인 아르스 오르나트릭스(Ars ornatrix)
- 피부관리 : 목욕문화 발달, 공중목욕탕 번성 (사교모임, 위생, 사회적 기능을 겸함)

- 흰피부 선호 : 분바름. 백연의 과도한 사용으로 얼굴빛이 변색됨
- 치아가 검어지고 땀구멍들이 막힘
- 눈 : 안티몬이나 사프란으로 검게 화장
- 볼 : 아프칸나나 연단으로 붉은 칠함

2. 중세시대

(1) 비잔틴 시대 (4세기 ~10 세기)

1) 문화사적 배경

4세기 콘스탄티누스대제가 로마제국의 동부에 있는 비잔티움(Byzantium)에 새 로마를 창건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명칭한 이래, 행정상으로 로마제국은 양분되어 두 수도를 갖게 되었다.

- 서로마 제국 : 게르만 민족에 의해 유린되어 5세기 말 경에 소멸
- 동로마 제국 : 전통적인 고대 문명을 계승 · 보존하면서 1453년 오스만터어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것이다.
-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황제시대- 6세기 중엽 경으로 갈리아지방과 브리튼을 제외한 로마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확보하였고 법전 편찬, 성당 건립, 양잠법 도입에 따른 견직물생산등이 그의 업적이다.
- 미술 : 모자이크와 세밀화가 대표적 양식

2) 화장형태

- 창백하게 표현, 25세기 이후 푸르게 변색(악마의 저주라 함)
-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향
- 화장 : · 신이 주신 인간의 얼굴을 가면으로 감추는 행동으로서 신에 대한 모독과 나쁜 언동으로 받아들여져서 금기시 됨
 -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영향을 받아 더럽고 저속한 것으로 음탕함과 매춘을 상징하는 것이 됨

(2) 로마네스크(11 ~ 13세기)

1) 문화사적 배경

콘스탄티노플이 터어기인에 의해서 점령되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는 사이 유럽은 게르만민족의 이동, 프랑크왕국의 건국과 분열, 노르만인의 침입과 노르만왕국의 건국, 십자군 원정 등 유럽과 동방과의 교류는 현저하였다. 11세기에는 크리스트교가 전 유럽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교회의 권력은 정신과 물질로부터 강화되어 중세문화를 지배하였다.

2) 화장형태

십자군 전쟁이후 동양으로부터 안티몬과 향유 등 진기한 화장재료들과 회교도의 화장 풍습이 전해져서 여자들끼리 치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스의 자연철학이 아랍과학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의학이 발전되었다.

- 13세기와 14세기 : · 알드브랑댕 드 시엔(1256)의 육체의식이요법론
 - 랑프랑 드 밀랑 (1296)의 대외과학 등 의학개론서 편찬
 - 파르(Fard, 화장품)라는 명사(채색하다) 생김
 - 파르주안(Farjwan), 파르위동(Farwidon)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측

(3) 고딕시대(14~15세기)

1) 문화적배경

고딕은 로마네스크에 이어지는 서유럽 미술의 한 양식으로, 16세기 화가 바사리가 고트족의 건축이라는 의미로 불린 명칭이다. 고딕예술은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동방으로부터의 뛰어난 기술의 제작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산업적인 면에서의 발전을 가져오고, 휴머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의 미술 양식이다.

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몄고 건물内外의 많은 조각을 장식하는 등 성당 그 자체에 천국의 신비성과 장엄성이 가득 차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2) 화장형태

화장에 대한 혐오 풍조와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규범이 있고 그것을 찬미함으로서 화장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

- 14세기 자크 드 라 마르슈 : 음탕함과 저속한 화장 근절
- 그리스 로마처럼 피부를 희게 꾸밈 : 흰색과 수용성 안료를 사용(치아미백, 흰색과 수용성 안료를 사용)
- 입술, 뺨, 손톱 : 붉은 색을 선호
- 입술 : 도톰한 형태의 볼륨감있게 표현
- 이마 : 넓은 이마가 이상적인 모습
- 눈썹 : 가늘고 갈색이며 아치처럼 둥글게 다듬었다(넓은 이마 강조)

3. 근세시대

(1) 르네상스(16세기)

1) 문화사적 배경

르네상스(Renaissance)란 '재생'이라는 의미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14세기 경으로부터 16세기에 걸쳐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예가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 르네상스는 넓은 의미의 중세 세계의 붕괴였다. 십자군 원정 이후 지중해 무대로 세계 상업이 활발하여 베네치아,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등의 도시로 잇달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

2) 화장형태

르네상스인들은 현세의 삶을 찬양하고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 건강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했고 몸을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으며, 육체의 미를 찬양하게 되었다. 반면 르네상스의 발랄한 인간주의와 현실주의의 밑바탕에는 불안과 애수와 깊은 종교의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 부유층, 귀족 : 남녀 모두 과장되고 화려한 의복과 화장을 즐김
- 화장 : 사교를 위한 필수 조건
- 피에트로 데 빠드웨(이탈리아 교수) : 몸을 씻는 방법과 분을 바른 방법 등의 화장법을 여성의 화장이란 책에서 다룸
- 새로운 화장품의 제조와 화장술이 성행했으며 체취제거를 위해 향수를 사용
- 볼 : 낮에는 섬세하고 창백하게, 저녁에는 붉게 볼화장을 했으며 짙은색의 컬러를 선호했다
- 색채 : 빨강, 파랑, 짙은 주황, 진보라 같은 짙은 색을 선호
- 엘자베스 1세 여왕 : 창백하고 짙은 화장으로 넓은 이마를 표현하고자 눈썹을 뽑음, 여러 가지색의 가발을 사용
- 남자 : 하얗게 하기 위해 여자와 같이 분을 바름
- 풍파두르 (Pompadour) : 루이 15세의 정부,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 가면(mask) : 연극배우,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됨

(2) 바로크시대(17세기)

1) 문화사적 배경

17세기 유럽사회는 신앙면, 정치면, 사회면에서 동요가 심했던 시대이다. 귀족들은 권위를 강조하고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부정형한 것, 진귀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으므로 예술양식으로는 바로크(Baroque)라 부른다. '바로크'란 스페인 언어로 'barrucca'로 '이그러진 진주', 또는 포르투갈언어로 'barroco'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바로크 예술의 특징은 과장되고 복잡하며 감각적인 성향으로 곡선을 예술적 표현으로 이용해 나갔다.

2) 화장형태

바로크 시대에는 포동포동하고 성숙한 여인이 미의 기준이었고, 미인의 모습은 포동포동하고 따뜻한 혈색에 크고 검은 눈을 지닌 풍만한 여인이 우위를 점했다. 티치아노의 ‘거울 앞의 비너스’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 붉은빛 연지와 밝은 색조의 입술 선호, 상류층여인들은 백연(분) 메이크업베이스 사용
- 흰 파우더로 광택없는 흰 얼굴을 표현하고, 짙은 눈썹을 선호, 오페라배우의 화장 및 의상이 유행
- 치아 : 갑오징어의 뼈, 복숭아 씨, 계피같은 혼합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닦음
- 피부 : 포도주를 마실 때 목구멍으로 포도주가 넘어가는 것이 보일정도로 투명해야 함
- 이태리 정부 : 화장품에 납가루 사용을 금지함
- 프랑스 : · 무분별한 메이크업 성행과 패취(Patch) 사용
 - 패취위치에 따른 의미
 - 눈 근처 : 뇌쇄적
 - 웃음으로 생기는 주름위 : 쾌활
 - 입술 위 : 장난기 있음
 - 이마 위 : 위엄 있음
 - 볼 위 : 친절
 - 입술 아래 : 신중
- 풍탕쥬 머리형태

(3) 로코코(18세기)

1) 문화사적 배경

루이 14세의 만년 거듭되는 전쟁으로 국고의 빈궁해지며 권력은 쇠퇴했고, 베르사이유 궁전의 호화로움, 권력의 압박, 엄한 에티켓 등의 엄격함에 짙증난 사람들은 편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를 추구하는 살롱(Salon) 문화를 만들었다.

루이 15세 때에는 더욱 발전하여 로코코 양식을 출현시켰다. 여성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곡선미를 강조하며 꽃, 깃털, 루프, 꽃바구니 등 호화로운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루이 15세의 애첩 풍파두르가 한 머리모양이 유행되어 ‘풍파두르’라 칭했다. ‘로코코(Rococo)’라는 것은 ‘로카일(rocaille)’이라 불리는 조개껍질의 세공에서 나온 명칭이고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한다.

2) 화장형태

18세기에는 청순, 간소, 우아하고 기교적인 로코코 양식이 유행하게 되었고, 귀족의 부르조아적 감상과 이국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 극에 달한 무분별한 화장

- 1770년 영국에서 영국귀족에 의해 최초의 비누와 화장수 생김
- 1774년 프랑스 파리에서 향수와 화장품 가게 생김
- 남자 : 백납분 바르고, 볼과 입술에 루즈를 바름
- 인공적인 붉은 화장이 선호, 백분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빨강을 바르는 붉은 화장법
- 눈썹 : 검게, 혈관은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치장
- 패치 붙임 : 귀부인들은 패치로 다이아몬드도 박음. 패치사용의 극치를 이룸
- 18세기 후반까지 가면사용, 백납으로 만든 흰색분과 쥐의 피부로 만든 인조눈썹 사용
- 색채 : 얇은 자주, 어두운 노랑, 얇은 장밋빛, 바랜 초록색 등 혼합색을 사용
- 마리앙뜨와네뜨 : 모든 계급의 여성들은 여왕의 머리모양을 모방함

(4) 근대시대(19세기)

1) 엠파이어 시대(1799년~1814년)

A. 문화사적 배경

프랑스 역사라 볼 수 있으며 나폴레옹시대라 불렸고,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면방직과 모직의 섬유공업에서 비롯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정치, 사회철학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 되었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산업상의 큰 변혁이 시작되었으며, 면방업, 공업에서 시작되었다. 교통수단, 통신기관에도 혁신적인 발명이 있었고, 우편제도, 전화의 발명으로 파급되었다.

B. 화장형태

- 창백한 화장법
-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은 쇠퇴하기 시작함
- 강한 화장은 사라지기 시작함
- 자연스러움 강조, 향수만을 사용

2) 로맨틱 시대(~ 1850년)

A. 문화사적 배경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실각하여 추방당하고 루이 18세에서 샤를르 10세와 루이 필립으로 이어지는 왕정으로 되돌아간 시기이고, 영국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후 건축, 미술, 가구, 의상에 있어서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가 열렸다. 시인은 워즈워드, 카이츠, 셀리, 바이론,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을 주도했던 소설가 월터 스코트경, 독일의 하이네, 프랑스의 빅토리아는 문학사상과 사회풍조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음악에서는 베토벤, 슈베르트와 같은 낭만음악의 대가들이 있었고, 건축양식에서는 중세 고딕양식이 부분적으로 부활되었다.

B. 화장형태

-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창백한 피부화장, 눈화장은 안한듯하게
-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낭만적인 화장법선호
- 아이라인과 인조속눈썹 등장
- 볼연지의 위치가 볼 위쪽으로 옮겨짐
- 위생과 청결을 중요시하여 비누사용의 보편화
- 두꺼운 화장은 연극, 무대에서 한정됨

3) 크리놀린 시대 (1850~1870년)

A. 문화사적 배경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한때 까지를 말한다. 나폴레옹 1세의 업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쟁 수행과 식민지 개척등 대내외적으로 경륜을 펴나갔다. 1855년 파리 세계 박람회의 개최는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가 다시 한번 예술 공업 외교의 중심지임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상류계층에서는 산이나 해변으로 놀러다니는 풍습이 생겨났고, 등산, 경마, 스케이팅 등 운동을 즐겼으므로 스포츠용 의복이 발달하였다. 또한 재봉틀을 사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터키, 주름장식 등이 의복에 많이 이용되었다.

B. 화장형태

- 피부 : 촉촉함을 위해 자스민과 오렌지를 넣은 물을 사용
- 팩 : 밤에 생고기, 달걀 흰자로 팩을 함
- 영국 :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알버트 공)이 죽자 화장을 하지 않았고 그런 창백한 피부가 유행 되어 비상으로 얼굴을 표백하기도 했다.

4) 버슬시대(1870~1914년)

A. 문화사적 배경

인공염료와 레이온 등이 대량 생산되었고 지나친 낭만주의적 감상에 대한 반발로서 출발한 리얼리즘이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건전한 운동으로 발전하여 이러한 사상을 담은 문학작품들이 시대사조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들의 의복은 파니에를 이용하여 허리 뒤쪽으로 드레스의 자락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힙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되는데 이것이 버슬 스타일이다.

B. 화장형태

- 피부 : 흰분을 하얗게 바름
- 눈썹 : 자연스러웠으나 말기에는 먹물이나 검은 유향으로 강조함

- 화장품의 발달 : 립스틱, 볼연지 등 사용
- 챙이 넓지 않은 작은 펠트나 모자, 밀짚모자를 앞 이마쪽으로 기울게 쓰고 관위에 리본, 레이스, 꽃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이마 위로 기울여 씀. 리본을 늘어 뜨림
- 빅토리아 여왕 : 복식, 화장, 머리형을 리드하는 국민의 표준이 됨

5) S-curve(189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아르누보(at Nilouveau)의 미술양식이 모드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대의 사실주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체계를 거부하며 절대 자유를 추구하였다. 윌리엄 모리스에 제창된 이 미술공예운동은 굽이치는 곡선을 이용한 장식상의 새로운 양식이었다. 세공품, 가구, 건축, 실내장식 뿐만 아니라 여성 의복에도 영향을 보였고, 식물의 줄기처럼 흐르는 듯한 C자형, S자형의 곡선 표현이 그것이다.

B. 화장형태

- 피부 : 흰 피부 선호, 얇은 베일을 써서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
- 화장 : 자연스러움
- 미용팩 : 필링효과 있는 메카의 향유, 카카오 기름, 고추냉이 기름 등을 이용
- 크림, 로션 :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
- 증기목욕, 염모, 탈모, 매니큐어, 마사지등이 행해짐
- 매니큐어 : 신조어로 손과 손톱을 손질하는 것을 의미

II. 헤어

1. 헤어의 정의

헤어(hair)란 포유동물에서 피부의 바깥층에 나는 실 모양의 구조로 두발, 수염, 눈썹, 속눈썹, 코털, 귀털, 겨드랑이털, 음모 등 머리카락과 신체에 나있는 모든 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포유동물만 가지고 있는 각화된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의 원추세포의 생물학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것은 ‘두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장소, 시간, 목적, 유행 등에 맞추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헤어스타일(hair style)이라고 한다.

2. 헤어의 기능 및 조건

- (1) 헤어의 기능 : 장식기능, 보호기능, 배출기능
- (2) 헤어스타일의 조건 : 모발, 얼굴형, 체형, 기호, 계절, 장소

3. 두상의 포인트

- (1) 센터 포인트(C.P. : center point) : 이마 중앙의 모발 경계선 지점
- (2) 사이드 포인트(F.S.P. : front side point) : 센터 포인트에서 우측으로 수평하게 연장하여 모발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
- (3) 사이드 포인트(S.P. : side point) : F.S.P.와 S.C.P.의 중간 지점
- (4) 사이드 코너 포인트(S.C.P. : side corner point) : 안면의 측면부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는 모발 경계선 지점
- (5) 이어 포인트(E.P. : ear point) : 귀의 상부에 위치하는 모발 경계선
- (6) 이어 백 포인트(E.B.P. : ear back point) : 뒤에서 본 귀의 중간 지점
- (7)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N.S.P. : nape side point) : 목덜미에서 모발이 형성되는 양쪽 끝 지점
- (8) 네이프 포인트(N.P. : nape point) : 목덜미에서 모발의 형성이 끝나는 지점
- (9) 백 포인트(B.P. : back point) : 귀의 상부에서 수평으로 연장되는 직선이 두상의 곡면과 만나는 지점
- (10) 골든 포인트(G.P. : golden point) : 턱선에서 S.C.P. 지나는 직선이 연장되어 두상의 곡면과 만나는 지점
- (11) 탑 포인트(T.P. : top point) : 두상의 상부 중앙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한 점
- (12)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B.N.M.P. : back nape medium point) : B.P.와 N.P.의 중간 지점

- (13) 골든 백 미디움 포인트(G.B.M.P. : golden back medium point) : F.S.P에서 수평으로 연장하는 직선이 두상의 곡면과 만나는 지점
- (14)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T.G.M.P. : top golden medium point) : T.P.와 G.P.의 중간 지점
- (15)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C.T.M.P. : center top medium point) : C.P.와 T.P.의 중간 지점

4. 헤어스타일링의 도구

블로우 드라이어(blow dryer), 전기 세팅기, 아이론, 브러쉬와 빗, 끈 고무줄, 싱, 망, 클립, 핀(아메리카 핀, 스몰 핀, 네지 핀, 오니 핀, 모 핀, 싱글 핀, 더블 핀)

5. 헤어스타일의 기본 요소

헤어스타일의 기본 요소로는 세트, 드라이, 아이론, 업스타일이며 세트, 드라이, 아이론은 업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도 사용된다. 열기구의 적정 온도는 블로우 드라이의 경우 90°C 전후가 적합하며, 아이론 기구로 스타일을 구사할 경우 120~140°C이다. 전기 세팅기의 경우는 130~140°C 정도의 온도로 세팅기로 와인딩한 후 10분 전후로 세팅 룰러의 몸체가 식으면서 웨이브가 고정된다.

(1) 헤어 세트(hair set)

헤어스타일에서는 정리한다는 의미로 ‘두다 자리 잡다, 놓다, 끼우다, 세우다, 고정시키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두발에 미용도구를 사용하여 ‘두발형을 만들어 마무리하다’는 의미이다. 즉 블로우 드라이, 아이론, 세팅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와 웨이브를 형성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세트의 분류

오리지널 세트 :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3) 블로우 드라이(blow dry)

헤어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중요한 테크닉으로 열과 바람을 이용해 모발을 건조시키고 형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형태로의 연출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한번에 젖은 모발을 건조시키고 스타일링까지 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서 시간이 절약되며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연출해준다.

– 드라이의 종류 : 블로우 드라이, 핑거 드라이, 램프 드라이, 내추럴 드라이

(4) 아이론(Iron)

1875년 프랑스의 마셀 그라또(Marcel Grateau)가 마셀과 컬로 구성된 히트 아이론을 최초로 창안하였다. 모발에 120~140°C의 열을 가함으로서 모발에 볼륨, 텐션, 웨이브, 컬이 형성되는 일시적인 세트 방법이다.

1) 아이론의 명칭

- 마셀(marcel)
 - 그루브(groove) : 흄이 파여 있는 부분으로 프롱과의 사이에 모발을 끼워 형태를 만듦.
 - 프롱(prong) : 등근 모양으로 그루브와 함께 모발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발을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 손잡이(handle) : 그루브와 프롱에 각각 연결된 손잡이 부분
 - 컬(curl) : 마셀을 감싸는 기구로, 컬을 회전시켜 강한 웨이브를 만듦.
- 2) 아이론의 종류 : 플랫아이론(flat iron), 헤어 아이론(hair iron), 일렉트릭 아이론(electric iron)

6. 업스타일

업스타일은 여성미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로서 다른 헤어스타일에 비해 디자인이 강조되고 뛰어난 조형감각이 요구되어진다. 업스타일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의 머리 꾸밈새의 하나 또는 머리카락을 위로 치켜 올려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의 머리 모양 또는 여자의 머리 꾸밈새의 하나’이다.

(1) 업스타일의 장점

- 다양한 분위기 연출 가능
- 예의를 갖추어 보일 수 있고 격이 높아짐
- 균형잡힌 실루엣 연출
- 유행의 흐름에 덜 민감함
- 타인에게 여유와 신뢰감을 줌

(2) 업스타일의 표현기법

- 1) 꼬기(twist style) : 밧줄처럼 감기는 효과를 주기위해 헤어를 탄탄하게 꼬아 두피 쪽으로 붙여주는 기법으로 1가닥, 2가닥, 3가닥이 서로 교차하고 회전되면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 모발가닥의 양이나 텐션 정도 등의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종류로는 한 가닥 꼬기, 2~3가닥 꼬기, 다중 한 가닥 꼬기 등이 있다.

- 2) 겹치기(overlaps style) : 2가닥의 머리가 십자모양으로 상반되게 교차되는 형태로 매끈한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각의 높낮이에 따라 늘어짐 정도가 다를 수 있다.

- 3) 땋기(braids style) : 땋기는 모델의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입체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패턴화된 모양으로 업스타일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백콤이나 세팅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종류에는 한 줄 땋기, 두 줄 이상 땋기가 있고 방향도 위, 아래가 있다.
- 4) 고리(loops style) : 고리는 머리가닥을 조가비 모양으로 접거나 구부리거나 동그랗게 하여 곡선 모양으로 두상의 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법이다.
- 5) 롤(rolls style) : 롤은 머리카락 자체 내에서 수직축을 따라 네이프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가며 싸여지고 감겨지고 롤의 크기나 볼륨은 머리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 6) 매듭(knot style) : 머리카락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매듭은 시선을 가운데로 이끌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을 만들어 준다. 매듭은 모양이나 두상의 크기에 의해 형태가 결정이 되며 한 가닥 매듭, 두 가닥 매듭, 대각 매듭 등이 있으며 2가닥 매듭의 시농 스타일이 있다.

(3) 업스타일의 기초 순서

세트 말기 → 아이론 또는 드라이기로 퀼 만들기 → 정수리 백콤 → 옆머리 작업 → 뒷부분 매듭

7. 헤어스타일의 표현 요소

(1) 얼굴형

- 1) 계란형 :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서 인식되어지며 얼굴의 윤곽과 비율은 다른 얼굴형을 수정하기 위한 기본 얼굴형이다.
- 2) 원형 : 넓은 얼굴로서 둥근 헤어라인과 둥근 턱선을 형성한다. 동양인에게 가장 많은 얼굴형으로 전두부의 헤어라인과 턱선이 눈에 띄게 둥글며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 헤어스타일은 얼굴 길이에 착시현상을 연출시켜 전두부의 뱉을 높게 하고 옆이 부풀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3) 사각형 : 직선의 헤어라인과 직사각형의 턱선을 가진 넓은 얼굴로 턱선이 모나고 둥근 느낌이 없으므로, 이마의 모난 부분을 감추고 측면에서 두발을 높게 치켜 올려 한쪽 귀를 가리며 얼굴선은 부드럽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는 비대칭의 헤어스타일을 구사시킨다.
- 4) 삼각형 : 이마 부분이 좁고 턱이 넓게 보이는 형으로 얼굴의 턱선이 볼록한 것을 눈에 띠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며 전두부는 사이드에서 가르고 귀 양쪽에 약간 길게 내려야 한다.

5) 장방형 : 공허한 분위기의 뺨을 가진 길고 가는 얼굴로 길이에 비해 가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헤어디자인은 전두부를 낮게 하고 옆에 볼륨을 주도록 한다.

6) 마름모형 얼굴 : 좁은 이마, 광대뼈는 과도하게 넓으며 턱의 선은 가늘다. 양 볼의 빼가 많이 튀어나왔으며 상하의 폭이 좁으므로 이마가 넓게 보이도록 하는 두발형을 만드는 동시에 옆은 부드러운 컬이나 롤을 만들어 올리고 컬이나 롤을 이용하여 턱선 아래쪽으로 내린다.

7) 역삼각형: 넓은 이마와 가는 턱선을 가진 얼굴형으로 이마가 넓고 턱선이 좁아보이므로 헤어스타일은 이마 쪽 넓이를 줄이고 얼굴 아랫부분은 넓게 증가시켜 이마 부분을 위로 올린 뱅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마 중앙부분과 한쪽으로 비대칭 스타일로 턱선이 부드럽고 넓게 보이도록 구사한다.

(2) 옆얼굴

헤어스타일을 구사시킬 때 고객의 옆모습 또한 중요한 지표를 가진다.

- 직선옆얼굴(straight profile) :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며 오목하거나 볼록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 오목한 옆얼굴 : 목덜미에 있는 머리카락을 귀쪽으로 유동성을 주는 스타일이 요구된다.
- 볼록한 옆얼굴 : 이마에 컬이나 뱅을 주면서 네이프에서 헤드 가까운 쪽에 스타일을 만든다.

(3)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긴 루 헤어의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며 쇼트헤어는 몸을 더욱 마르고 길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그 밖의 다른 스타일은 거의 잘 어울린다.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자칫 체격이 커 보일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스타일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단발머리이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머리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어떤 형이라도 잘 어울리며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스타일이 적합하다.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전체적으로 날씬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짧은 머리 형태이다.

(4) 가르마 위치

가르마 위치에는 크게 앞가르마와 옆가르마로 나눌 수 있다. 앞가르마는 안정감이 있고 단정하며 귀여운 이미지를 주고, 옆가르마는 단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5) 앞머리의 유무

앞머리로도 다양하게 변화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다. 앞머리가 있는 경우 어려 보이고 얼굴형에 따른 단점 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이 앞머리를 내리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2가지 정도의 앞머리의 형태가 있는데 일자 뱅과 사선 컬로 나눌 수 있다.

(6) 귀선의 매입과 노출 여부

귀선의 매입과 노출여부에는 완전매입(完全埋入:귀선이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감추다), 반 매입(半埋入:귀선의 빈이 드러나지 않게 감추다), 완전노출(完全露出:귀선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다)이 있다. 완전매입은 클래식한 이미지로 자칫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반 매입은 단아함과 차분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완전노출은 활동적이고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7) 시농의 위치

시농의 위치는 N.P(Nape Point), G.P(Golden Point), F.P(Front Point), T.P(Top Point)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N.P는 안정감, 단아함, 우아함의 이미지를 주고 G.P는 개성적, 활동적, 발랄한 이미지를 주며 F.P는 화려하고 예술적 요소의 이미지를 T.P는 고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8. 헤어스타일의 역사

(1) 고대시대

(1) 이집트

이집트인들은 종교적 의식과 청결함을 중시하였고, 일광과 더운 기후로부터 시원하게 하기위하여 머리를 짧게 깎고 가발을 사용하였다. 초기의 가발은 각이 지고 길이가 짧은 단발형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졌으며 간단한 복식에 비해 장식이 많이 발전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커어취프(kerchief)라는 피라미드 모양의 두껍고 뺏뻣한 형겼으로 만든 머릿수건을 착용하였고, 왕과 왕비는 양 옆자락을 앞으로 늘어뜨린 모양의 클라프트(klaf)를 머리에 둘러 쓰기도 하였다.

나일강 유역의 진흙을 두발에 발라 둥근 나무 막대기로 말고 태양열로 건조시켜서 두발에 걸을 만들기도 했다. 이것은 알칼리 토양의 알칼리와 열을 이용한 퍼머넌트웨이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리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여 남녀 모두 머리를 길렸다. 남자의 머리모양은 걸을 이마위로 내리는 형태, 앞머리의 걸을 뒤로 곱슬거리게 빗어 넘기는 형태, 앞머리를 짧게 단발하고, 뒤는 길게 타래 머리한 형태, 귀와 같은 길이로 둥글게 자른 형태에 금속밴드나 은장식을 하였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메이크업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아름답고 풍부한 긴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스타일, 자연스럽게 묶거나 중앙에서 나눠 뒤로 틀어 올린 고전적인 스타일이 많았다. 구불거리는 걸을 목덜미에 네트나 머리띠를 사용하여 묶거나 고정시킨 아테네의 스타일과 머리를 뒤쪽에 끌어올려 느슨하게 띠로 묶어 단순한 형태로 고정시킨 스파르타 헤어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전문적인 결발사들의 출현으로 결발술이 크게 변성하였으며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3) 로마

로마 남성들은 왕정시기에는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길렀고, 공화정시기에는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카락을 곱슬거리게 손질하였다. 제정시기에는 연장자나 성직자들이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길렀으나 대부분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의 단순한 형태를 좋아하였고 가발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의 초기 헤어스타일과 장식은 그리스의 영향으로 앞가리마를 타고 양쪽머리를 곱슬거리게 늘어뜨리거나 머리 전체를 짧게 커하는 등의 단순한 형태가 많았다. 그 이후에는 웨이브나 컬을 내는 등의 손질방법이 발달하였으며, 가발 등을 사용해서 헤어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로마의 여성들은 머리를 잣물로 표백하고 노란 꽃을 으깬 물에 머리를 행구어 황금색으로 칠색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로마 말기에 여성들은 교회에 들어갈 때 머리 위에 베일을 썼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모든 계급의 여성들 간에 보급되어 종교 감정이 깊어진 중세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2) 중세시대

(1) 비잔틴

남성들은 남성미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긴 머리이었으나, 점차 짧아져서 단발모양의 단순한 형태가 되었다. 긴 머리의 야만 모드를 즐겨하였는데 긴머리는 남성미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였다.

여성은 머리를 깎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발을 늘어뜨리거나 양쪽으로 길게 땋아 무릎까지 늘어뜨렸다. 죄인이나 간통한 여인들에게 적용하는 별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모발을 깎이는 것을 수치스러운 고통으로 여겼다. 종교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감추었기 때문에 머리자체의 형태보다는 부드럽고 얇은 천을 금속밴드로 고정하거나 터번을 착용하였다.

(2) 로마네스크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깎은 단발형과 어깨까지 머리카락이 늘어지는 형이 있었다. 귀족이나 특수층을 제외하고 후드와 케이프가 붙은 모양의 얼굴만 내놓는 형이 유행하였다. 상류층에서 애용된 코이프(coif)는 턱에 끈으로 묶는 작은 모자로 어린아이의 모자 같은 모양이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양 갈래로 땋아서 앞 가슴쪽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형과 땋은 머리를 머리 뒤쪽에 감아매는 형이 있었다.

신이 주신 모발을 변형시키는 특별한 미용 행위를 하기보다는 웜플, 고젯, 코이프 등의 모자를 이용하거나 아랍이나 비잔틴 등 동양 스타일을 모방하여 금사나 보석을 이용한 장식을 주로 했다.

(3) 고딕

남성들은 모자나 철모, 투구 착용이 편리한 단발형이나 가운데 가르마에 굽은 웨이브의 보브(bob) 스타일을 하였다. 챙이 없는 슈가로프 햇(sugar loaf hat)이나 챙이 좁은 것,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모자에 타조 깃털을 꽂는 것이 유행되었다.

미혼 여성의 머리는 느슨하게 늘어뜨렸고 기혼 여성은 중앙에서 나누어 양귀를 덮어 정돈하는 양의 뿔(Ram'

s horn)스타일을 하였다. 이는 양쪽 귀 위에 땋은 머리를 둥글게 감아서 고정시킨 것을 말한다. 15세기에 헤어스타일과 장식은 화려함 보다는 기이하게 변형되어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여 앞머리를 뽑았다.

15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과장된 머리장식으로 넓이를 강조한 에스커피온(escoffion)과 높이를 강조한 고딕 건축의 뾰족함을 가장 잘 살린 에네(hennin)이 생겨났다. 에네은 고딕시대 여성의 가장 특징적인 모자로서 약 45~90cm의 높이의 고깔모자에 비단을 씌우고 뾰족한 끝에 두장의 직사각형 베일을 고정시켜 길게 늘어 뜨렸다.

(3) 근세시대

1) 르네상스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초기에는 단발이었으나 후기에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는 긴머리와 현대와 비슷한 짧은 머리형이 있었다. 여성들은 후드(hood)에 가려져서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지 않으며 이마를 완전히 보이게 올백(all back)으로 빗어 넘기거나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후드나 본넷(bonnet)을 썼다. 후드는 게이블 후드(gable hood)와 프렌치 후드(french hood)가 있었다.

또한 머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을 하였으며 유행된 머리색은 금발을 선호하여 다양한 염색 비법들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향기로운 머리 분을 사용하여 향내가 나고 반짝거리게 하였다.

2) 바로크시대

목 뒤쪽이 높고 뾰족하게 뻗친 휘스크 칼라(whisk collar)가 유행하여 머리가 짧아졌고 17세기 중반부터 어깨에 내려앉은 플랫 갈라(flat collar)가 유행하게 되자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여성스럽고 풍성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루이 13세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헤어스타일은 중후하고 거창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가발은 페리위그(peri wig)나 풀버텀 위그(full bottom wig)가 유행하였다. 모자로는 기사는 챙이 넓은 모자와 슈가로프 햇을 사용하였고, 트리콘 햇(tricorn hat)은 신사의 모자로 정착되었으며, 상류계급과 전문직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계급의 상징이 되었다.

여성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을 앞에서 뒤로 올백형으로 높게 빗어 리본으로 매어주고 진주나 보석 헤어핀으로 꾸몄다. 중기에는 머리카락을 펼하여 얼굴 양옆으로 볼륨 있게 부풀린형이나 펼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 뜨렸다. 후기에는 라 마르탱(La martin)이라는 여자 미용사가 창조해낸 월를 뛰 베를루(hurlu berlu; 센터파팅을 중심으로 양갈래로 펼을 주어 리본으로 묶은 스타일)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690년경에는 풍탕쥬(Fontanges : 루이 14세의 애첩인 풍탕주 부인이 유행시킨 스타일로 거즈, 레이스천을 뾰족하게 장식하여 헤어스타일에 높이감을 준 머리형)스타일이 유행하였다.

3) 로코코시대

로코코 시대는 S형의 곡선과 밝고 화려하며 극도로 장식적인 귀족적 취미를 바탕으로 하여 가발을 비롯한 머리장식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다. 로코코 시대 남성 헤어스타일의 중요한 변화는 가발의 변화로 대형 가발 스타일과는 달리 경쾌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가벼운 가발이 유행하였고, 나이, 직업, 복식에 따라 가발이 매우 다양해졌다.

- 보그 위그(bob wig) :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목이 보일 정도로 짧거나 목을 가리는 긴 것으로 머리끝은 등 근 컬이나 웨이브가 지는 가발
- 카도간 위그(cadogan wig) : 머리를 뒷 중심에서 모아 리본으로 묶고 리본의 나머지 부분을 앞 목에서 브로 치로 고정시킨 것
- 컷 위그(cut wig) : 가발 전체길이가 짧고 컬이 없는 단순한 형으로 농부나 노동계층에서 사용
- 백 위그(bag wig) : 땅은 머리를 검정색 네모난 주머니에 넣고 뒷목에서 검정색 리본으로 나비처럼 묶어주는 것
- 피그 테일 위그(pigtail wig) : 중국인의 머리형을 닮은 것으로 길게 땅은 머리를 검정색 리본으로 감아주어 마치 꼬리처럼 보이고 머리 끝과 뒷목에서 리본을 나비형으로 묶어줌
- 라밀리 위그(ramillie wig) : 머리를 길게 땋아서 뒷목과 맨끝, 두 군데를 검정색 리본으로 매어주거나 끝에 서만 매어준 것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로코코 시대 초기 풍탕주 머리형에서 풍파두르(1720~1750년경, 루이 15세 : 작은 볼륨의 시농)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마리 앙투아네트가 즐겨하던 푸프(pouf : 레오나르라는 미용사가 고안함. 그 시대의 이슈인 소재나 깃털, 리본, 조화 등을 높게 장식한 스타일로 일명 '사다리 미용'이라 불림) 스타일로 유행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출산과 더불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분위기로 인해 볼륨감이 낮은 시농이 유행하였다. 모자는 우아한 보닛형으로 포장마차처럼 골조가 있고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바람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칼라쉬(calash)가 있었다.

(4) 근대 시대

1) 엠파이어 시대

여성은 머리를 짧게 깎아 티투스 형으로 하거나, 곱슬거리는 컬을 부분적으로 늘어뜨리고 머리를 뒤쪽으로 높게 치켜 빗고 리본으로 묶는 그리스시대 헤어스타일 유행하였다. 간단한 머리 형태와는 달리 가발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머리에는 염색(흐린 핑크)을 하고 회색, 청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머리 분도 발랐다.

2) 로맨틱 시대

여성의 머리 형태는 가리마를 타서 양쪽 옆머리가 관자놀이부터 둥글 를을 만들어 볼로 내려와 양쪽 귀를 덮

는 스타일 유행하였다. 머리를 높이 올려 큰 빗으로 고정시키고 꽃, 깃털 등으로 장식하는 아풀로 놋(apollo knot)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양쪽 소시지 컬(Sauage curl)이라는 귀를 덮고 뒤통수에는 둥글게 뒷머리를 말아 붙인 스타일을 하였다.

3) 크리놀린 시대

남성들은 폭이 넓은 스커트가 유행했다. 머리카락이 뒷목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하고 콧수염과 볼수염을 길렀다. 여성들은 유제니 왕비의 붉은 갈색 머리칼과 마돈나처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돌돌 말린 컬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뜨린 형태가 유행하였으며 일반 여성들은 유제니 왕비와 같은 머리색으로 염색하거나 탈색제 사용하였다.

4) 베슬시대

남성들의 머리카락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성들은 베슬이 유행함에 따라 풍파두르 형으로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거나 이마위에 작은 컬을 하고 어깨에 들어뜨리거나 굽게 땋아 시농을 만들거나 머리위로 높게 올리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장식은 더욱 정교(꽃 장식, 빗, 핀)해졌다.

(5) S-letter 시대

S-letter 시대는 의복이 점차 단순화됨에 따라 풍파두르 형이 행해졌고, 모자는 밀짚으로 만든 실용적인 ‘맥고 모자’가 유행하였다.

III. 패션

1. 패션의 정의

패션이란 어느 특정기간동안 일어나는 장소에서 확립된 의상 스타일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져 널리 유행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는 유행, 유행 스타일, 방법, 양식 등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패션은 주로 의복에 관한 유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모든 'Life Style' (라이프스타일)의 패션화가 진행되어 우리 삶의 생활 여러 면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패션의 어원은 라틴어의 'Factio' (파티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Making' (만드는 것) 혹은 'doing'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Fashion' (패션)이란 'dress' (의복)에서의 전통적인 습관으로, 양식이나 행동을 통한 행위 혹은 'Making' (만드는 것) 과정, 'Shape' (독특한 모양)이나 'Cut' (재단), 'form' (형태)를 통한 'Action' (행위)이다.

2.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

스타일링의 사전적 의미는 “색, 디자인, 실루엣 등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유행형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의복에서 소품까지 하나의 스타일로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용되는 아이템이 서로 믹스, 매치되어 착용자의 개성에 어울리도록 연출하여 토탈스타일링을 하는 것이다. 스타일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디자인, 컨셉, 모델 또는 착용자의 이미지, 직업, 나이, 역할,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즌 트렌드와 여러 아이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패션 스타일링이란 의복을 주축으로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 소품 등의 아이템을 통하여 전체적인 통일감과 균형감을 가진 연출을 통하여 착용자의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옷을 입을 때 자기만의 새롭고 개성 있는 취향을 창출 하는 것이다.

3. 패션 디자인의 기본 요소

(1) 선 (Line)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선'은 시각적인 외형의 좌우와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선을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한다. 선의 효과는 사용되는 옷감이나 표현되는 디자인선, 구성 등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져 같은 선을 사용하더라도 의복의 재질이나 색채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특성이나 체형의 장단점을 강조, 보완하고 원하는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1) 직선(Straight Line) : 딱딱하고 강한 느낌을 주며, 단순·명확하고 남성적 느낌을 준다. 자연에는 직선이 거의 없으므로 직선은 인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도 준다. 직선의 종류에는 수직선, 수평선, 사선, 지그재그선 등이 있다.
- 2) 곡선(Curved Line) : 유연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여성적이며 고상하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곡선의 종류에는 원, 타원, 파상선, 스캘럽 나선 등이 있다.

(2) 실루엣(Silhouette)

의복의 외형선(Out-line)으로 윤곽선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실루엣은 인체의 선, 시대에 알맞은 유행성, 미적인 외형을 구상하여 표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실루엣 선은 의상의 스타일과 옷감에 의하여 결정된다. 패션의 스타일은 소매의 형태, 길(Bodice)의 형태, 스커트 또는 팬츠의 형태와 길이 등을 말한다. 유행의 역사는 실루엣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패션 경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1)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 : 몸의 어느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상하가 거의 비슷한 폭을 유지하는 직선적인 실루엣이다.
 - ① 트라페즈 실루엣(Trapeze Silhouette) : 사다리꼴 형태로 어깨폭이 좁고 밑단이 넓게 펴지는 실루엣
 - ② 투블러 실루엣(Tubular Silhouette) : 튜브의 형태처럼 어깨에서 밑단까지 같은 폭의 직선적인 실루엣
 - ③ 시스 실루엣(Sheath Silhouette) : 칼집과 같이 몸에 적당히 밀착되며, 날씬하고 길게 보이도록 의도된 실루엣
 - ④ 엠파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 : 짧은 퍼프 슬리브와 하이 웨이스트가 특징인 가늘고 날씬한 실루엣
 - ⑤ 시프트 실루엣(Shift Silhouette) : 마직의 속옷이 슈미즈의 명칭, 속옷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직선형의 실루엣
 - ⑥ H-라인 실루엣(H-line Silhouette) : 어깨 폭이 좁고 가슴이 멋있으며 허리와 힙도 강조되지 않은 훌쭉하고 긴 실루엣이다. 허리 부분에 가로의 절개선 혹은 벨트의 장식이 있어 H의 가로선을 상징한다.

- 2)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 모래시계의 윤곽선을 본뜬 실루엣으로, 어깨를 넓게 과장하고 힙을 풍성하게 부풀려 상하를 넓게 하는 반면, 허리를 가늘게 조여 허리선을 강조한 실루엣
 - ① 피티드 실루엣 : 인체의 윤곽선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몸에 꼭 맞아 가슴, 허리, 힙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한 실루엣
 - ② 프린세스 실루엣 : 상반신을 허리까지 몸에 맞게 피트시키고 스커트 밑자락은 넓게 펴지는 실루엣, 어깨나 진동부터 밑단까지 수직의 절개선인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가 있어 프린세스 실루엣이라 불림

- ③ 머메이드 실루엣 : 허리에서 무릎까지 몸에 꼭 맞고 무릎 밑자락은 인어 꼬리처럼 넓게 퍼지는 형태
- ④ 돔 실루엣 : 돔과 같이 반구형으로 부풀려진 스커트 실루엣
- ⑤ 미나렛 실루엣 : 몸체와 스커트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고, 허리 밑자락을 전등갓처럼 둥글게 부풀려 과장되게 얹어낸 실루엣
- ⑥ 베슬 실루엣 : 상체는 몸에 꼭 맞도록 허리를 가늘게 조이며, 힙 부분은 허리 밑이인 베슬로 둥글고 과장시켜 스커트의 밑자락까지 곡선미를 강조한 실루엣

3) 벌크 실루엣 : 몸의 중심 부분을 넓게 부풀린 실루엣으로 부피감과 함께 몸을 여유있게 감싸주는 넉넉한 실루엣

- ① 코쿤 실루엣: 누에고치의 모양과 같이 어깨와 밑단은 좁고 허리 부분이 부풀려진 긴 타원형의 실루엣
- ② 박시 실루엣 : 상자와 같은 사각의 모양으로 주로 부피감 있는 코트나 헐렁한 재킷에서 볼 수 있는 실루엣
- ③ 배럴 실루엣 : 몸통 부분이 불룩한 통 모양으로 풍성한 코트 등에서 볼 수 있는 부피감 있는 실루엣
- ④ O-라인 : 알파벳 O의 형태를 나타낸 실루엣으로 어깨, 가슴, 허리, 소매 등에 둥근 곡선을 만들어 부풀린 형태
- ⑤ T-라인 : 어깨 부분이 수평으로 펴진 형태를 이루고, 몸통은 가늘고 날씬하게 표현된, 알파벳 T의 모양과 같은 실루엣
- ⑥ Y-라인 : 어깨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분은 풍성하게 부피감을 살리고 허리에서 하반신은 가늘고 좁은 실루엣

(3) 디테일(Detail)

디테일은 세부, 부분의 뜻으로 의복의 칼라, 포켓, 커프스, 절개선 등과 재봉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드레이프, 스티칭, 셔링, 자수 등의 여러 가지 세부 장식을 의미 한다. 전체 윤곽선인 실루엣과의 대조적인 부분장식으로 전체 윤곽선인 실루엣과 디테일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 1) 칼라 (Collar) : 칼라는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칼라의 모양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상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착용자의 체형, 취향과 용도에 따라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 2) 네크라인(Neckline) : 칼라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몸과 얼굴의 중계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얼굴 모양에 유의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 3) 슬리브(Sleeve): 소매는 의상 전체에 주조적 혹은 보조적 역할을 하며 디자인 전반의 통일에 중요한 관계를 갖게 한다. 소매의 모양이 길(Bodice)의 주조적 느낌에 잘 조화되거나, 다른 부분과 대립을 이루거나 또는 소매만이 독립적으로 포인트를 갖기도 하며, 소매의 특징은 상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 4) 포켓(Pocket): 포켓은 기능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디자인 해야 한다. 특히 의복에 사용된 절개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4) 장식적 디테일

- 1) 셔링(Shirring) : 얇은 소재로 사용하여 의복의 일부에 잔주름을 한 줄 또는 여러 줄을 잡아 장식한다.
- 2) 플리츠(Pleats) & 플리팅(Pleating) : 디자인과 옷감에 따라 주름의 너비와 수를 조절한 후에 열에 의해 주름의 형태를 영구적으로 고정한 주름을 말한다.
- 3) 턱(Tuck) : 옷감 두께에 따라 주름의 너비와 수를 조절한 후에 겉에서 박음질 혹은 상침하여 고정한 주름 장식을 말한다.
- 4) 핀턱(Pin Tuck) : 블라우스, 원피스, 어린이 의복에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가는 주름을 잡아 겉으로 박아 장식한다.
- 5) 프릴(Frill) : 네크라인, 소매단, 스커트 밑단 등에 개더(Gather)나 플리츠(Pleats)로 주름잡은 폭이 좁은 단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 6) 러플(Ruffle) : 프릴과 비슷한 형태로 그 폭이 넓거나 혹은 다양한 폭으로 여러층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 7) 플라운스(Flounce) : 블라우스의 앞단, 커프스, 칼라 등에 주로 쓰이는 장식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덧붙여 물결과 같은 러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 8) 드레이프(Drape) :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부정형의 주름을 말한다.
- 9) 스모킹(Smocking) : 옷감에 규칙적인 주름을 잡은 다음 스티치로 이를 고정시켜 주름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장식한다.
- 10) 루프(Loop) : 실 고리, 원단 고리를 말한다.
- 11) 프린징(Fring) : 상의 밑단, 소매 솔기, 요크선, 바짓단 등에 옷감의 올을 풀어 매듭을 지어 장식한다. 미리 만들어진 숄을 붙여 장식하기도 한다.
- 12) 파이핑(Piping) : 칼라, 포켓, 소매의 가장자리, 요크선 등의 솔기에 색채나 재질이 다른 옷감으로 바이어스 테잎을 잘라 끼워 박는 것을 말한다.
- 13) 슬릿(Slit) : 좁고 긴 트임이 있고 소매 부리, 재킷이나 스커트의 도련 트임을 말한다.
- 14) 드로 스트링(Draw-string) : 바지허리, 점퍼의 허리 등에 끈을 달아 묶을 수 있도록 된 타입의 총칭을 말한다.

이 외에도 퀼팅(Quilting), 패딩(Padding), 패치워크(Patch Work), 컷 아웃(Cut-out), 컷 오프(Cut-off), 아플리케(Applique), 턱킹(Tucking), 러쉬(Ruche) 등이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장식으로 사용 된다.

(5) 트리밍

- 1) 브레이드(Braid) : 여러 가지 색채와 재질의 실이나 옷감으로 짜여진 밴드의 형태로 네크라인, 앞단, 소매 단, 포켓 둘레 등에 장식한다.

- 2) 스팽글(Spangle), 시퀸(Sequin), 비즈(Beads) :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나 작은 구슬을 도안에 따라 옷에 끼워붙인 장식이다.
- 3) 단추(Button) : 기능적인 목적을 넘어서 옷감의 종류와 전제적인 디자인에 조화되도록 다양한 재질, 형태, 크기, 색채의 단추를 이용하여 장식한다.
- 4) 털장식(Fur Trimming) : 천연 또는 인조 모피를 네크라인, 커프스 등에 장식한다.
- 5) 벨트(Belt), 버클(Buckle) : 가죽, 에나멜 가죽, 금속 체인 등 다양한 소재와 색채를 이용한 크고 작은 벨트도 중요한 장식으로 많이 사용 된다.
- 6) 엠블럼(Emblem) : 전통과 집단을 나타내는 심벌마크를 자수로 만든 것으로 블레이저 재킷, 유니폼의 가슴에 장식한다.

기타 이외에도 벨크로(Velcro), 지퍼(Zipper), 레이스 업(Lace-up) 등 다양한 형태의 트리밍이 유행에 맞게 활용된다.

4. 체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링

(1) 이상적인 체형 (Standard Type)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체형으로 키가 크고 마른 패션 모델의 체형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어깨와 허리의 균형이 잡혔으며, 허리선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팔과 다리를 갖고 있으며 체형을 보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의상이 잘 어울린다.

(2) 역삼각형 체형(Wedge Type)

역삼각형 체형의 특징은 어깨가 넓고 허리와 힙이 어깨너비에 비해 좁다. 어깨가 넓고 등이 벌어져 있어 건장하게 보이며 다리는 가늘며 가슴이 큰 경우도 있다. 상반신을 작아 보이게 하고, 힙을 강조한다.

(3) 삼각형 체형(Triangle Type)

어깨 폭이 힙의 폭보다 좁고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살이 많다. 힙이 강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액세서리도 시선이 위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상반신을 넉넉하게 넓어 보이게 한다.

(4) 장방형 체형(Rectangle Type)

장방형의 체형의 특징은 어깨와 힙 균형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움도 적고 허리라인도 확실하지 않아 남성적인 이미지를 준다. 벨트의 로우웨이스트 하의를 이용하여 여성적인 라인이 강조되도록 한다.

(5) 타원형 체형(Oval Type)

허리, 가슴, 엉덩이 등의 사이즈가 모두 크고 배도 나온 타입이다. 허리선이 확실하지 않고 상반신에 볼륨이 많은 스타일로 가능하면 상체에 시선이 끌리도록 연출하거나 세로로 가늘게 보이도록 한다.

(6) 마른형 체형(Thin Type)

전체적으로 가늘고 직선적이며 어깨폭과 엉덩이가 좁으며 가슴이 빈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볼륨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7) 모래시계형 체형

볼륨감 있는 상반신과 들어간 허리로 전체적으로 글래머형 스타일이다. 체형의 둥그스러움을 커버하고 길게 보이도록 한다.

5. 패션의 역사

(1) 고대시대

1) 이집트

고대 이집트 남자들의 기본의상으로는 로인클로스를 들 수 있으며, 왕은 빠뉴라는 것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왕족의 남자들이 둘러 입었던 로인클로스, 쉘지, 킬즈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허리끈 장식과 함께 칼라시리스 속에 그대로 입었다.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초기에는 몸에 꼭 끼며 유방에서 어깨 끈이 달린 쉬이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드레이퍼리가 많은 칼라시리스를 착용하였다.

2) 그리스

그리스 시대에는 남녀가 모두 키톤을 착용하였으며, 키톤은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겉옷으로는 히메티온을 남녀 모두 키톤 위에 걸쳐 입고, 짧은 여름 망토로서 짧은 사람들은 클라미스로 입었다. 키톤은 다양한 크기로 된 장방형의 천으로 몸을 감싸는 자유로운 모양을 나타낸다. 또한 종족, 환경, 생업, 개성에 따라 키톤의 길이, 소재, 색, 입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비율, 균형, 실루엣을 중시한다.

히메티온은 겉옷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직사각형 모직물로 만들고, 착용방법은 자유로웠다. 여성은 방한의 목적으로 대형의 것을 키톤이나 페플로스 위에 몸 전체를 감싸듯이 어깨에서 발목까지 두르고, 작은 것은 솔처럼 어깨에 걸치고 편으로 한쪽 어깨를 고정시켜 착용하였다.

3) 로마

로마의 가장 특징적인 의복 형태인 토가는 몸을 감싸거나 두르는 드레이퍼리 형식의 의복으로 그리스의 히메티온에서 발전 되었다. 이는 두르는 방법도 히메티온과 유사하였다. 기본적인 형태로는 모직물로 된 간단한 사각형 린넨이나 모직물로 된 반원형, 대조적색상으로 앞 중심을 따라 밴드 형태의 직물을 댄 접혀진 타원형 등이 있다. 또한 튜니카는 토가의 속옷 형태로 착용하였으며, 남자들이 착용하는 튜니카는 무릎 밑까지 내려

오고 여성들의 튜니카는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길었다. 로마시대 여성들의 기본 의복으로는 스톨라(stola)가 있는데, 이는 어깨에서부터 바지 솔기선이 있고, 이 솔기선을 따라 주름을 잡았다.

(2) 중세시대

1) 비잔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신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협령한 의복 속에 감추는 형태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복은 튜닉, 타마티카, 팔루타멘툼이었으며, 팔루타멘툼은 귀족에게 국한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주로 팔라나 파리움을 입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작품전체가 무늬로 채워진 것이 대부분인데, 문양은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2) 로마네스크

중세 암흑시대의 협령한 의복에서 몸에 맞는 형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입체적으로 의복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추나 끈으로 여미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재단상의 발전은 지퐁(gipon)이나 블리오(bliaud) 꼬르사아쥬(corsage) 등에서 알 수 있다. 남녀의복으로 분리되기 시작해서 여성의 의복은 더욱 화려하게 변해 갔다. 12세기 여성의복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직선의 강조와 부드러운 옷감사용에 있다.

로마네스크 복식의 일반적 모습은 흰색의 리넨으로 만든 세엥즈(chainse)위에다 블리오(bliaud)를 입고, 멘틀(mentle)을 걸쳤다.

3) 고딕

십자군 전쟁에 의해 동방에서 뛰어난 기술로 짜여진 견직물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3~14세기를 통해 가장 눈부시게 발달한 것은 직물 공업이었다. 여성들은 속에 브레를 입고, 위에 꼬뜨를 입었는데, 외출시나 의식시에는 쉬르꼬나 쉬르꼬뚜베르를 입었다. 꼬뜨는 로마네스크시대의 블리오를 대신하여 생긴 것으로 남녀가 모두 착용하였다.

남성들은 푸르푸앵이라는 상의를 쇼오즈와 함께 착용하였다. 카프탄 형식의 상의와 더불어 유럽복식에 바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여자는 스커트를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는 의복의 성차를 가져온 시기이다.

(3) 근세 시대

1) 르네상스

인간중심 사상의 영향으로 인체의 굴곡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여 인체 미를 강조하였다. 남성의 기본의상으로는 푸르푸앵과 트렁크호스(짧은 반바지)를 들 수 있는데 전체적 실루엣은 어깨에 패드를 넣고, 가슴을 부풀리는 등 상체를 강조하고 허리는 가늘게 조여 주었다. 남성들의 상의인 푸르푸앵(pourpoint)의 커다란 볼륨과 하의인 로드 쇼오드(haut de chausses)의 타이트한 약동감의 대비, 바지에 부착된 카드피스(codpiece)는 남성

들의 에로티시즘(eroticism)적 표현이다.

여성들은 로브 또는 가운을 입고 상체는 코르셋으로 가슴은 평편하게 허리를 가늘게 조였으며 꼭 맞는 상의와 아래로 뻗는 스커트가 더욱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르튀가네이라는 베팀대로 스커트를 종이나 복 모양으로 뻗치게 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러프(ruff), 스터머커(stomacher), 슬래시(slash), 퍼프(puff), 패드(pad), 자수와 보석장식(jewelry), 카드피스, 피스카드벨리(peascod-belly), 그리고 스커트 베팀대 등이 있다. 그 중에도 러프칼라는 볼륨감 있는 전체의 복식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어 르네상스 복식의 아름다움을 뚜렷하게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2) 바로크

바로크의 복식은 레이스(Lace), 리본(Ribbon), 루프(Loop)가 장식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대 장식은 여성 복식에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주었으나 남성 복식에서는 경박스러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복식은 귀족풍의 아름다운 스페인식 의상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얼마 있지 않아 경제정책에 의하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부터 사치스러운 옷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사치스러운 의복을 간편한 의복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의상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스커트 속에서 엉덩이를 크게 부풀리던 베팀대가 없어진 것이다.

베팀대는 부피와 함께 길이도 짧아져 16세기 보다 기능적인 형태로 변했고, 소매의 부풀림도 줄어들고 상체도 딱딱한 패드나 바스크를 넣어 형태를 만들거나 금속제 코르셋으로 조이던 것이 활동하기 조금 편안하도록 뾰족한 스터머커가 약간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변했다. 이러한 간편한 실루엣은 네덜란드 영향이 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20여년 동안만 계속되었고 17세기 중엽부터 상체는 꼬르바레네(Corpsbaleine)로 조이고 스커트는 다시 페티코트를 받쳐서 부피를 늘리고 길이도 더 길게 입었다.

3) 로코코

남성복식 코트 종류에 있어서는 쥐스또코르, 아비 아 라 프랑세즈, 프락 그리고 르댕고트가 있었다. 17세기 후기부터 18세기 초기까지 영국에서 유행하였던 쥐스또코르는 프랑스에서 아비 아 라 프랑세즈가 되었다. 프락은 1730년경 이후 유행된 의복으로 루이 16세 시대에 프락 아빌로 칭해지면서 상류사회의 의복으로 되었다. 로코코시대에 영국에서 승마용이던 라이딩코트가 프랑스에서는 르댕고트로 바뀌면서 여행용 외투가 되었다.

여성의 복식에서는 로브의 스커트 모양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종 모양이었으나 점차 원통형이 되었다가 1750년경이 되자 앞뒤의 부풀림이 축소된 타원형이 되어 약 30년간 유행하였다가 다시 로브의 자락을 뒤로 묶어 올려 베슬형태를 이루었다.

(4) 근대시대

1) 엠파이어 스타일

엠파이어 스타일에 특징적인 것은 여성로브의 실루엣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얇은 로브 위에 캐시미어 솔을 걸치면서 고대 그리스와 유사한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эмпа이어 스타일은 황비 조세핀에 의해서 흰 머슬린에 하이웨이스트라인의 슈미즈 드레스로 특징지어진다. 자연으로의 귀향을 주장하여 코르셋과 파니에로부터 몸을 해방시켜 신체의 선이 투명하게 보이는 듯한 드레스를 여자들이 선호한 반면, 남성의 의복은 디자인이 단순화되었고 색상도 수수해졌다.

2) 로맨틱 스타일

남성의 복식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실루엣에 영향을 받아 넓은 어깨, 가는 허리로 표현되었다. 레그오브 머튼 슬리브, 겹쳐지는 라펠, 더블 여밈의 조끼와 크라바트의 볼륨감을 이용하여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였으며, 스커트를 플레이지게 하면서 허리를 강조하였다. 1832년 이후에는 소매가 주름이 없는 타이트 슬리브로 돌아오며, 저녁때나 예복으로는 테일 코트를 낮에는 프락코트를 즐겨 입었고 싱글 여밈, 더블 여밈이 있다.

여성복식의 경우 1820년대 말기부터 커지기 시작한 소매와 스커트는 가늘어진 허리와 함께 X자형의 실루엣을 만들었다. 어깨를 강조하기 위하여 넓게 파인 목둘레와 드롭 숄더(Drop shoulder)로 어깨를 드러내고, 베더칼라(Bertha collar)와 퍼프 슬리브 등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였다.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페티코트를 겹쳐 입었으며, 종 모양의 스커트에는 러플과 아프리케, 터커, 리본, 조화, 자수장식이 있었다.

3) 크리놀린 스타일

남성복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복식은 계급에 차별없이 프락코트, 팬타롱을 착용하는 것이었다. 1848년 이후의 프락은 궁정 정장용으로 남게 된다. 1859년에는 코트와 조끼, 바지가 같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디토슈트가 소개 되었다.

이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유행하게 된다. 여성복식은 기본적 실루엣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타이트하게 여몄으며, 스커트 속에 입는 크리놀린에 의해서 돔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넓혀져 갔다. 소매는 벨슬리브, 타이트 슬리브가 많이 보이며 후기로 갈수록 비숍슬리브와 가브리엘 슬리브가 유행하였다.

4) 베슬 스타일

남성은 1890년까지는 여전히 프락코트가 유행하였다. 이후 프락코트는 교회로 갈 때는 모닝웨어로 착용하였으며, 짙은 모직물로서 줄무늬와 체크 무늬바지와 함께 입었다. 색이 있는 코트는 여전히 인기였으며, 1880년대 만찬용 코트로 선보인 턱시도 코트는 테일 코트와 색이 있는 코트의 절충형으로 오늘날까지 애용되고 있다. 1880년 이후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포크 재킷은 엉덩이 길이로 앞, 뒤에 맞주름이 있는 스포츠용 의복이며 허리에 벨트를 하였다.

여성은 베슬 스타일이 선보였는데, 드레이퍼리, 긴 트레인, 꼭 끼는 코르셋으로 이어져 있으며, 파니에가 허리 뒤의 주름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리하여 옆모습을 보면 힙 부분이 많이 강조된 스타일이다.

5) S자형 스타일

1890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복은 S자형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가슴을 비둘기 가슴처럼 나오게 하고, 허리를 가늘게 조이면서 엉덩이가 뒤로 약간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뷰티 이미지에 의한 스타일링

I. 메이크업

1. 형용사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모던(Modern)

모던은 “근대적”, “현대적”의 의미이다. 도시적인 이미지로 지적이며 차갑고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이다. 진취적인 이미지를 추구, 장식성이 배제된 직선적이거나 단순한 곡선 형태의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 1) 피부 화장 : 피부톤은 깨끗하면서도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잡티를 컨실러를 이용하여 커버하도록 하고 촉촉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펄감이 가미된 파우더를 봇으로 터치하여 유분기를 제거하여 준다.
- 2) 눈 화장 : 펄감이 있는 실버, 화이트, 그레이 등의 크림타입의 샐도우를 이용하여 발라주고 펄파우더나 소량의 글리터를 이용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준다. 아이라이너는 블랙으로 꼼꼼히 그려주며 속눈썹도 풍부한 것으로 붙여준다.
- 3) 볼 화장 : 핑크계열의 크림타입의 볼티지를 이용하여 볼 뼈를 중심으로 넓게 그라데이션 해 주고 화이트 펄 혹은 핑크 펄이 살짝 들어간 하이라이터를 이용하여 볼 뼈 위를 그라데이션하여 준다.
- 4) 입술 화장 : 질감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쉬머, 글로시, 크리미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주도록 한다.

(2) 댄디(Dandy)

세련된 복장과 몸가짐으로 “훌륭한”, “멋진” 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륭하고 말끔해 보이는 차림새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과도한 치장과 장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통해 스스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생활에서의 절제와 정제를 통해 추구되는 그들의 정신세계이다.

- 1) 피부 화장 : 펄이 가미되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소량 바르고 골드펄이 소량 함유된 리퀴드 화운데이션 을 톡톡 두드리듯이 바르고 파우더를 소량 발라주어 피부가 촉촉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 2) 눈 화장 : 펄감이 있는 골드계열의 샐도우를 발라주고 브론즈계열의 샐도우로 그라데이션 해준 후 검정펜슬을 이용하여 아이라인을 강하게 연출하며 언더에도 블랙 펜슬을 이용하여 눈매를 또렷하게 해준다.
- 3) 입술 화장 : 브론즈컬러와 골드를 믹스하여 발라주어 고급스럽고 멋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3) 매니쉬(Manish)

매니쉬는 “남성풍의”, “남성 취향의”, “남자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남성복 디자인을 여성복에 적용하여 남성다운 감각으로 표현한 이중적인 멋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타일이다.

- 1) 피부 화장 : 피부톤을 한 톤 어둡게 하기 위해 오렌지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오클계열의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를 표현한다. 파우더는 매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 꼼꼼히 발라준다.
- 2) 눈 화장 : 눈썹은 약간 각지고 두껍게 그리고 새도우는 누드계열의 브라운, 아이보리 등으로 얇게 펴발라 음영을 주며 블랙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이용하여 눈매를 또렷하게 해 준다.
- 3) 볼 화장 : 베이지와 브라운계열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광대뼈 밑을 각지게 그라데이션 해준다.
- 4) 입술 화장 : 누드계열의 립스틱으로 볼륨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4) 밀리터리(Military)

1940년대 유행했던 룩으로 군대, 군인이라는 뜻으로 “군용의”, “군인다운” 등과 같이 군대와 관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미룩(Army look)이라 일컫는다.

- 1) 피부 화장 : 스틱형의 화운데이션을 이용하여 볼 뼈를 중심으로 펴바른다. 파우더는 매트하게 꼼꼼히 펴바른다.
- 2) 눈 화장 : 눈썹은 각지고 얇게 그려 준 후 눈화장은 홀을 잡아준 후 브라운이나 퍼플계열을 이용하여 홀 밖으로 그라데이션 해 준 후 긴 속눈썹을 이용하여 눈매를 그윽해 보이도록 하는 한편 아이라이너는 길게 빼어 그려준다.
- 3) 볼 화장 : 핑크계열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볼 뼈를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해준다.
- 4) 입술 화장 : 내츄럴 브라운 립 라이너로 입술을 인카브로 그려준 후 브라운계열과 피치계열을 믹싱하여 꼼꼼히 메워주되 입술 구각부분을 깨끗이 그려준다.

(5) 스포티브(Sportive)

스포티브는 “스포츠맨다운”, “운동의” 등의 의미로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활동성, 편안함을 패션에 적용한 스포츠 감각의 스타일이다.

- 1) 피부 화장 : 펄이 들어간 메이크업 베이스를 얇게 펴 바르고 펄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고루 펴 바른 후 투명 파우더에 화이트 펄가루를 섞어 가볍게 T-zone 부위에만 붓으로 가볍게 발라준다.
- 2) 눈 화장 : 눈썹부분을 가볍게 빗질하여 주고 피치계열이나 파스텔계열의 블루컬러 등을 이용하여 그라데이

션 한 후 케익 또는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눈썹 사이를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려준다.

3) 볼 화장: 크림 타입의 블러셔 제품을 볼 뼈 주위에 발라주고 화이트 펄을 이용하여 볼 뼈 윗부분을 살짝 터 치하여 준다.

4) 입술 화장 : 핑크나 오렌지계열의 틴트를 살짝 발라주어 생기를 더해준다.

(6) 내츄럴(Natural)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이미지이다. 인공적인 것은 모두 배제하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채와 소박함을 가지고 자연스럽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1) 피부 화장 : 투명메이크업 베이스 소량을 T-zone부위에 가볍게 바른 후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소량 톡톡 발라준다. 투명 파우더로 덧발라주되 양을 적게 하여 유분기만 살짝 눌러준다.

2) 눈 화장 : 눈썹을 눈썹빗으로 빗어주고 피치계열과 아이보리 컬러를 믹싱하여 눈두덩이에 살짝 그라데이션 해 준 후 브라운 아이라이너 펜슬로 눈썹을 심듯이 메꾸어 준다. 투명마스카라를 이용하여 살짝 올려준다.

3) 볼 화장 : 오렌지와 베이지계열 등을 믹싱하여 볼 뼈만 살짝 그라데이션 해 준다.

4) 입술 화장 : 입술은 티슈로 가볍게 눌러주어 유분기를 없애준 후 립라이너는 생략한 채 핑크 립글로스만 입술안쪽에 살짝 발라준다.

(7) 에콜로지(Ecology)

“생태학”이란 뜻으로 자연으로의 복귀 현상으로 자연 생태계의 순순한 이미지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 회귀성향을 가진 이미지로 자연스럽다.

1) 피부 화장 : 피부색과 유사한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소량을 펴 발라주고 소량의 컨실러를 이용하여 잡티 및 다크서클을 커버하여 주며 이마, 콧등, 눈 밑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밝은 이미지를 주도록 한다. 투명파우더를 이용하여 얼굴의 유분기만 살짝 제거하여 준다.

2) 눈 화장 : 자신의 눈썹 형태를 살리면서 빛질하듯 에보니 펜슬을 이용하여 그려주며 아이보리 컬러의 색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펴바른 후 아이보리와 화이트 컬러를 섞어 눈썹뼈 부위에 한번 더 발라주고 연한 살구색 색도우를 아이홀 부위까지 그라데이션 한 후 연한 갈색으로 포인트해 준다.

3) 볼 화장 : 피치계열이나 연한 베이지계열의 컬러를 볼 뼈 주위에 발라준다.

4) 입술 화장 : 입술색에 가까운 누드 오렌지색의 립라이너로 그려주고 오렌지 계열의 컬러의 립스틱을 이용하여 발라준 후 투명 립글로스를 발라준다.

(8) 보헤미안(Bohemian)

보헤미안이란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 살던 떠돌이 집시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15세기 무렵 프랑스인들이 그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사회관습이나 규율에 구애받지 않고 방랑생활을 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의 루즈하고 독특한 생활방식을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 예술가적 자유인의 스타일이다.

- 1) 피부 화장 : 내추럴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잡티가 드러나도록 투명한 리퀴드 제품을 소량 발라주며 파우더도 소량으로 발라주어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표현한다.
- 2) 눈 화장 : 사선붓으로 밝은 브라운 색도우를 이용하여 눈썹을 그려주며, 골드와 화이트 펄을 믹싱하여 눈두덩이를 펴 발라주고 짙은 카키를 이용하여 쌍겹 라인을 진하게 음영을 주고 진한 브라운색도우를 이용하여 눈꼬리를 길게 빼어주어 눈매를 깊어보이도록 한다.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눈썹사이를 꼼꼼히 메워준다.
- 3) 볼 화장: 브라운 계열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사선으로 터치한다.
- 4) 입술 화장 : 누드베이지 립스틱을 소량 바른 후 글로스를 이용하여 입술 중앙에서 바깥으로 펴 발라준다.

(9) 클래식(Classic)

클래식은 “고전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의복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 1) 피부 화장 : 깨끗하고 단아한 피부표현을 위해 컨실러로 잡티를 완벽히 커버해주고 핑크가 믹싱된 리퀴드 화운데이션으로 꼼꼼히 펴 바른 후 피부톤과 유사한 파우더를 선택하여 매트하게 발라준다.
- 2) 눈 화장 : 눈썹은 브라운과 그레이를 믹싱한 색도우로 자연스럽게 눈썹 형태로 그려주며 에보니로 눈썹꼬리까지 깨끗하게 그려주며 골드브라운, 와인, 카키, 퍼플 등의 컬러의 색도우를 이용하여 눈매를 선명하고 단정하게 표현하여 주며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를 빼어그리며 속눈썹은 자연스러운 것을 붙이도록 한다.
- 3) 볼 화장 : 핑크와 브라운이 믹싱된 컬러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 4) 입술 화장 : 핑크 립라이너로 입술을 깨끗하게 그려주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한 후 핑크계열의 립스틱을 이용하며 아랫입술 중앙에는 화이트 펄을 이용하여 볼륨을 주도록 한다.

(10) 빈티지(Vintage)

빈티지 스타일은 색이 바래고 구겨진 중고와 리사이클, 자연 소재, 푸어 룩(poor look), 그런지 룩(grunge look) 등으로, 소외되고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추의 미학을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과

인간성 회복을 꾀하려는 풍조이다.

- 1) 피부 화장 : 투명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내츄럴하고 가볍게 피부표현을 하며 컨실러를 이용하여 결점을 최소한 감추도록 한다. 파우더도 T-zone부위에 가볍게 발라주어 글로시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 2) 눈 화장 : 투명마스카라를 이용하여 가볍게 빗어주며 피치계열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동공을 중심으로 펴발라주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 3) 볼 화장 : 피치나 오렌지계열의 볼터치로 볼 전체를 감싸듯 발라준다.
- 4) 입술 화장 : 입술은 유분기를 제거하고 파우더로 살짝 눌러준 후 누드계열의 매트한 립스틱을 이용하여 가볍게 덧발라준다.

(11) 에스닉(Esthnic)

에스닉 스타일은 “인종의”, “민족의”, “민속풍의”라는 뜻으로 서유럽을 중심 시각으로 보고 그 외의 지역인 비기독교 문화권인 광활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이 타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을 말한다.

- 1) 피부 화장: 동양적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하는 오리엔탈 풍의 화장방법으로 피부를 원래 피부톤보다 밝게 하기 위해 화이트 스틱 화운데이션이나 크림컬러를 T-zone부위에 가볍게 바르고 화이트 파우더를 얇게 덧바른다.
- 2) 눈 화장 : 붉은 색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아이라인을 두껍고 길게 빼주어 눈매를 또렷하게 해 준다. 또한 마스카라를 이용하여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한다.
- 3) 볼화장 : 핑크계열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뺨 주변을 넓게 그라데이션하여 창백한 피부톤을 보완하여 준다.
- 4) 입술 화장 : 레드계열의 립라이너를 이용하여 선명하게 그린 후 강하고 화려한 레드계열의 립스틱을 바른다.

(12) 페미닌(Feminin)

페미닌은 여성성의 추구를 의미하며, 여성만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 연약함,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다. 특히 사랑과 미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아프로디테가 여성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피부화장 : 메이크업 베이스는 화이트나 바이올렛 계열을 이용하여 밝게 피부톤을 보정하여 주고 소량의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어 피부를 투명하게 표현해준다. 파우더는 핑크나 투명파우더를 이용한다.
- 2) 눈 화장 : 최대한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크림타입의 컬러섀도우를 얇게 발라주고 엘로, 그린, 오렌지 계열 등의 따듯한 이미지의 섀도우 컬러를 이용하여 발라준 후 눈 앞머리는 텁 브러쉬를 이용하여 화이트 펄 파우더를 소량 발라주어 여성스러워 보이도록 한다. 아이라이너는 브라운계열의 펜슬

타입으로 속눈썹 사이를 심어주듯 그려주며 마스카라는 투명마스카라를 이용한다.

3) 볼 화장 : 핑크와 오렌지컬러를 믹싱하여 볼 뼈를 중심으로 둥글게 그라데이션 해 준다.

4) 입술 화장 : 입술라인은 컨실러를 이용하여 라인을 지워주어 입술라인을 흐리게 하고 레드 턴트를 이용하여 입술중앙만 살짝 덧발라준다.

(13) 엘레강스(Elegance)

엘레강스는 우아하고 고급스런 성숙한 여성적 이미지이다.

1) 피부 화장 : 컨실러를 이용하여 주름이나 잡티를 커버해주며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발라주고 투명파우더로 마무리한다.

2) 눈 화장 : 눈썹은 그레이와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믹싱하여 눈썹형태로 그려주며 연한 핑크섀도우를 발라주고 2차로 와인계열과 브라운계열을 믹싱하여 그라데이션하여 준다. 아이라이너는 검정색으로 길고 얇게 그려주며 풍부한 컬의 마스카라를 이용하여 우아한 느낌을 더하여 준다.

3) 볼 화장 : 피치계열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광대뼈 아래에서 윗입술 방향으로 둥글게 터치하여 준다.

4) 입술 화장 : 핑크계열의 립 라이너로 입술을 둥글게 그려주며 연한 핑크와 퍼플 계열의 립스틱을 섞어서 발라준다.

(14) 로맨틱(Romantic)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낭만주의(romanticism)에서 유래하였다. 가공의, 허구의, 공상적인 낭만적인이라는 뜻으로, 넓게는 로맨틱한 환상에 충만한 예술경향을 총칭하고 귀엽고 사랑스런 소녀적 이미지이다.

1) 피부 화장 :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표현하는데 주력하며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눈 밑 그늘과 입술 주름은 컨실러를 이용하여 커버하고 밝은 톤의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톡톡 두드리듯이 펴 발라주어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며 투명한 파우더를 소량 바른다.

2) 눈 화장 : 눈썹은 라이트 브라운계열의 밝은 색으로 빗어주듯 가볍게 붓으로 터치하며 파스텔계열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눈매를 표현한다.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하여 눈썹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발라주거나 컬이 풍부한 긴 속눈썹을 이용하여 사랑스럽게 표현한다. 아이라인은 브라운이나 퍼플 계열을 이용하여 눈매를 깊어보이게 한다.

3) 볼 화장 : 볼터치는 크림 타입을 이용하여 파우더를 하기 전에 톡톡 두드리듯이 볼 뼈를 중심으로 둥글고 넓게 펴 발라준다.

4) 입술 화장 : 핑크나 오렌지계열 립스틱을 발라주고 입술아래를 립글로스로 발라주어 사랑스럽게 표현한다.

(15) 환타스틱(Fantastic)

판타스틱은 환상의, 공상의, 상상의 라는 의미한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를 상상 속에서라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꿈과 같이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상상속의 세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 1) 피부 화장 : 피부톤은 크림타입의 화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원래의 피부톤보다 두 톤 정도 밝게 표현하여 주고 화이트 파우더를 이용한다.
- 2) 눈 화장 : 눈썹은 그려주지 않고 아이섀도우를 눈썹까지 펴바르되, 크림타입의 아이섀도우를 펴 바르고 글리터를 이용하여 화려함을 더해준다. 점막은 검정펜슬로 메꾸고 언더에는 화이트 펄을 이용하여 밝게 처리하여 준다. 아이라이너는 길게 올려 빼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인조속눈썹을 활용하여 환타스틱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 3) 볼 화장 : 진한 핑크 볼터치를 이용하여 사선으로 터치하여 주고 얼굴 라인을 따라 음영을 주듯 여러번 터치하여 준다.
- 4) 입술 화장 : 메탈릭한 느낌의 실버 립스틱을 바른 후 투명 글로스를 이용해 덧바른다.

2. 시대적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190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민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거의 완성한 서양은 산업화 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해 갔고, 전기는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줌과 동시에 자동차, 비행기, 활동사진 등을 실용화하게 만들었다.

음악계에서는 스트라빈스키, 드뷔시, 쉘베르크 등의 근대파의 음악과 탱고가 나타났고, 이사도라 던컨은 현대 발레를 선봉,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은 동양적 이미지의 선풍을 가져왔다.

아르누보는 자연에 영감의 원천을 두고 자연의 근본구조 및 원초적인 힘, 동물이나 식물 등을 관찰하는 자연주의적 태도로 임했으며, 생물형상, 식물형상의 곡선을 통해 유동적 형태로 표현했다.

B. 화장형태

각 계급간의 신분의 벽이 무너지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로인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어 화장은 대중화되었다. 1901년 화장품 제조산업이 발전하면서 마사지 크림 및 샴푸, 매니큐어 등이 대량생산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부용크림과 가루분 등이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여성들은 투명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선망했으며 치크칼라, 립 포마드, 화이트닝 스킨, 눈썹을 검게하는 화장품을 일반 가정의 부엌에

서 만들어 쓰기도 했다. 이 시대 여성들은 분홍색이나 붉은색 등의 강한 컬러로 입술을 강조하고, 황색 아이섀도우를 사용했다. 눈썹은 연필로 짙게 그렸고, 헤나로 머리를 염색하였으며, 아이같이 순결한 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노센트 룩(innocent look)이 유행했다.

1890~1910년 사이 콜리어스 잡지에서 여성해방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응을 캐리커처로 그린 ‘깁슨걸(Gibson girl)’은 화려하고 지적인 젊은 여성을 자신감있게 표현하여 주목받았으며, 프랑스인 폴 푸아레(Paul Poiret)는 동양적인 스타일의 의상과 색채로 오리엔탈붐을 일으켰다.

C. 대표적인 물(1900년대)

- 리나 까발리에리 : 군제와 자유라는 대립되는 요소의 조화로운 화장술
- 이사도라 던컨, 마타하리

(2) 191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전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1918년까지 계속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0월 레닌이 혁명에 성공하여 소비에트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유럽에 공산주의가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윌슨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연합국에 참가하여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였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여 아시아 각국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어 넣었다. 이 시대의 ‘미래주의’는 문학, 시, 건축, 디자인, 사진, 음악, 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아방가르드 운동’이었다.

B. 화장형태

이 시대의 여성들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소녀의 모습, 현신적인 성모마리아의 모습, 이국적인 요부의 모습을 지향했다. 또한 눈썹을 쳐진 모양으로 검게 그렸으며, 속눈썹을 위로 말아올리고, 오리엔탈 봄의 영향을 받았다. 눈썹을 검게 칠하는 새로운 기법은 터키,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의 의상과 함께 유행했다.

또한 피부관리를 받고 머리손질과 메이크업 등의 역할을 하는 뷰티클리닉 개념의 샵이 등장했다. 많은 여성들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원했고, 주름을 위한 파라핀주사는 흔하게 사용되었다.

1915년에는 립스틱과 아이펜슬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파우더의 색상도 흰색, 핑크색, 보라색, 갈색, 오렌지색 등으로 다양해졌다. 마사지크림이 생산된 후 화장품 제조산업이 크게 발달했다.

C. 대표적인 물(1910년대)

- 1909년 디아길레프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 ; 세헤라자드의 영향받아 동양적취향의 의상, 인테리어, 화장 등에 영향을 끼치고, 화장품의 판매가 늘었다.
- 테다바라, 폴라 네그리, 릴리안기시, 비침, 글로리아 스완슨, 메리 픽 퍼드

(3) 192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1920년대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와 과학분야에 발전이 거듭되었다.

1922년에는 라디오가 가정에 보급되었고, 린드버그는 뉴욕, 파리간의 무착륙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업적을 남겼다. 1921년 미국에서 최초의 '미스 아메리카'가 선발되었으며, 1923년 존 로버트 파워스는 최초의 패션모델 대회를 창립하여 이때부터 모델은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대중들은 빠른 리듬의 재즈(jazz)와 탱고(tango)에 열광하여, 재즈와 광란의 시대라 불리기도 하였다.

B. 화장형태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자유연애 사상 등 활동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화장의 색조나 스타일도 진하고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1923년에는 속눈썹을 말아올리는 컬래쉬가 발명되었고, 유행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은 눈썹을 뽑아 아치모양으로 만들고 눈은 콜로 진하게 칠했다. 소년과 같이 짧게 자른 단발머리와 뱀프룩, 베이비룩 등이 유행했으며 선명하게 반짝이는 붉은색으로 입술을 진하게 강조했다. 립스틱사용이 대중화되며 또렷한 입술을 선명하게 강조하며 작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콜드크림, 비누, 향수, 휴대용 파우더를 애용했으며, 오일, 크림, 로션 등이 개발, 투브타입의 립스틱과 입술화장이 각광받기도 했다. 1929년 '썬탱 룩'의 유행으로 미국에서는 인스턴트 선팬제를 발매하기도 했다.

- 뱀프 룩(vamp look) : 두꺼운 화장, 입술은 크게, 헝클어진 머리형, 창녀나 요부의 섹시스타일 느낌(테다 바라)
- 베이비 룩 :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작고 도톰한 앵두같은 입술, 얇은 아이섀도우, 정교한 인조속눈썹 등을 표현한 청순한 이미지로 헐리웃에서 만들어짐

C. 대표적인물(1920년대)

- 클라라 보우 :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곱슬머리, 헤어밴드, 검게 화장한 계슴츠레한 눈, 빨간 앵두입술
- 글로리아 스완슨: 초승달처럼 굽은 눈썹, 깨끗하고 윤곽이 뚜렷한 입술, 완벽한 눈화장

(4) 193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대규모의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시작되어 실업과 인플레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속에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미국 작가인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3년 뒤 영화화되어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B. 화장형태

과거보다 더 진하고 성숙한 메이크업을 연출하였고, 조화와 균형의 '개성미'를 표현하였다.

완벽한 피부표현을 위해 화운데이션을 바르고, 윤곽선을 선명하게 표현했으며,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를 선호하기도 했다. 레드계열의 볼연지와 립스틱을 사용, 족집게를 이용하여 눈썹을 손질하고, 눈썹은 아이브로우펜슬을 이용해 아치형으로 가늘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리를 모방하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며, '샤넬'은 썬탠의 유행 및 검게 칠한 눈, 선명하게 그린 입술, 동양풍의 아이섀도우, 산호색 네일컬러 등을 유행시켰다.

C. 대표적인물(1930년대)

- 비비안리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그레타 가르보 : 푸들어간 눈, 가는 아치형 눈썹, 튀어나온 광대뼈
- 진 할로우 : 금발미녀, 가는 곡선의 눈썹, 큐피트 인형 입술의 모양

(5) 194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의 문화는 거의 정지 상태였고, 히틀러의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세계 전쟁이었다.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를 유도했으며, 19세기 말 이래 여권의 신장은 꾸준하게 계속되었다.

B. 화장형태

제2차 세계대전 중노동에 투입되었던 여성들은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다.

여성들은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음영을 표현했다. 또한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아이섀도우를 펴바르고, 립스틱을 이용해 입술의 뚜렷한 윤곽선을 표현하기도 했다.

방수효과가 큰 팬케이크가 등장했으며, 가벼운 터치의 연한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고상한 미를 표현했다. 또한 관능적인 모습과 섹시하면서도 생동감있는 형태의 화장이 선호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상황 중 낙하산을 만들기 위해 스타킹의 원료인 나일론과 실크가 대량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스타킹 구입이 어려워졌고, 여성들은 아이브로우 펜슬로 다리 뒤쪽에 솔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 '핀업걸' : 벽에 핀으로 꽂아 장식하는 사진으로 잡지의 광고사진모델이나 배우의 사진을 오려 붙임

C. 대표적인물(1940년대)

- 베르니카 레이크, 리타 헤이워스, 베티 그레이블, 로렌바콜
- 리타 헤이워드 : 1940년대 관능적이고 생동감 있는 여성미

(6) 195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전쟁이후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물자가 풍부해 졌으며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가 도래했다.

1952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장군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고,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런던에서 거행되었다.

신용카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TV를 소유하게 되어 광고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축음기, 레코드, 트랜지스터 라디오, 소프트 드링크 등이 대중들의 인기를 샀다.

B. 화장형태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패션과 메이크업이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됨에 따라 성숙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여성들은 밝은 피부색과 진한 입술 등 패션컬렉션의 화장법으로 아이펜슬로 눈꼬리를 치켜올려 눈썹과 눈만을 강조했다. 검은색의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유행은 입체적이고 인위적인 화장법으로 두껍고 또렷하게 여성적인 곡선을 강조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들은 사슴같은 눈매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선호했다. 흐리거나 얇은 분홍색으로 입술을 풍만하고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으며, 케익형 콤팩트 파우더가 유행했다. 화장품 시장에는 아이섀도우, 아이라인용 펜슬 등 음영을 내는 것들이 넘쳐났고, 아이섀도우와 지갑, 장갑, 모자 등과 잘 매치되게 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 로마의 휴일(1953) : 오드리 햅번의 플레이드 스커트, 솟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하얀 피부, 밝은 입술, 두껍고 둥근 눈썹과 두껍게 치켜그린 아이라인, 핑크색 볼터치 등으로 여성미와 발랄함을 강조했다.
- 엘리자베스 테일러 : 검은 머리와 긴 눈, 새빨간 입술과 진한눈썹, 나일그린색의 아이섀도우를 유행시켰으며 아랫입술을 두껍게 칠하는 이집트안룩을 선보였다.
- 마를린 먼로 : 풍만한 신체와 특이한 걸음걸이, 불안정한 목소리, 밝은 금발로 운기있는 붉은 색으로 강조된 빨간 입술이 인상적. 인조속눈썹과 마스카라로 눈매를 강조하고 눈썹은 두껍고 각지게 그렸다.

C. 대표적인물(1950년대)

- 오드리헵번

- 엘리자베스 테일러
- 브리지드 바르도
- 마를린 먼로

(7) 196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봄’을 이루며 태어난 세대가 청소년 계층으로 등장하여 전체 인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기이다. 젊은 계층들은 생동감 넘치는 격변의 60년대를 탄생시키고, 미국 내에서는 흑인의 권리 를 되찾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흑인 해방 운동과 연결되었다. 마틴 루터 킹, 휴이 튜턴, 말콤엑스 등의 흑인 세력의 부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의원이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젊은 계층의 우상이 되었고, 재클린 케네디여사는 여성 해방운동과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 내에서는 청년세대의 반전 운동으로 신좌파와 히피를 탄생시켰다.

1960년대에 등장한 비틀즈, 롤링 스톤즈는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60년대 중반 이후 3C(Color TV, Car, Cooler)시대가 도래했다.

B. 화장형태

베이비 봄의 젊은 세대들은 소비력이 큰 주요한 구매세력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대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많은 제품을 개발되어 다양한 트렌드를 제시했다.

아방가르드의 색채가 화장품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디자이너 마리 퀸트가 틴에이저를 위해 저렴한 비용의 ‘리틀 걸 룩’이라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한편 마리퀸트는 아기피부처럼 완벽하게 보이도록 하는 메이크업을 주장하며 다양한 아이섀도우컬러, 눈 위와 눈아래의 어두운 라이너, 몇겹의 마스카라, 인조속눈썹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소년, 소녀를 구분하기 어려운 유니섹스 스타일, 아프로 헤어스타일, 히피풍의 헤어 등이 유행했다.

또한 짧고 깨끗한 외모의 모델 ‘트위기’가 블랙미니드레스를 입고 시대의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녀는 어두운 색으로 강하게 강조한 눈, 속눈썹에까지 메이크업하여 눈을 커다랗게 만들고 짧은 헤어스타일에 핑크빛 입술 등 메이크업과 패션 등에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다.

C. 대표적인 물(1960년대)

- 트위기 : 짧고 깨끗한 외모로 짧은 헤어스타일, 핑크빛 입술, 창백한 입술, 강한 눈화장
- 소피아로렌, 브리지도 바르도

(8) 197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세계는 높은 인플레이션, 실직률, 산업환경에 대해 커져가는 불만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1973년 석유파동과 개정적자는 세계를 동요했고, 범죄, 마약, 낙태, 동성연애, 음란예술 등 부도덕한 행위가 성행하였다. 또한 '펑크'라는 과격하고 저속한 양식이 나타났다. '펑크'란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 소녀, 풋내기' 등 의 의미이다.

B. 화장형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은 초자연적인 묵상, 자연식품의 선호 등 피부를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화장품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결점이 없는 피부빛의 '내추럴룩'이 유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부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스킨 컬러 아이섀도우, 컬러가 없는 립글로스, 매니큐어 등이 시대를 풍미했다.

1979년대 후반에는 블랙, 그레이, 스모키섀상의 콜 아이라이너로 강하게 강조한 메이크업이 선보였고, 1970년 패션지 '보그'는 컬러 케이크(color quake) 화장법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크리스챤 디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눈 주위에 빨강, 파랑의 색 반점을 붙이는 것으로 93가지의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펑크스타일의 '펑크족'은 귀와 코에 링과 바늘을 달고, 문신을 하고, 밝게 염색한 체로키 헤어커트, 젤을 바른 뿔모양의 헤어 등을 선보였으며, 손톱, 입술, 눈 주위에 넓게 검은색을 칠했다.

C. 대표적인물(1970년대)

- 제인퐁다
- 브룩쉴즈, 파라포셋

(9) 1980년대

A. 문화사적 배경

1980년대는 번영의 시기였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수상에 의해 서방세계는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1984년 L.A올림픽에 동구권 국가가 불참하기도 했던 동서 냉전의 분위기는 비로소 1987년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개방정책으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1981년 7월 다이애나는 영국의 왕세자 찰스와 결혼을 하였고, 1982년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E.T'로 SF영화 시대의 막을 열었다.

B. 화장형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이 주를 이루었고 여권이 신장된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반직과 전문직에서도 남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여성들의 화장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는 두껍고 진한 눈썹, 진한색의 입술컬러에 매트 피니시효과를 강조한 투명한 피부화장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아이섀도우, 블러셔, 화운데이션 등이 경계없이 보여지도록 블렌딩하여 사용했고, 외출시 자외선크림을 사용했다. 한편 성형수술, 가슴확대 수술, 지방흡입술 등의 성형기술도 발달했으며, 셀룰로즈를 이용해서 마스카라의 수명을 늘리고 풍성해 보이게 하는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C. 대표적인물(1980년대)

- 마돈나, 다이애나스펜스 왕세자비, 이자벨 아자니

(10) 1990년대

A. 문화적형태

1991년 걸프전쟁은 한달 만에 미군 및 다국적국의 승리로 끝났고 아프리카에서는 민족 분규가 그치지 않았으며, 미국의 L.A에서는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에 크게 공헌한 인물은 클린턴의 동반자였던 힐러리 여사였다.

NASA에서는 탐사선 패스파인더를 발사해 화성탐사에 나섰으며, 유전자 조작으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한편 엘리뇨, 라니뇨 등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며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많이 선보였다.

B. 화장형태

1990년대는 그 전까지의 여러가지 스타일을 재현하는 복고풍과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감각이 등장했다. 90년대 초의 화장은 모든 과거의 복고적인 스타일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92년에는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그리고 환경보호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색감과 질감을 나타내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선호되었다.

이러한 스타일로서는 겹쳐입는 레이어드 스타일과 방랑자 모스의 그런지 스타일, 1960년대 말의 히피의 복고풍이라 할 수 있는 네오 히피 스타일 등이 있다. 이러한 내츄럴한 패션 트렌드에 맞춰 화장의 색조도 엷어지고 가벼워졌으며, 피부도 투명하게 표현하고 눈썹과 입술은 아주 흐리게 그리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에는 다시 두껍고 화려한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경향은 스스로 즐기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다양한 인종의 개성을 그들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패션회사인 베네통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읽어 광고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보존의 문제는 피부관리차원의 화장품의 생산을 더욱 촉진시키고 세분화시켜 1990년대에는 Keratin(케라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혼합한 더 우수한 제품들이 나왔다. 한편 1990년대는 흑인의 피부를 탈색시켜 백인처럼 만들 정도로 성형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C. 대표적인들(1990년대)

- 마이클 잭슨 : 피부색 성형수술
- 니콜 키드먼
- 로시 드 팔마 : 못생긴 아름다움과 신경쇠약 직전의 역할로 유명해 짐

II. 헤어

1. 형용사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모던

- 진보적 직업여성의 심플한 이미지로 짧은 머리나 중간의 머리기장에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
- 직선과 기하학적 곡선

(2) 댄디

- 짧은 롤 스트레이트
- 깔끔하게 빗어 올린 업스타일

(3) 매니쉬

- 미니멀 셰기 컷으로 보이쉬한 이미지
- 꾸민듯한 이미지와 화려한 장식 배제

(4) 밀리터리

- 딱딱하고 남성적 스타일, 직선적, 기능적, 활동적
- 깨끗하게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

(5) 스포티브

- 솟 컷트나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
- 장식 배제

(6) 내추럴

- 청순한 느낌의 긴 생머리로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
- 약간의 웨이브를 주어 자연스럽게 묶음

(7) 에클로지

- 자연소재, 고유문화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스타일
- 그런지 룩의 헤어스타일과 유사한 스타일로 연출

(8) 보헤미안

- 층이 없는 생머리 : 무게감 있는 스타일, 자유분방한 보헤미안들의 감성이 드러난 스타일로서 모발을 손질 하지 않은 듯한 곱슬머리 경우 그대로 풀어헤친 듯한 스타일
- 묶은 헤어스타일 : 손으로 쓸어 올려 뒤로 낮게 묶어주어 잔머리없이 옆머리는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고 고정한 스타일로 단정하면서도 도도한 스타일

(9) 클래식

- 레이어드가 거의 없는 옆가르마한 단발머리에 웨이브로 변화를 주어 안정적 · 보수적인 스타일로 연출
- 굵은 웨이브를 하거나 끝머리를 둥글게 안말음한 스타일
- 깔끔하게 빗어 넘겨 목 뒤 선에서 하나로 묶는 스타일
- 웨이브가 들어가지 않고 볼륨감만 준 심플하고 정돈감있게 중간 길이의 보브 스타일

(10) 빈티지

- 히피를 연상시키는 뱅 스타일과 약간 변형된 보브 커트

(11) 에스닉

- 머리 전체를 뒤로 묶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
- 땋거나 땋은 머리를 다시 올림머리로 고정시키는 스타일
- 웨이브에 특성이 강하고 가르마가 없어 야성적이고 다이나믹한 스타일
- 흑인의 유전적인 곱슬머리의 특이성을 살린 헤어스타일
- 수공예로 만든 헤어밴드를 귀 뒤로 늘어뜨려 집시풍의 느낌을 더욱 가미

(12) 페미닌

- 여 : 짧은 컷트 / 남 : 웨이브의 긴 머리, 보브 스타일

(13) 엘레강스

- 우아하고 고상하며 품위있는 이미지와 굵은 웨이브와 리지가 단정한 스타일
- 부드러운 웨이브의 가볍게 묶은 스타일
- 여성스러운 액세서리를 이용해 우아한 올림머리로 기품있는 이미지

(14) 로맨틱

- 풍성한 웨이브와 볼륨있는 롱 웨이브
- 소녀풍의 브레이드 스타일
- 러플, 프릴, 레이스 장식, 코사지, 꽃무늬 등의 디테일로 이미지를 표현

(15) 판타스틱

- 일상적인 스타일이 아닌 독특한 해어디자인이나 색상으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
- 예술작품으로 승화

2. 시대적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1900년대

아르누보의 유동적인 곡선이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주어 소프트 풍파두르 스타일(soft pompadour style)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해어디자이너 마셀(Marcel)은 마셀웨이브(Marcel wave)라는 파도모양으로 웨이브를 만들었고 퍼머넌트 웨이브의 시초가 되었다.

(2) 1910년대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여전히 긴머리를 선호하였지만 그 이전보다 덜 과장되게 부풀려졌으며 뒤로 말아서 부드럽게 웨이브 진 스타일을 즐겼다.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어 헤어스타일은 단순하고 손질하기 쉬운 합리적인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191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보브 스타일로 뒷머리는 짧고 직선적인 뭉툭한 커트(blunt cut)를 하고, 앞머리는 일직선상으로 짧게 내리는 것을 말한다.

(3) 1920년대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단순함을 강조한 헤어스타일인 싱글(shingle : 남성들의 전통적 머리형태와 같이 뒷머리를 짧게 잘라주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는 남성처럼 아주 짧고 층이 지도록 자른 헤어스타일로 미국에서는 보이시 밥(boyish bob), 영국에서는 이튼 크롭(eton crop)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중·후반기에는 크로쉐(cloche:눈썹과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깊은 관으로 된 모자)가 유행하였다.

(4)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여성들이 가정에 있게 되면서 보이쉬 스타일이 사라지고 성숙한 여성상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머리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여성적이고 우아한 로맨틱한 스타일의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style)가 유행하였다. 그레타 카르보(greta carbo)의 헤어스타일인 페이지 보이 보브(page boy bob)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진 할로우(jean harlow)의 흐린 금발인 백금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5) 1940년대

전쟁 후에는 고전미를 강조한 복고풍이 다시 유행하였고, 여성스런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어깨 길이의 머리를 위로 벗어 올려 묶는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머리길이도 조금 짧아진 스타일(semi short)이 유행하였다. 머리를 내릴 때는 페이지 보이 보브스타일을 하였고, 올릴 때는 풍파두르 스타일로 1900년대와의 차이는 머리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픽시컷(pixie cut)가 유행하였고, 디오르의 뉴룩은 헤어스타일도 되도록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머리 꼭대기에 있는 쪽진 머리 안으로 부드럽게 벗어 넘기고, 한쪽으로 벗어 말아 올렸다.

(6) 1950년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 보여준 스타일로 이탈리안 보이라는 짧은 헤어컷은 ‘헵번 스타일’로 불렸으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짧은 헤어스타일이 조금 길어지면서 마를린 먼로의 베블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는 머리카락 3인치 정도의 길이를 큰 롤로 감아서 만든 둥글고 솜털 같은 모양의 스타일이다.

10대와 20대 초반의 소녀들은 늘어진 포니테일(pony tail : 긴 머리를 뒤로 모아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음)스타일에 리본을 묶었다. 또한 ‘브리짓드 바르도(brigitte bardot)’의 긴 머리카락을 고의로 흐트러트린 단정하지 못한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7) 1960년대

초기에는 비틀즈의 머쉬룸 헤어스타일이 인기 있었으나 많은 여성들이 선호한 헤어스타일은 앞머리 볼륨을 죽이고 뒷머리 모양을 과장되게 부풀린 재키 케네디(jackie kennedy)의 비히브(beehive : 긴 머리가 백코밍되어 넘겨진 것)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한 헤어디자이너인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기하학적 커트로 유명해졌고, 트위기(twiggy)의 짧은 머리가 유행하였다. 히피 스타일(hippie style)은 헤어스타일에 어떤 일정한 틀을 주던 전시대와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풀어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흑인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아프로 스타일(afro style)과 콘로우(cornrow)가 유행하였다.

(8) 1970년대

70년대는 미디움이나 롱 레이어의 전성기로서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호하여 윗머리의 부피감이 없는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퍼머 웨이브나 길게 늘어뜨리는 머리가 유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비달사순의 영향으로 커트 봄이 절정을 이루었으며 대체로 자연스럽고 간결한 스타일이 유행했다. 또한 평크족의 등장은 파격적인 평크 헤어스타일을 등장시켰다.

- 머쉬룸 스타일 : 버섯모양의 헤어스타일로 모발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옆이 넓게 되며 모발 끝이 안쪽을 향해서 모아진 실루엣
- 콘케이브 커트 :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머리모양
- 블로우 드라이의 유형

(9) 1980년대

다이애나비의 커트스타일이 영국 찰스 황태자의 결혼으로 유행하였다. 198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헤어스타일은 평크스타일로 머리를 특이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여러 색으로 염색을 하여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비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커트나 중성적인 스타일의 아주 짧은 커트가 등장했다.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남녀구분은 점점 없어져갔다.

- 평크스타일, 모혹스타일, 스파이키 스타일, 폴큐빈 스타일, 스키해드

(10) 1990년대

1990년대는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자유스러운 헤어커트와 블리치(bleach)나 매쉬(mash) 등 부분 염색뿐 아니라 헤어 컬러링이 보편화 되었다.

- 에코로지 룩(ecology look : 자연을 보호하자는 운동) : 밝은 색의 길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유행
- 그런지 룩(grunge look :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누더기를 걸치며 거리의 부랑자적인 특성) : 직선적 뱅(bang)을 짧게 자르고 뒷머리는 쇼트 커트 한 머리 형태
- 제 3국에 대한 관심 증진 : 아프리카 풍의 힙합 레게(hip-hop reggae) 스타일 : 아프로 브레이드 형식, 타이트한 웨이브 머리 유행
- 미니멀리즘(minimalism) : 단순한 형태가 유행하여 과잉 장식을 배제하고 짧은 머리, 긴머리의 경우 생머리나 굽은 웨이브
-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트렌드 : 어시메트릭 렘스(asymmetrical lenth : 길이를 다르게 표현), 디스콘넥션(disconnection : 디자인에 따라 머리끝을 연결시키지 않는 스타일)

(11) 2000년대

2000년대는 1990년 이후 다양한 스타일, 이국적 문화의 유입,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이 이루어져 패션과 미용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복고풍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류인 트렌드가 아닌 하위문화 개념에서의 전파, 특정한 소수층에서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탈장르화 되고 있다. 개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에 중점을 두었다.

III. 패션

1. 형용사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모던(Modern)

- 1) 패션 : 커리어 우먼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모던 이미지는 깔끔하고 절제된 도시적 스타일링으로 지적이고 차갑고 세련된 이미지이다. 현대인의 단순한 라이프스타일과 연계성이 있으며 미래적인 것과 하이테크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 2) 컬러: 주로 모노톤이거나 톤 다운된 회색기의 블랙과 화이트가 중심이고 기하학적인 직선 패턴과 콘트라스트가 강한 것이 많다.

(2) 댄디(Dandy)

- 1) 패션 : 대표적인 댄디룩은 턱시도 룩으로 흔히 연미복 스타일을 가리키며 흑백의 두 가지 색만을 사용하여 턱시도의 디테일을 도입한 양상블이다. 격식을 중요시하는 멋쟁이 신사의 예복스타일에 가까운 패션으로, 클래식하고 중후한 멋이 있다.
- 2) 컬러: 주로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과 무채색이 적합하고 어두운 톤과 그레이어쉬톤으로 지적이고 견고한 느낌을 준다.

(3) 매니ッシュ(Mannish)

- 1) 패션 : 단순한 디자인과 패턴으로 깔끔한 이미지와, 지적이고 클래식하며 중후한 멋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 남성복 전형인 테일러드 칼라의 정장 수트나 코트를 강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스타일로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여 지적인 세련미를 나타낸다.
- 2) 컬러: 회색, 올리브 그린, 감색 등의 탁한 색조와 그 외 베이지, 카키, 검정 등을 조화시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밀리터리(Military)

- 1) 패션 :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영향으로 생겨난 밀리터리 룩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단순한 실루엣과 색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기본 테일러드 수트에 스커트의 길이

가 짧아졌고, 허리에 벨트를 매어 착용했으며 바지를 즐겨 입게 되었다. 견장, 금속 단추, 군화, 군번 목걸이 등 디테일한 장식은 밀리터리 이미지 표현에 효과적이다.

2) 컬러 : 청색, 청회색과 회색 그리고 검은색 등의 색상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색, 주황 등을 사용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5) 스포티브(Sportive)

1) 패션 : 스포티브 스타일은 패션에 기능성을 가미한 디자인에서부터 건강과 레저를 위해 신체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흡습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와 활동하기 편하도록 고안된 패턴과 디테일로 신체의 움직임에 쾌적한 모든 요소를 가미하였다.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패턴, 로고나 숫자를 이용한 그래픽 패턴 등이 활용된다.

2) 컬러 : 선명한 색조와 원색의 컬러에서 무채색까지 모든 색을 포함하며 대비가 강한 컬러의 사용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6) 내츄럴(Natural)

1) 패션 : 내츄럴 이미지는 인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과 가공하지 않은 소재의 사용 등으로 그 이미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컬러 : 자연을 닮은 평화롭고 안락한 난색계열의 고명도의 컬러와 전원적인 내츄럴 그린계열로 컨트라스트가 약한 배색이 포인트가 된다.

(7) 에콜로지 (Ecology)

1) 패션 :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 지향적 패션의 총칭이며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은 실루엣과 문양, 색채 등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천연 섬유와 천연염료로 염색된 소재를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텍스처이나 주름과 편안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표현 할 수 있다.

잔잔한 꽃무늬와 나무 줄기, 잎사귀로 디테일을 줌으로써 자연의 이미지를 더할 수 있다.

2) 컬러: 동 · 식물의 자연 색상 그대로 내츄럴 컬러와 조화시켜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로 연출한다.

(8) 보헤미안 (Bohemian)

1) 패션 : 보헤미안의 루즈하고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집시 스타일의 독특한 의상을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소프트한 레이어링으로 고급스럽게 발전, 하위문화의 패션을 개성적인 스타일 이미지로 정착 되었다.

플라워 패턴, 수공예적인 패치워크, 자수, 염색, 크로쉐 니트 등의 기법을 포인트로한 여성스러운 로맨틱 분위기로 자유로운 감성의 보헤미안 스타일도로 표현할 수 있다.

2) 컬러 : 빛 바랜 듯한 내츄럴한 컬러와 노랑, 주황 등 빈티지의 오래된 듯한 컬러와 믹스 매치된 다색의 컬러로 배색한다.

(9) 클래식 (Classic)

1) 패션 : 유행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전통적인 느낌의 이미지로 베이직 하면서 성숙하고 안정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며 강하지 않고 언제 봐도 친근함이 있다.

테일러드 수트, 사벨 수트, 카디건, 트렌치코트 등이 그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클래식은 서민적이라기 보다 귀족적인 면모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2) 컬러 : 브라운, 네이비, 카멜, 카키, 겨자색, 다크그린, 다크와인 등 깊고 중후한 이미지의 컬러가 많이 쓰인다.

(10) 빈티지 (Vintage)

1) 패션 : 풍요로운 물질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인 빈곤함을 중고 위류나 소품, 액세서리로 표현한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텔실로 짠 니트나, 패치워크, 자수 등의 소재를 사용하며, 찢어진 청바지나 레이스로 장식을 더할 수 있다.

2) 컬러 : 염색이 벗겨진 옷과 가죽 표면이 바랜 듯한 컬러로 낡은 복고풍의 빈티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11) 에스닉 (Ethnic)

1) 패션 : 다양한 전통 문화 양식을 지역 고유의 아름다움을 패션에 도입하여 현대적인 패션스타일로 창출한 것이다. 현대와 전통을 믹스해 놓은 듯한 매력으로 신비감을 더한다. 고유한 염색방법과 직물, 자수와 민속 풍 문양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프린트로 민족적인 고유성과 가치를 범지구적인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패션으로 표현하여 오늘날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 컬러 : 그 지역과 민족적인 느낌을 더 할 수 있는 강렬하고 원색적인 선명한 톤을 사용하여 화려한 배색대비로 표현하다.

(12) 페미닌 (Feminine)

1) 패션 : 여성의 육체적 미를 잘 살린 여성성을 강조한 드레이프형의 의복을 통해 서양 여성의 복식의 기본형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왕조풍의 호화로운 페미닌룩을 거쳐 1930년대풍의 슬림 실루엣, 1950년대풍의 빈틈없이 꽉 조인 수트룩, 로맨틱한 에스닉룩과 시스루룩 등 현대 감각을 더한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여성스러운 레이스, 프릴, 리본 등 트리밍이 많이 활용되며 부드럽고 투명한 쉬폰 소재와 매끄럽고 반짝이는 느낌의 실크 등을 많이 사용한다.

2) 컬러 : 여성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보리, 연핑크, 하늘색 등의 파스텔 색조가 많이 쓰인다.

(13) 엘레강스 (Elegance)

1) 패션 : 디자인은 주로 곡선을 사용하며 과장된 어깨를 피하고 허리선을 강조하거나 가슴을 돋보이게 하여 여성성을 한껏 높일 수 있다. 장식이 배제된 심플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성숙미와 고급스러움을 표현 할 수 있다.

2) 컬러 : 강렬하지 않은 중간 톤이나 낮은 톤의 그레이쉬 계열로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다.

(14) 로맨틱 (Romantic)

1) 패션 :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이 더 강조되는 이미지로 프릴이나 리본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과 레이스나 직물이나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 꽃무늬와 같은 여성적인 패션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X자형 실루엣은 허리를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이고 소매와 스커트를 최대한 부풀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 스타일의 옷들로 감성적 · 여성적 · 낭만적이며 우아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 컬러 :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나 핑크계열의 화려한 컬러로 여성성을 강조 할 수 있다.

(15) 판타스틱 (Fantastic)

1) 패션 : 지상낙원의 비현실적인 감각과 창의성으로 색상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스타일 보다는 주로 색상의 배합이 중요시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의상보다는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느낌과 같은 세계를 표현하는 의상으로 일상적으로 입는 의상이 아닌 쇼를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컬러: 환상적인 색조와 색채로 황홀한 느낌을 유도하는 대담한 색상과 판타스틱한 컬러로 배색한다.

2. 시대적 이미지에 따른 분류

(1) 1910년대

패션 : 1910년대의 장식 예술 및 조형 예술의 지배적인 예술 양식을 지칭하는 아르누보(Art nouveau) 운동이 국제적으로 개화되면서 ‘새로운 예술’로서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동적의 곡선이 실루엣이나 장식 문양

이 많이 응용되어 모래시계형 실루엣과 S실루엣의 여성적인 몸이나 곡선을 볼 수 있다. 꽃과 넝쿨 등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인 곡선과 자연에서 유기적인 곡선으로 무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2) 1920년대

패션 : 아르데코(Art deco)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현대 장식 미술 · 산업미술국제전’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켜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였다.

여성스러운 보다는 단순함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여성복의 본격적인 현대화가 이루어져 치마 길이는 짧아지면서 실질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하였으며 경제성과 단순성이 의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집트 문양의 기하학적 패턴이 주로 사용되었다.

(3) 1930년대

패션 : 1929년에 닥친 경제공황으로 짧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점차 어두운 색상의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다. 1930년대를 ‘초라한 30년대’라 하였듯 20년대와 같은 짙음과 열정은 사라지고 소녀적인 모습에서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여성적인 신체의 곡선을 부활시켜 허리는 제 위치로 돌아오고 가슴을 내놓게 되었으며 스커트의 길이는 다시 길어져 전체적으로 홀쭉하고 긴 스타일(slim&long style)이 유행하였다.

(4) 1940년대

1) 패션 :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라 바지 차림이나 작업복 차림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영향으로 군복의 영향을 받아 각진 어깨를 가진 X자형과 남성적인 슈트가 부각되었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한 심플한 스타일로 여성들의 평상복은 점차 짧아졌다.

2) 뉴룩 (New Look) : ‘최신 유행의 스타일’ 이란 의미로, 1947년 봄에 크리스찬 디오르가 발표한 새로운 룩으로 치켜 올린 어깨에 짧은 스커트가 유행할 때 그는 여성적인 치진 어깨와 도련복이 넓은 롱 스커트를 발표하여 여성미가 넘치는 귀족적 패션스타일로 주목을 끌었다.

(5) 1950년대

패션 : 산업의 발달은 도시의 인구를 증가 시켰으며, 이로써 풍요의 시대가 찾아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은 기성복의 대량 생산과 진이나 티셔츠 같은 캐주얼의 발달을 주도 하였으며 전쟁 후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여성복은 ‘뉴 룩’ 이후 수많은 알파벳 실루엣이 발표되면서 라인의 시대라 했고, 가는 허리를 강조한 색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마릴린 먼로의 섹시한 원피스와 타이트 팬츠, 그레이스 켈리의 청순하고 우아한 스타일,

오드리 햅번 스타일, 말린 브랜도, 제임스 딘이, 엘비스 프레슬리 등 오토바이 가죽 재킷, 청바지, 자동차 운전, 주크박스 등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패션을 주도 하였다.

(6) 1960년대

패션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 가치관으로 자유, 짚음의 표출, 발랄함을 요구한 반항적 히피(hippie)운동이 확산되어 히피 패션을 유행시켰다. 부르주아의 가치와 서구의 전통적 신념에 대항하여 중산층의 지식인과 예술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문화 운동이다. 기성사회와 관습을 부정하고 인간성 회복을 표현하고자 자유롭게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며 개성 있고 독창적인 자기만의 코디네이션으로 개인주의 철학을 표현하였다. 패션 유행 스타일이 더 이상 특권계급의 전유물이 아님을 나타내 주었고, 길거리, 저소득층 패션으로 흔히 스트리트 패션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었다.

(7) 1970년대

패션 :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대량소비를 두고하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스타일로 저렴한 가격의 옷이 선호되며,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보여 졌으며, 이는 루즈한 미국풍의 빅룩, 캐주얼, 진즈 룩등이 유행하였으며 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 짚은 세대의 기성사회에 대한 반발을 극단적인 패션으로 히피에서 변화하여 자신의 무력함과 국가에 대한 불만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하위문화 현상의 펑크(punk)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8) 1980년대

패션 : 예술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고정된 사고가 해체되고 와해되어 해체주의와 설치미술의 활발한 움직임이 패션에도 보여 졌다. 세기말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생태계의 파괴, 인간성 상실, 사회질서의 혼돈, 지구 종말론 등으로 인해 최근 물질주의에 대한 갈등이 팽배하여 모든 가치기준의 혼돈과 모호함이 드러나는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을 그 특징으로 한 애콜로지 룩과 고정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동서양의 절충, 남녀의 혼합으로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 과거를 회상하는 레트로등 모든 것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위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9) 1990년대

패션 : 미래에 대한 전망, 과거에 대한 회고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시기였다. 80년대에서 이어져 온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특별한 어떠한 스타일보다 인터넷의 보급과 세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패션은 세계화, 다

양화, 이중화 경향을 띠었다. 과거의 복고풍 디자인의 리사이클 패션을 취급하는 빈티지 중고 상점과, 환경 친화적 상품이 각광 받았다. 첨단기술의 신소재, 디테일이나 트리밍 등의 결합으로 에스닉, 그런지, 네오히피, 네오클래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 양상을 보였다.

또한 퓨처리즘 스타일, 테크노 풍, 사이버, 아방가르드, 미니멀리즘, 시스루룩 등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이미지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힙합(hippop) 패션도 90년대의 획기적인 탄생이었다.

(10) 2000년대

패션 : 21세기에 접어들자 패션은 과거에 유행했던 다양한 감각들을 현대 시각에 맞춰 재해석하여 나타내었다. 과거의 모든 각각의 것들을 믹스하여 개성 있는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에콜로지와 집시풍의 히피 스타일, 신비롭고 이국적인 매력의 에스닉 스타일, 패턴이나 아이템, 소재를 자유롭게 입는 보헤미안 스타일, 패션의 고급화 경향으로 내추럴 소재를 많이 사용한 클래식 스타일도 보여 졌다. 또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은 건강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써 조깅 룩, 휘트니스 룩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타이즈와 레깅스, 스키니진은 계속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와 인터넷 발전의 영향으로 연예인을 따라하는 스타일이 패션계를 리드하며 대중매체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4. 컬러 코디네이션에 의한 스타일링

1. 색의 개념

색과 빛

색이란 빛이 물체를 비추었을 때 생겨나는 빛의 파장, 물체의 표면 특성과 물질이 지닌 특성에 따라 흡수, 반사, 투과, 굴절, 회절, 분광 등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물리적인 지각현상을 말한다. 이 때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광선의 영역 내에서 지각이 되는데 이 광선의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2. 색의 3속성

색의 3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를 말한다. 색상을 가지는 색을 유채색이라고 하고, 색을 갖지 않은 색을 무채색이라 하며, 무채색에는 흰색, 회색, 검정이 있다.

(1) 색상 (Hue)

색상 (Hue)은 일반적으로 색 이름을 말하며 빨강, 주황, 노랑 같은 색의 기미이며, 색상환은 이것을 차례로 배치해서 색상을 연속적으로 원으로 배열해서 만든 것이다. 색상(H)은 빨강(R), 노랑(Y), 녹색(G), 파랑(B), 보라(P)의 5색을 주요색으로 같은 간격으로 놓고, 그 사이에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색(PB), 자주(RP)를 기본 10색으로 배치한다.

(2) 명도 (Value)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다. 명도(V)축은 0~10까지 11단계로 나타내며, 0은 절대 검정, 10은 절대 흰색을 뜻한다. 물체색들은 완전한 검정과 흰색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N1.5~N9.5까지의 값들이 사용되고 있다.

명도는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이라고도 하며, 무채색이라는 Neutral의 앞 문자를 따서 N1, N2, N3…으로 표기한다. 또한, 명도는 무채색과 유채색에 모두 있으며 어두운 색일수록 명도가 낮으며, 밝은 색일수록 명도가 높다.

(3) 채도 (Chroma)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 색의 강약을 나타내는 성질, 색의 맑고 탁한 정도나 선명도를 나타내며, 어떤 유채색의 순수한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순도라고도 한다. 다른 색상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색이 가장 채도가 높으며 다른 색상이 섞이면 채도는 낮아진다.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은 빨강과 노랑이다.

3. 톤 (Tone)의 개념과 이미지

(1) 톤의 개념

톤은 색의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으로 색조라고도 한다. 색의 이미지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색은 원색의 혼합인 순색에 무채색이 섞이는 정도에 따라 만들어진다. 색상이 달라도 톤이 같으면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 같은 색상이라도 톤의 차이를 크게 하면 명쾌한 느낌을 준다.

(2) 톤의 이미지

톤(Tone)		의미
1	비비드톤(Vivid tone)	선명한 색조
2	스트롱 톤(Strong tone)	강한 색조
3	브라이트 톤(Bright tone)	밝은 색조
4	페일 톤(Pale tone)	연한 색조
5	베리 페일 톤 (Very pale tone)	아주 연한 색조
6	라이트 그레이시 톤(Light grayish tone)	밝은 회색조
7	라이트 톤(Light tone)	흐린 색조
8	그레이시 톤(Grayish tone)	회색조
9	덜 톤(Dull tone)	칙칙한 색조
10	딥 톤(Deep tone)	진한 색조
11	다크 톤(Dark tone)	어두운 색조

4. 색의 체계

표색계는 색상 · 명도 · 채도의 3속성을 체계화 한 것이다.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둘레에 유채색의 3속성을 3차원 공간에 체계화하여 이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색입체라고 한다.

(1) 먼셀 표색계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연구가인 먼셀(Albert H. Munsell, 1858~1919)이 1905년에 표색계를 창안하였다. 먼셀은 모든 색채를 색상 · 명도 · 채도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색상(Hue)에는 빨강(R), 노랑(Y), 녹색(G), 파랑(B), 보라(P)의 5색상을 주요 색상으로 하고 각각 이들의 중간색인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색(PB), 자주(RP)를 포함한 10가지 색상환으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명도는(Value) 검정색(B)을 0, 흰색(W)을 10으로 하고 11단계로 분할한다.

채도(Chroma)는 무채색을 0으로 하고 순색까지의 사이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채도단계를 만든다.

먼셀 기호의 표기법은 HV/C 순서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5R 4/14를 읽을 때는 '5R 4의14', 의미는 색상(H) 5R, 명도(V) 4, 채도(C)14 라는 색이다.

(2) 오스트발트 표색계

빌헬름 오스트발트(Wilhelm Fridrich Ostwald, 1853~1932)는 독일의 화학자로서 대학에서 색채학 강의를 하였으며 표색채계의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1917년에 물체 표면색의 표본을 체계화한 혼색계의 컬러 시스템으로 창안하였다.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남색(Blue)의 4색을 원색으로 하고 이들 사이에 혼합하여 주황, 연두, 청록, 자주를 두어 8색상을 설정한 다음 각 색상을 다시 1Y, 2Y, 3Y 등으로 3등분하여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24색의 색상환을 만든다.

모든 빛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이상적인 흰색(W), 모든 빛을 완전하게 흡수하는 이상적인 검정(B), 특정 파장 영역의 빛만을 완전하게 반사하고 나머지 파장 영역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순색(O)을 가정하고 이들 3색 혼합에 의해 물체색을 체계화한 것이다.

오스트발트의 기호 표기법은 $W(\text{흰색량})+B(\text{검정량})+O(\text{순색량})=100\%$ 이다. 예를 들어 8LC는 색상은 8이고, 흰색량은 8.9% 검정량은 44%가 되며 $100-(8.9+44)=47.1\%$ 가 순색의 양이 된다. 이것은 약간 회색을 띤 빨강이다.

5. 색상에 의한 스타일링

(1) 동일 색상 스타일링

한 가지 색상을 기초로 한 배색으로 동일한 색상의 농담 배색으로 조화된 단색상의 배합이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부드러운 조화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명도나 채도 차이를 이용해 변화를 주면 더욱 스타일링에 효과적이다.

(2) 유사 색상 스타일링

색상환에서 30도 범위내로 인접한 색상간의 배색의 조화이며 인접색은 어떻게 배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난색계열의 배색은 따뜻하고 여성스러우며 정열적이고 섹시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한 색계열은 따뜻한 색에 비해 주목성이 덜하고 뒤로 후퇴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시원함과 청량감을 유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개성이 약해 보이거나 다소 지루할 수 있다.

(3) 보색 색상 스타일링

색상환에서 180도 정반대에 위치한 두 가지 색의 배색이다. 대비 색상 스타일링은 색상환에서 가장 멀리 떨어

져 있는 색끼리의 조화로 반대적인 시각 특성 때문에 서로를 돋보이게 하여 강렬하고 자극적인 인상을 주며 활동적인 느낌과 개성적인 이미지의 표현에 많이 쓰인다.

(4) 다색 배색 스타일링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배색함으로써 스타일의 화려함과 약동감을 줄 수 있다. 레이어드 스타일링이나 믹스 앤 매치의 색상에 의한 스타일링의 변화일 경우 다색 배색을 통한 스타일링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선명한 색상의 조합은 역동적이며 쉽고 부드러운 색상의 조합은 온화하고 침착하다. 색상, 명도, 채도의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하면 조화롭고 다색 배색에 톤을 통일하여 톤인톤의 방법으로 배색하면 조화롭다.

6. 색조에 의한 스타일링

(1) 동일색조에 의한 스타일링

동일 색상에 의한 배색 방법으로서 명도와 채도를 다르게 하여 통일감을 나타낸다.

(2) 유사색조에 의한 스타일링

색상차가 유사한 배색 방법이며, 명도차 · 채도차를 조절하여 조화로운 배색을 나타낸다.

(3) 반대색조에 의한 스타일링

서로 대비가 되는 색상차를 이용한 큰 배색 방법으로써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7. 배색에 의한 스타일링

(1) 분리 배색 (Separation) 배색

배색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대비가 너무 강한 경우 색과 색 사이에 ‘분리’, ‘구분’의 의미로서 색상 간의 조화가 애매하거나 두 색이 지나치게 강렬할 때 두 색 사이에 무채색이나 중간색을 첨가하여 배색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거나 혹은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강렬한 원색끼리의 배색일 때, 흰색, 검정 등의 무채색을 이용하여 벨트나 악세사리 등으로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다.

(2) 강조배색 (Accent) 배색

강조 배색은 스타일링의 어느 부분에 액센트가 되는 색을 조합하는 것이다. 주로 강한 원색의 포인트를 주어 주목성을 높이고 평범하고 단조로운 배색이나 강한 명시성을 요구하는 스포츠웨어에 많이 쓰인다. 대비색의 아이템 또는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변화있게 표현 할 수 있다.

(3) 톤온톤 (tone on tone) 배색

동일 혹은 유사한 색상의 조합에서 톤의 차이가 큰 배색을 말한다. 주로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대조톤을 배색하면 명확하면서도 통일감을 얻을 수 있다.

(4) 톤인톤 (tone in tone) 배색

동일 또는 유사한 톤의 배색을 말한다. 선택에 따라 강하고 약한, 가볍고 무거운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동일한 톤의 배색은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5) 까마이외 (Camaieu) 배색

색상 · 명도 · 채도와 톤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배색으로 거의 동일한 색상에 미세한 명도차를 주는 배색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다.

(6) 포카마이외 (Faux Camaieu) 배색

'포' (Faux)는 '모조품 또는 애매한' 이라는 뜻이 있다. 색상과 톤의 차이가 약간 있는 까마이외 배색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구별해서 사용한다.

(7) 도미넌트 (dominant) 배색

배색 전체의 주조색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색을 말한다. 공통된 요소로 통일감과 조화를 만들어 융합된 느낌을 표출할 때 중요한 기본원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8) 그라데이션 (gradation) 배색

색을 점점 단계적, 규칙적으로 변화시켜서 얻어지는 배색 효과이다. 3색 이상의 다색 배색에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낸 배색을 말한다. 특징은 색 수가 많을수록 리듬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유도되어 아름다움과 통일감이 얻어지게 된다. 색상 · 명도 · 채도의 변화를 살려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낸다.

8. 색채의 의미와 연상

(1) 빨강(Red) : 열정, 활력, 위험, 외향적, 흥분, 적극적, 체력, 생명력

빨강은 강렬하고 선동적이며 열정적인 분명한 자기 색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빨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검정색이고 흰색과 배치하면 깨끗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준다. 빨강과 반대색상과의 조화는 명쾌함을 주며 빨강색을 강조해 준다. 어두운 딥 컬러와 매치하면 엘레강스한 분위기, 내추럴한 컬러와의 조화는 부드러우며 파스텔 톤과의 조화는 빨강을 악센트 컬러로 사용할 수 있다.

(2) 핑크(Pink) : 낭만, 설레임, 청춘, 애정, 부드러움, 섬세함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사랑스런 느낌으로 검정색과 매치하면 성숙한 이미지, 회색과 매치하면 고급스럽고 품위 있어 보인다. 파스텔 톤 컬러와는 비슷해서 매치하기가 쉽고 내추럴컬러와의 매치는 부드러우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3) 마젠타(Magenta) : 창조적, 심리적, 정서적, 애정, 연정, 몽상, 환상, 신비

창조적 특이함과 예술가의 색이라고 불리운다. 도도함과 우아한 이미지로 연출 할 수 있으며, 검정색, 흰색과 매치하면 모던하고 샤프한 인상, 반대색인 녹색 계열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다.

(4) 브라운(Brown) : 외로움, 쓸쓸함, 대지, 부드러움, 아늑함, 우아함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의 컬러로 붉은 기나 노랑기가 강하지 않은 색을 배합하는 것이 좋다. 갈색과 흰색은 잘 매치되지만, 회색과의 매치는 탁해 보이기 쉬우니 주의한다. 선명한 톤과의 매치도 자연스러우며 파스텔 컬러에서는 연한 색이 잘 어울린다. 어두운 딥 컬러와 내추럴 컬러는 이상적인 좋은 코디를 할 수 있다.

(5) 베이지(Beige) : 온화함, 유연함, 편안함, 융통성

온화하고 무난하며 세련된 느낌의 이미지 컬러이다. 모노톤과 기본적으로 가장 무난한 코디가 된다. 겨울에 활용하면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고 선명한 비비드 톤 컬러와의 매치에서는 너무 강렬한 색보다는 조금 톤이 어두운 색상과 잘 어울린다.

(6) 오렌지(Orange) : 원기, 적극, 회열, 활력, 만족, 유쾌, 건강, 따뜻함, 약동, 풍부함

침샘을 자극하는 에너지와 따뜻하고 즐거운 이미지로 모던한 연출을 원한다면 검정색을 매치하고 반대 색상인 보라색, 녹색 계열과 매치하면 개성있어 보인다. 또한 어두운 딥 컬러와 내추럴 컬러와 비교적 자연스럽게 매치된다.

(7) 노랑(Yellow) : 희망, 광명, 명랑, 유쾌, 대담한, 빛남, 부드러움, 따뜻함, 다정함, 감미로움

희망적이고 유쾌한 밝고 가벼운 이미지이다. 검정, 흰색, 그레이와 매치하면 모던하고 경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반면 배색할 컬러의 색상과 색조 선택에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색상인 파랑 계열과 매치하면 시원한 여름 배색, 빨강 계열과 매치하면 팝(Pop)한 느낌을 줄 수 있다.

(8) 연두색(YellowGreen) : 친애, 젊음, 신선함, 자연, 초여름, 유아, 새싹, 희망

신선하고 산뜻한 젊음의 이미지로 여리고 맑은 자연의 내추럴 컬러와 매치하면 에스닉한 배색이 된다. 또한 반대색상인 보라 계열과 매치하면 개성있는 연출이 가능해 진다.

(9) 카키(OliveGreen) : 냉정, 평정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느낌, 자연의 컬러로서 내추럴 톤과 매치할 때는 검은색으로 악센트를 주어 효과적으로 배색할 수 있다. 난색 계열과 매치하면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한색 계열과 매치하면 샤프함을 강조할 수 있다. 선명한 톤이나 어두운 딥 톤 컬러와 매치하면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

(10) 파랑(Blue) : 차가움, 심원, 명상, 냉정, 영원, 성실, 바다, 하늘과 물의 상징, 깨끗함, 신선함, 젊음, 희망, 청결

파랑은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로 이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흰색과의 매치가 가장 선호되며 비교적 어떤 색과도 매치하기 쉬운 색상으로 특히 원색의 노랑과 빨강색이 잘 어울린다. 어두운 딥 컬러나 내추럴 컬러와 매치하게 되면 깊이 있고 앤례강스한 인상을 준다.

(11) 네이비(Navy) : 숭고, 냉철, 심원, 무한, 영원, 신비, 신뢰

숭고하고 냉철하며 차갑고 거리감을 주는 컬러이다. 무겁고 깊이있는 고상한 중년의 이미지로 신뢰감과 세련된 느낌을 준다. 흰색과의 매치가 가장 이상적이며, 검정색과의 배색은 주의한다. 선명한 톤, 파스텔 톤, 어두운 톤 컬러와는 반대색을 중심으로 배색한다. 내추럴 톤 컬러 중에서는 베이지 색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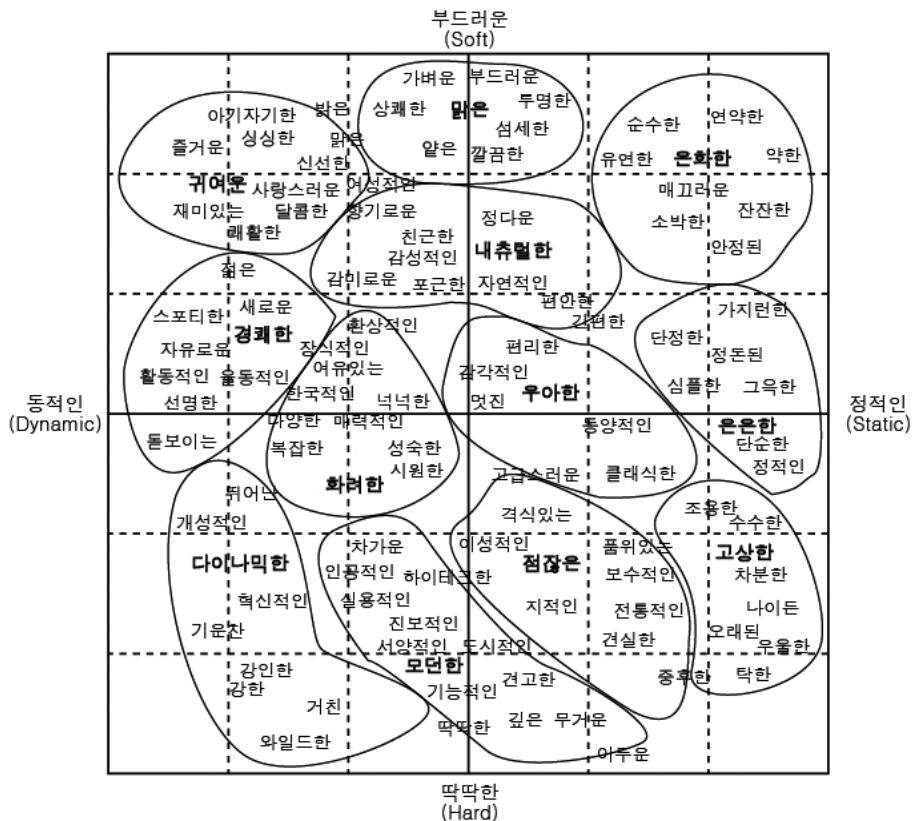
(12) 화이트, 회색, 검정 (White, Gray, Black)

화이트와 블랙은 모든 색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기본색이다. 화이트의 경우 너무 흐린 파스텔 컬러와는 어울리지가 않으며, 블랙은 다크 컬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레이의 경우 파스텔 컬러와는 잘 어울리지만 비비드 컬러와는 매치하기가 힘들고 내추럴 컬러와도 명도에 주의해서 난색 계열로 매치시키는 것이 무난하다.

	색상	의미
1	빨강(Red)	열정, 활력, 위험, 외향적, 흥분, 적극적, 체력, 생명력
2	핑크(Pink)	낭만, 설레임, 청춘, 애정, 부드러움, 섬세함
3	마젠탄(Magenta)	창조적, 심리적, 정서적, 애정, 연정, 몽상, 환상, 신비
4	브라운(Brown)	외로움, 쓸쓸함, 대지, 부드러움, 아늑함, 우아함
5	베이지(Beige)	온화함, 유연함, 편안함, 융통성
6	오렌지(Orange)	원기, 적극, 희열, 활력, 만족, 유쾌, 약동, 풍부함
7	노랑(Yellow)	희망, 광명, 명랑, 유쾌, 대담한, 빛남, 부드러움, 다정함,
8	연두색(YellowGreen)	친애, 젊음, 신선함, 자연, 초여름, 유아, 새싹, 희망
9	카키(OliveGreen)	냉정, 평정
10	파랑(Blue)	차가움, 심원, 명상, 냉정, 영원, 성실, 바다, 하늘과 물의 상징, 깨끗함, 신선함, 젊음, 희망, 청결

11	네이비(Navy)	숭고, 냉철, 심원, 무한, 영원, 신비, 신뢰
12	하양(White)	순수, 청결, 소박, 순결, 정직, 독립, 빛의 상징, 희망, 숭고함, 상쾌
13	회색(Gray)	겸손, 우울, 중성, 젊잖음, 우아함, 수수함, 보수적, 신뢰감
14	검정(Black)	세련됨, 죽음, 공포, 권위, 허무, 절망, 침묵, 불안, 밤, 영원, 신비

9. 색채 이미지 스케일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5. 소품에 따른 스타일링

1. 액세서리의 정의

액세서리란 사전적 의미로 복장을 갖추기 위한 「부속품」, 「보조품」, 장신구를 의미하며 기능적인 면에 치중하여 실용성을 추구한 모자, 백, 구두, 벨트, 양말이나 스타킹, 장갑, 스카프, 단추 등과 의복의 분위기나 아름다움을 살려주기 위해 장식성을 추구한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펜던트 등을 가리킨다.

액세서리는 의상과 함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액세서리 하나로 의복을 보다 아름답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하고 각각의 의복에 대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하여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토클 패션, 또는 코디네이트 패션의 이미지를 조정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중요한 미적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액세서리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 속에 혼합된 총체적인 외양 및 개성의 강조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복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액세서리는 잘 선택하면 옷의 분위기를 근사하게 살려주지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요란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양면적인 패션 소품이다.

액세서리의 기능을 살펴보면, 의상의 베이직한 모습이나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모습의 의상으로 보이게 하며 캐주얼웨어에서 비즈니스웨어로, 낮에서 밤으로, 여름에서 겨울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액세서리는 시선을 유도하므로, 주된 부분은 강조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에서 시선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클래식한 의상을 최신유행의 의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으며, 값싼 의상을 고급스럽게 보이게도 하지만, 고급스러운 의상을 평가절하 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현대 패션은 자기중심주의로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과 다르게 개성적으로 옷을 입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대 패션이 요구하는 다양화, 개성화 시대에 있어서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액센트와 변화를 주고 패션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출하고 결정하는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또한 중요하다.

2. 액세서리의 종류

액세서리의 종류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실용적인 액세서리와 장식적인 액세서리로 나눌 수 있다. 실용적인 액세서리에는 모자, 벨트, 장갑, 스카프, 우산과 양산 등이 있으며, 장식적인 액세서리에는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반지 등이 있다.

의상에 코디할 때에는 금속류나 비즈류의 정장용과 플라스틱, 노끈, 가죽, 돌 등의 소재로 만든 내추럴한 캐주얼용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액세서리의 역사

(1) 고대

자연물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조개껍질, 돌, 씨앗 등과 같은 천연재료들을 이용하였고, 사냥도구로도 사용하던 동물의 이빨이나 뼈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신발은 주로 맨발이나 샌들, 가죽 등으로 만든 모카신(moccasin) 등을 신었다.

(2) 중세

중세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금, 은, 진주, 상아,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의 액세서리가 유행하였고, 신발은 샌들형이나 발끝이 뾰족한 스타일의 고딕스타일 양식을 닮은 화려한 장식구두가 유행하였다. 모자는 사각형 머리쓰개나 터번모양의 카울이 유행하였고 중세 말은 천으로 된 딱딱한 원추형 모자위에 베일을 덮은 애네이 유행하였고 남성들에게는 후드(hood)가 유행하기도 했다.

(3) 근세

의상에 러프(ruff)와 슬래쉬(slash)를 많이 응용하여 화려한 복장에 액세서리 기능을 더하였으며 특히 장갑, 손수건 등에 레이스장식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신발은 앞이 둥글고 넓은 덕빌(duck bill)슈즈, 나막신 형태의 패튼(patten), 굽이 높은 쇼핀(chopin)등이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17세기 바로크시대에는 루프, 레이스, 자수, 태슬(tassel)을 이용하였고 남녀 모두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착용했고 여성들사이에는 부채와 패치(beauty spot)가 유행하였다. 18세기 로코코시대에는 화려한 장신구가 유행하였으며 장식이 화려한 구두가 크게 유행하였다.

(4) 근대

여성들은 긴 장갑과 작은 핸드백을 착용하였으며 남작한 신발이 대유행하여 낮은 슬리퍼형 펌프스가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장갑, 베일, 부채, 토시, 브로치, 긴 귀걸이, 목걸이, 벨트나 버클 등을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굽이 없는 신발을 신었다. 특이한 것은 장식적인 스타킹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구두는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의 구두가 대거 등장하기도 하였다.

4. 실용적인 액세서리

(1) 모자(Hat)

모자는 머리에 덮어쓰는 것의 총칭으로 실용적인 역할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액세서리의 기능과 더불어 추위와 더위, 자연으로부터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자를 쓰는 본래 목적은 더위, 추위 및 얼굴 보호 등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식

성이 강해져 왔으며, 토텔 코디네이션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모자의 비중이 커져 패션쇼 등의 발표, 디스플레이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자를 쓸 때에는 얼굴형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머리모양, 체형, 의복과의 전체적인 조화와 계절, 장소,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모자는 그 자체로 충분하게 눈에 띠는 소품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단정하게 연출한다. 화장은 평소보다 연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복잡한 체인의 귀걸이나 목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기품있는 모습을 연출한다. 헤어스타일 역시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모자의 부분 형태는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인 크라운(Crown : 머리를 덮는 부분)과 챙인 브림(Brim : 차양같이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모자를 햇(Hat)이라 하고, 머리에 꼭 맞게 쓰는 모자를 캡(Cap), 의복에 달려있는 모자를 후드(Hood),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를 헬멧(Helmet)이라 한다.

모자의 소재로는 짚(straw), 펠트(felt), 마모(horsehair), 실크(silk), 벨벳(velvet), 깃털(feathers), 아크릴, 금속 등이 있으며 손뜨개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 클로시 햇(Cloche Hat) : 크라운이 높아 머리에 꼭 맞는 모자형태로 브림 양쪽이 앞과 뒤보다 넓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로 눈썹까지 놀려쓰는 모자이다.

- 보넷(Bonnet) : 보넷은 힌두어(banat)에서 나온 것이며 머리에 쓰는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크라운은 부드럽고 이마가 나온 부분에서 양쪽 귀를 덮으며, 뒤에 있는 머리 전체를 싸는 것처럼 넓고 얼굴과 이마의 부분을 내놓는 모자이다.

- 브르통(Breton) : 프랑스의 브르타뉴(bretagne)지방의 농민 모자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므로 명명되었다. 비교적 큰 모자로 브림이 접혀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 세일러 캡(Sailor Cap) : 해군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크라운이 평평하고 납작하며 브림이 단단하고 직선적으로 올라간 모자이다.

- 티롤리안 햇(Tyrolean Hat) : 오스트리아 티롤(Tirol)지방의 산악모로 뒷부분의 브림이 살짝 올라가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펠트 모자로 꼭대기가 작게 되어 있고 챙은 좁혀져 앞부분이 내려가고 뒷부분이 올라간 모양으로 리본대신 장식 끈이 있으며 옆에 깃털이나 술을 붙인다. 스포티한 의복에도 잘 어울리는 모자이다.

- 베레(Beret) : 둥글고 납작하며 챙이 없는 소프트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챙이 없는 모자이다. 응용범위가 넓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많이 애용하는 모자로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모자이다.

- 터번(Turban) : 터번은 더위를 막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머리장식 형태로 긴 옷감을 다양한 형태로 머리에 두르는 방법에 따라 신분, 종교, 부족 등을 나타내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스포츠용, 주간용, 야외용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 선 캡(Sun Cap) : 여름에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의 모자로 앞의 챙이 머리띠와 연결 되어 있는 형태이고 선바이저(Sun Visor)라고도 한다.

- 라이딩 캡(Riding Cap) : 승마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이다.

- 아이비 캡(Ivy Cap) : 한 장의 펠트나 올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앞은 둥글고 뒤는 고리로 여미는 형태의 모자로, 헌팅캡의 일종이고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모자로 사용되었다.

- 실크햇(SilK Hat) : 남성 예복용 모자로 크라운 부분이 굴뚝처럼 높은 모자이다.
- 스키 캡(Ski Cap) :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탈 때 쓰는 모자로 앞 챙과 위 덮개가 있는 둥근 모자이다.
- 베이스볼 캡(Baseball Cap) : 야구선수가 쓰는 머리에 꼭 맞고 앞에 챙이 있는 모자로 캐주얼 모자로 애용되고 있다.
- 반다나(Bandana) : 원래는 손수건 형태의 작은 스카프를 두건으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두건의 총칭이 되었다.
- 프로필 햇(Profile Hat): 프로필은 “옆얼굴, 외형, 윤곽”의 뜻인데 챙이 넓은 모자를 비스듬히 쓰면 얼굴의 한쪽이 그늘이 쳐서 아름다운 옆얼굴의 윤곽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 토크(Toque) : 아주 작은 모양으로 브림이 없고 머리에 꼭 맞도록 쓰는 모자이다. 천으로 만든 비교적 우아한 모자이며 장식으로는 깃털이나 베일이 주로 사용된다. 모피나 깃털 등의 조화로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웨딩용이나 칵테일 드레스용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자이다.

(2) 가방(Bag)

가방은 소지품을 휴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가죽, 천, 비닐, 인조피혁 등이 재료로 쓰이며 손에 들고 다니는 것,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패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며 단순한 기능성과 장식성을 넘어 밑에 바퀴를 달아 끌고 다니는 것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 구조, 크기가 다양하다. 또한 가방은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아이템으로 목적과 장소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백을 들고 다니는 유형에 따라 손잡이 없이 손에 들고 다니는 클러치백(Clutch Bag), 손에 들거나 팔에 걸치는 핸드백(Hand Bag), 어깨에 메는 솔더백(Shoulder Bag), 등 뒤에 메는 러스크백(Rucksack), 끌고 다니는 캐리백(Carry Bag) 등이 있다. 액세서리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백은 소재, 색상의 변형과 섬세한 디테일을 사용하여 백 자체만이 아니고 의복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핸드백을 선택할 때는 용도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체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방의 크기, 형태, 재료는 유행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신의 키에 따른 비례로 맞추는 것이 좋다. 키가 큰 사람이 너무 작은 백을 들거나 키가 작은 사람이 너무 큰 백을 들면 안 어울린다. 여름철에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 짙은 검정 핸드백을 드는 것 만큼 패션에 무신경해 보이는 것은 없다. 따라서 다양한 옷과 무난하게 코디하기 위해서는 검정, 브라운, 흰색의 3가지는 기본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면 좋다. 착용하고 있는 의상 또는 소품 중 어느 한 아이템과 무늬, 색상, 소재 등을 통일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코트의 줄무늬와 같은 무늬의 가방, 스커트의 체크무늬가 이용된 체크무늬의 가방, 모피 솔의 소재와 동일한 소재의 가방, 벨트와 같은 소재의 에나멜 가방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가방은 구두, 스타킹 등의 다른 소품처럼 신체에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으므로 옷의 색상과 반드시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잘 어울리기만 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색상으로 대비해도 좋다.

- 핸드백(Hand Bag) : 소지품을 휴대하는 가방으로 손에 들거나 팔에 걸치도록 손잡이가 있는 백
- 솔더백(Shoulder Bag) : 어깨에 걸치도록 길이가 긴 디자인으로 된 백의 총칭으로 대부분 끈의 길이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솔더 스트랩 백(Shoulder strap Bag)이라고도 한다.

- 토트백(Tote Bag) : 여성용 대형 손가방으로 쇼핑백의 형태이다. 주로 캔버스의 소재로 만들어지며 입구가 개방형으로 되어있어 내용물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백
- 클러치백(Clutch Bag) : 여성용 소형 핸드백, 지갑형태로 손잡이나 끈이 없이 지갑처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스타일의 백으로 작고 가벼우며 직사각형의 것이 많다.
- 파우치백(Pouch Bag) : 파우치란 돈주머니, 지갑 등을 뜻하는 것으로 동전지갑처럼 쇠고리 여밈이 있는 백을 말한다. 요즈음에는 쇠고리 대신 파스너나 끈으로 장식한 것도 있다.
- 배럴백(Barrel Bag) : 통처럼 원통형으로 된 핸드백이며, 어깨에 매는 것과 손에 드는 것 등이 있다.
- 샤플백(Shannel Bag) : 프랑스 디자이너 샤플이 고안한 백으로 쿨팅한 부드러운 가죽제품에 금속체인 속에 가죽끈으로 매치된 특징적인 솔더백을 말한다.
- 챕(Sack) : 등에 맬 수 있는 배낭 형으로 캐주얼한 백
- 배너티 케이스(Vanity case) : 상자형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내부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 화장품을 구별하여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뚜껑 안에는 거울이 부착되어 있다.
- 캐비아백(Caviar Bag) : 플라스틱의 작은 구슬로 만들어진 백이다. 흰색, 빨강색, 파랑색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안팎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이브닝백(Evening Bag) : 정장차림일 때 의복에 알맞은 격조높은 백이며 직사각형의 지갑 같은 모양의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자수, 보석을 박은 것, 금, 은사를 엮은 것 등 화려한 것이 많다.
- 햇백(Hat Bag) : 모자를 담기 위한 용도의 등근 백
- 벨티드백(Belted Bag) : 벨트에 달린 작은 백으로 허리 및 엉덩이 벨트에 빼었다 붙였다 하는 백이다. 여행 할 때나 일을 할 때 적은 돈이나 작은 물건 등을 넣기에 편리하게 디자인된 백이다.

(3) 신발(Shoes)

신발은 발을 감싸고 걷는데 쓰이는 물건의 총칭으로 발의 보호와 장식을 겸해서 여러모양의 것이 만들어져 왔다. 단순히 발을 감싸는 폐쇄성 신발인 슈즈(Shoes) 형태와 발등을 노출시키는 샌들(Sandal)형태, 발목보다 위로 올라오는 부츠(Boots)형태가 있다. 가장 무난한 스타일은 앞뒤가 트이지 않은 일반적인 신발에 뒷굽이 적당하게 높은 펌프(pump)형이다. 이 신발은 어떤 스타일의 옷과도 잘 어울리며 일년 내내 신을 수 있다.

슬링 백(sling back)은 뒤축이 트인 형으로 봄, 여름에 매력적인 신발이다. 앞의 발가락 쪽이 약간 트인 신발로 세련된 비즈니스용 신발로 많이 신는다. 끈 달린 샌들은 사무실용보다는 캐주얼웨어에 더 적합한 신발로, 너무 발이 많이 보이는 것은 비즈니스 웨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신발 앞에 리본이나 옆쪽에 장식이 있는 것도 좋으나 착용할 의상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발과 가방을 꼭 조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질감이나 색상 중 한 가지는 통일시켜야 무난하다.

신발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도구로 기후, 지역에 맞는 소재와 형태, 제조 방법 등이 생활조건에 맞도록 만들어지며 신발 선택 시 착용하는 의상의 이미지와 색상, 유행과 함께 체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의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걸음걸이와 체형이 흐트러지고 건강도 위협받게 되므로 일단 신어서 편하고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의상과의 코디로 신발의 색은 의상의 색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는데, 정장용이나 캐주얼용 신발 모두 검정색, 아이보리, 브라운 계통을 기본으로 마련한다. 신발은 본래 옷 색상보다 짙은 색상을 신는 것이 기본이다. 두상이 큰 편인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칫 머리가 무거워 보이기 쉽기 때문에 신발을 짙은 색으로 신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신발과 의상을 동일한 색으로 연출하는 방법이 있다. 동일한 색상에 동일한 소재의 신발을 구하기 힘들 때는 대비적인 이미지의 신발을 선택하여 독특한 패션감각을 연출할 수 있다. 보색으로 하거나 분위기가 반대되는 신발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패션에 액센트를 주어도 좋다.

유행과 함께 자기 체형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장에는 일반적으로 5cm 이상의 하이힐을 신어야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인식된다. 평소에 신는 신발과 격식을 차린 복장을 할 때 신는 신발을 구별해서 신는 것도 요령이다.

- 스니커(Sneaker) : 신발의 윗부분은 캔버스(canvas)등의 천으로 만들어졌고 밑창이 고무이기 때문에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밑창이 고무로 되어있다. 스포티한 감각에서 신겨지는 스니커는 짧은 층 뿐만 아니라 성인총에 까지 폭넓게 애용되고 있다.
- 펌프스(Pumps) : 쉽게 신을 수 있도록 깊게 파 발등 부분을 넓게 파서 발등을 노출시킨 구두로 뒷꿈치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으며 용도나 디자인에 따라 붙여진 이름도 다양하다.
- 스트랩펌프(Strap pump) : 발등 부분에 끈이 달려 있는 모양으로 된 구두
- 앵글 스트랩(Ankle strap) : 보통 뒷꿈치 부분이 없고 벗겨지기 쉬운 구두를 발목에서 끈으로 매어 신는 구두를 말한다.
- 오픈 토 펌프스(Open-toe pumps) : 구두의 앞코가 열려 있어 그 사이로 발가락이 노출되는 펌프스 형태의 구두이다.
- 플랫폼슈즈(Platform shoes) : 굽 뿐만 아니라 밑창 전체를 높게 한 구두를 말한다.
- 앵글부츠(Ankle boots) : 발목까지 가려지는 정도의 길이를 가진 구두로 방한용이나 비올 때 신는 구두이다.
- 로퍼즈(Loafers) : 모카신의 특징을 살린 모양으로 발등쪽 가죽 위에 트임을 넣은 스트랩을 좌우에 장식한 신발이다.
- 모카신(Moccasin) :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신었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단화
- 옥스퍼드(Oxford) : 구두를 신을 때 구두끈으로 매게 되어 있는 뒷굽이 낮은 구두이다. 끈을 매는 구멍이 처음에는 양쪽을 합하여 두 개(한 쌍)였으나 요즈음에는 보통 양쪽 합해서 여섯 개(세 쌍)가 있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 라이딩 부츠(Riding boots) : 승마용 부츠
- 샌들(Sandal) : 발등 부분을 거의 드러내어 끈이나 밴드로 여미는 신발이다.
- 슬리퍼(Slipper) : 끈이나 금속 등으로 여미지 않고 그대로 발을 뛰어 신게 되어 있는 신발의 총칭이다. 주로 실내에서 신으며 일반적으로 뒷굽이 평평하고 낮다.
- 웨스턴 부츠(Western boots) : 부츠 위가 곡선으로 디자인되고 스티치 장식이 들어간 웨스턴 타입의 부츠로 일명 카우보이 부츠(Cowboy boots)이다.
- 웰링턴(Wellington) : 무릎길이의 승마용 부츠이다. 윗부분의 신는 곳은 무릎에서 관절을 따라 뒤쪽으로 커

브(Curve)되어 재단된 것이 특징이다.

- 월라비(Wallaby) : 한 장의 가죽이 발을 좌우에서 싸는 것처럼 된 모양으로 통솔로 꿰매 만든 부츠를 말한다. 길이는 발목 정도의 짧은 부츠이다.

(4) 스카프

스카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면서도 장식적 효과를 첨가하여 패션연출에 자주 이용되는 액세서리다. 의복의 일부에서 변형된 것이 많으며, 얼굴과 목선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의복의 착장 미를 더욱더 세련되게 완성시키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양한 분위기와 멋을 연출할 수 있다.

스카프의 색상은 의복이나 피부 색상에 맞추어 사용하고, 배색을 사용하여 액센트를 주기도 한다. 정해진 크기나 형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길이에 따라 맥시, 중간, 짧은 것으로 나누고 모양에 따라 삼각형, 정방형, 뱀드형으로 구분하며, 직물의 종류에 따라 얇은 것, 두꺼운 것 혹은 비치는 것, 기모가 있는 것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사용된다.

(5) 벨트(Belt)

벨트는 허리를 조여 실루엣을 정리하고 베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으로서, 벨트의 폭과 재료, 베를장식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된다. 벨트는 의복을 고정시키는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패션의 흐름에 따라 장식성이 가미되어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유행을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재료에 따라 가죽벨트, 천벨트, 비닐벨트, 메탈(Metal)벨트, 체인(Chain)벨트 등이 있고, 폭에 따라서 내로우(Narrow)벨트, 와이드(Wide)벨트, 빅(Big)벨트, 조여지는 정도나 위치에 따라 코르셋(Corset)벨트, 장식성이 강한 아우터(Outer)벨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벨트를 구입할 때는 의복의 두께, 체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을 택하며 허리보다 약 5cm 큰 것이 좋다. 벨트 폭은 체형, 허리의 굽기에 관계가 있는데 뚱뚱한 사람과 장시간 매야 하는 경우에는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좋다.

(6) 장갑(Hand Wear)

장갑은 주로 손을 보호하거나 추위를 막고 일을 할 때 사용된 것으로 16세기 경부터 여성의 액세서리로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장갑에는 대개 손가락이 각각 나누어진 것과 엄지손가락만 따로 나누어진 것이 있다. 격식을 중요시하던 생활양식에서부터 점차 캐주얼화 되어가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 골프, 테니스, 등산 등 각종 스포츠나 레저용 그리고 작업용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장갑은 근세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귀족층의 남자들에 의해 일반화되었으며, 16세기 후반에는 향기나는 장갑이 패션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채의 직물 및 편물장갑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명주실로 짠 장갑이 유행하였고, 17세기에 나타난 긴 장갑은 19세기에 이르러 그 길이가 극도에 달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는 가죽, 라이크라 등의 신축성소재와 신소재의 개발로 장갑의 착용감이 매우 좋아졌으며,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소재에 따른 분류로서 가죽, 직물, 니트 등 다양하고 스포츠용이나 운전용장갑은 송아지가죽 등으로 만들며 용도에 따라 산업용 장갑과 스포츠용 장갑, 웨딩용 장갑, 방한용 장갑 등이 있다.

5. 장식적인 액세서리

장신구란 넓은 의미로는 몸에 붙이는 모든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장식용 소품을 뜻한다. 오늘날 장신구라 하면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이며, 장식적인 액세서리에는 목걸이, 반지, 브로치, 팔찌, 귀걸이 등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액세서리와 신체의 조화를 고려해 작고 연약한 몸매를 지닌 사람은 부드럽고 연하게 세공된 것을 크고 늠름한 몸매를 지닌 사람은 무겁고 육중한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면, 작고 가는 손을 지닌 사람은 크고 강한 느낌이 나는 반지보다는 은은한 색채의 아담한 반지를 장지(세번째 손가락)에 하나만 끼도록 하고 크고 두터운 손을 지닌 사람은 연약한 느낌의 반지보다는 육중한 맛이 나는 여러 가지 반지를 손가락에 나누어 끼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긴 목걸이나 큰 브로우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것도 이처럼 건강한 체격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꾸밈새이다.

일반적으로 봄이나 가을에는 금장식을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은장식을 하는 것도 계절의 특성이나 분위기와 어울려 미적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이럴 때 장신구의 색상을 의복의 색과 같은 톤으로 하고 모양은 얼굴의 형태와 대조되는 것으로 선택하면 가장 이상적인 장신구의 차림새가 창출될 수 있다.

(1) 목걸이(Necklace)

목걸이는 목의 주위에 거는 장식품의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액세서리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것으로 비교적 형태의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모든 여성의 옷차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액세서리이다.

(2) 반지(Ring)

반지는 손가락에 끼우는 장신구로서 종교적, 의식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대부터 복식문화의 시작과 함께 장식 뿐 아니라 인장, 부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인 것도 있지만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반지는 보통 금, 은, 보석 등으로 만들어지며 오늘날에는 여자들에게 중요한 액세서리가 되어 유리나 인공석을 사용한 여러 가지 디자인의 것도 취급되고 있다. 반지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Men's Ring, Engagement Ring, Charm Ring, Wedding Ring, Signet Ring 등으로 나누며 형태에 따라서는 Band Ring, Soliter Ring, Twin Ring, Ring Brass 와 같이 구분되어 사용된다.

(3) 귀걸이(Earring)

귀걸이는 보통 귓불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고리를 끼우는 형태, 귓불에 나사 모양으로 돌리는 클립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장신구이다. 장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부적 등의 주술적 목적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방법으로서도 사용되었는데 남녀가 모두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목걸이나 팔찌 등과 함께 선사시대 이래 현대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소재나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귀걸이는 '귀고리'라고도 불리며 선사시대에서부터 꾸준히 사용되어온 장신구로 금속문화의 도입과 함께 천하석, 호박, 수정 등에서 금, 금동, 은으로 소재가 전환되어 다양한 형태의 금속제 귀고리가 유행하였다. 동양에서는 남녀 모두가 귀걸이를 달았으나,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해 서양에서는 대체로 여성의 장식물로 여겨졌다.

귓불을 양쪽에서 용수철로 집어서 달리게 하는 Clip-on-earring, 귓불에 직접 구멍을 뚫어 사용하게 한 Pierced ear Earring, 귀 전체를 감싸는 듯한 큰 형태의 Ear-muff Earring, 가는 금속으로 가는 가지를 만들어 그 끝에 보석등의 장식이 있는 Spray Earring, 귀에서 추상화 조각의 모빌처럼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주는 Mobile Earring, 베튼 이어링에 늘어뜨린 부분이 붙어 있는 형식의 Drop Earring, 나사로 되어 귓불에 꼭 붙게 하는 형식의 Button earring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4) 브로치(Broach)

브로치는 옷의 깃이나 앞가슴에 핀으로 유리, 보석, 귀금속, 쇠붙이 따위로 만들어 의복을 고정하는 장신구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피블라(Fibular)에서 시작되어 옷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며, 장식성도 첨가되어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다. 브로치는 가슴 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다리, 머리 등에 자유롭게 달아 의복에 변화와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장식 또는 여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대형의 핀(Pin), 옷감의 흡집을 줄이는 클립(Clip)형의 금속에 보석을 박은 것도 있지만 장식의 효과만 있으면 어떤 재료의 것도 모두 사용된다. 꽃장식인 코사지(Corsage)는 액세서리로서 부인복의 가슴, 어깨, 허리 등에 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낮시간에는 평범한 금이나 광택이 없는 산호, 터키석 등이 어울리고 저녁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간단한 의복에 필요한 액세서리이므로 장식이 많은 의복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고 번쩍거리는 브로치는 저녁시간에 효과적이다.

(5) 팔찌(Bracelet)

팔찌는 팔에 거는 고리 모양의 장신구로써 금, 은, 은, 백금, 구리 따위로 만든다. 팔찌의 유행은 소매의 형태와 길이에 좌우되고 의복의 실루엣에 따라 유행도 달라진다. 아름다운 팔찌는 손, 팔목, 팔까지 매혹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팔찌의 종류에는 소재 자체가 깨끗한 느낌이 들고 유행을 타지 않아 언제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으로 된 것과 의복에 어울리는 보석을 사용한 팔찌 등 종류가 다양하다. 약해 보이는 것과 강해 보이는 것을 같이 착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출법이며 팔찌 착용 시 수에는 제한이 없고 양쪽 팔에 해도 멋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다. 스포티한 의복에는 나무조각, 나무열매, 가죽, 플라스틱 등이 좋고 드레시한 의복에는 금, 은, 보석류가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6. 뷰티스타일링의 활용

1. 웨딩 스타일링의 개념과 경향

(1) 웨딩 메이크업

신성한 의식인 결혼식을 위한 메이크업으로 한 여성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일을 위해 순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웨딩 메이크업은 신부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신부로 연출해야 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미를 표출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강한 색상의 색도우, 볼터치, 립 표현이나 과한 쉐딩, 하이라이트 등은 신부 고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얼굴형, 예식장소, 시간, 나이 등을 고려해서 연출해야 하며 또한 신부의 결점을 보완한 피부 표현, 눈썹 형태, 눈 화장, 볼터치, 입술 등 신부의 안면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신부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를 줄 수 있다. 또한 웨딩 메이크업은 지속력과 결점의 보완이 중요하므로 세심한 부분까지 잘 표현해 주어야 하며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고유미와 개성미를 통하여 최고의 신부를 연출해야 한다.

(2) 웨딩 헤어스타일

1990년대 후반의 웨딩 헤어스타일이 2000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전통 업스타일이 아닌 좀 더 자연스러운 세미 업스타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사회변화, 경제적 여유로움 등으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잡지, TV 등으로 인해 각종 많은 정보와 유행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틀이나 형식에 얹매여 딱딱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고 실제 결혼 한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드레스 등의 웨딩 스타일을 선호하고 모방하기 원한다. 결혼준비의 한 부분인 웨딩 헤어스타일에서도 반영되어 모든 것에 신속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거의 업스타일보다는 자연스러운 세미 업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의 결혼식, 파티, 돌잔치 등 각종 행사용 헤어를 보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무난한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세미 업스타일을 하는 추세이다. ‘세미 업스타일’ 이란 정형화된 틀에 박힌 인위적인 업스타일이 아닌 컬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려 자연스럽게 각자의 얼굴형과 유행의 흐름에 맞게 세련되게 연출한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3) 웨딩 드레스

프랑스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라 한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은 신부가 염색(焰色 : 불꽃색)의 베일을 쓰고 그리스도교도는 백색 또는 보라색 의상을 입었는데, 18세기 이후 백색을 입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결정적인 결혼의상이 되었다. 다만 재혼의 경우는 블루·핑크 등의 짙은 색을 입는다.

디자인은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신부의 취향대로 선택하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결혼식이 교회 의식으로 거행되므로 노출을 피하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하이 네크 아니면 기본 네크로 하며 소매가 짧은 경우에는 흰 장갑을 길게 끈다. 또 장식이나 절개선에 의한 모양보다 전체적 실루엣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긴 원피스에 트레인(train)을 바닥에 끌리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소 짧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샤넬이나 미니의 것도 선보이고 있다. 그 밖의 드레스의 실루엣의 효과를 위해서는 속옷도 맞추어서 입어야 하며, 머리에는 흰색 꽃(본래는 오렌지꽃) 장식에 베일을 늘이거나 웨딩 해트(hat)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표현 기법 및 요소

(1)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과 요소

1)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

- 피부표현 : 신부의 얼굴형을 고려하여 수정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다. 혈색이 느껴지도록 화사하게 표현하고 기미, 주근깨 등을 확실하게 커버해준다.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다.
- 눈썹 : 부드러운 이미지로 얼굴형에 맞게 그려준다. 눈썹선이 각이 지거나 직선적인 느낌이거나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눈 : 신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부드럽게 조화되는 색도우 색상(베이스, 메인, 포인트)을 선택하여 여러번에 걸쳐 덧발라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레이션 한다.
- 아이라인 : 부드러운 펜슬 타입이나 아이섀도우로 속눈썹 안쪽을 꼼꼼하게 메꾸어서 눈의 깊이를 더해준 후, 광택이 없는 케익 타입이나 봇펜 타입으로 최대한 가늘고 부드럽게 눈 형태를 고려하여 그려준다. 언더라인은 펜슬이나 옅은 색의 색도우로 살짝 터치한다. 언더라인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속눈썹 : 신부의 눈에 어울리는 인조 속눈썹을 심거나 붙여준다. 먼저 아이라이시킬을 이용하여 충분히 올려주고 인조 속눈썹과 같이 마스카라를 발라준 후 열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컬을 해주면 더욱더 드라마틱한 속눈썹이 된다.
- 볼 : 볼 부분은 화사한 혈색이 도는 느낌으로 적절한 컬러를 선택하여 신부의 얼굴형을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해준다.
- 입술 :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먼저 펜슬로 윤곽을 잡아주고 같은 컬러의 립스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2) 웨딩 메이크업을 결정짓는 요소

웨딩 메이크업을 결정짓는 요소는 얼굴형, 계절, 장소, 시간, 나이, 색상으로 나뉜다.

A. 얼굴형 : 얼굴 형태는 눈, 코, 입, 이마, 볼, 턱, 얼굴형 등으로 이루어진 특징적인 형태 차이로 구분되어지며 대부분은 얼굴형태의 특징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얼굴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다.

B. 계절

- 봄 : 봄 사람의 얼굴색은 살구색의 복사 꽃 같은 느낌으로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가진 얼굴이다.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밝고 생기 있는 톤이 어울리며, 아이보리, 애프리컷, 파스텔 옐로 그린, 피치 색 등이 이에 속한다.

- 여름 : 여름 사람의 얼굴색은 희고 붉은 톤이며 푸른빛이 도는 피부를 가진 얼굴이다.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흰색과 파란 톤이 어울리며, 소프트 화이트, 라이트 블루 그레이, 파스텔 야쿠아 색 등이 이에 속한다.

- 가을 : 가을 사람의 얼굴색은 턱하고 노란 기를 띠고 잘 타서 잡티나 기미가 잘 생기고 윤기가 없는 얼굴이다. 명도와 채도 모두 낮은 턱한 톤이 어울리며, 오이스트 화이트, 월 베이즈, 마호가니색 등이 이에 속한다.

- 겨울 : 겨울 사람의 얼굴색은 붉은 기가 비치는 투명한 피부를 가진 얼굴이다. 명도는 낮고 채도는 높은 톤이 어울리며, 라이트 트루 그레이, 퓨어 화이트, 블랙 등이 이에 속한다.

C. 장소 : 결혼식 장소로는 성당이나 교회, 호텔, 정원이나 야외결혼식, 일반 웨딩홀 등이 있다.

D. 시간 : 예식 시간에 따른 신부 메이크업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눌 수 있다.

E. 나이 : 나이가 어린 신부인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컬러와 성숙한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 그 신부의 이미지에 맞게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연출하고 핑크 톤과 오렌지 톤으로 화사하게 표현한다. 나이가 많은 신부는 성숙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맞는 컬러 선택으로 어려보이도록 연출한다.

F. 색상 : 웨딩 메이크업에서 색의 3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상이며 시간, 장소, 나이, 계절 등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한다. 차가운 색은 지적이고 동적인 신부의 이미지를 주고 따뜻한 색은 단아하고 정적인 신부의 이미지를 준다.

(2) 웨딩 헤어스타일의 표현 기법과 요소

1) 웨딩 헤어스타일의 표현 기법

웨딩 헤어스타일에서 응용하고 있는 표현 기법은 꼬기(twist style), 겹치기(overlaps style), 브레이드(braids

style), 고리(loops style), 롤(rolls style), 매듭(kont style)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꼬기(twist style)** : 뱃줄처럼 감기는 효과를 주기위해 헤어를 탄탄하게 꼬아 두피 쪽으로 붙여주는 기법으로 1가닥, 2가닥, 3가닥이 서로 교차하고 회전되면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 모발가닥의 양이나 텐션 정도 등의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트위스트 위치, 머리가닥의 크기, 텐션의 양을 변화시켜 무제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크고 느슨하게 꼬여진 머리카락들은 동양적인 느낌을 주고 작고 탄탄하게 꼬인 머리카락은 아방가르드를 나타내 준다. 트위스트는 엘레강스한 신부 이미지에 적합하며 머리기장이 짧은 신부는 머리카락이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긴 머리 신부에게 적합하다. 종류로는 한 가닥 꼬기, 2~3가닥 꼬기, 다중 한 가닥 꼬기 등이 있다.

B. **겹치기(overlaps style)** : 2가닥의 머리가 십자모양으로 상반되게 교차되는 형태로 매끈한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각의 높낮이에 따라 늘어짐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가닥의 크기나 섹션의 크기는 완성된 결과의 십자형 패턴에 큰 영향을 끼쳐 완벽한 결과를 위해 각 섹션을 겹치도록 하기위해 손을 두상의 곡면에 90도로 세운다. 독특하고 개성 있어 보이는 스타일로 2가닥 위, 아래 방향 겹치기가 있다.

C. **땋기(braids style)** : 땋기는 신부의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입체적 효과를 주기위해서 패턴화된 모양으로 업스타일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백콤이나 세팅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3가닥이나 그 이상의 머리가닥을 교차 또는 엮는 기법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3가닥이고 5가닥, 7가닥, 9가닥 등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 종류에는 한 줄 땋기, 두 줄 이상 땋기가 있고 방향도 위, 아래가 있다.

D. **고리(loops style)** : 고리는 머리가닥을 조가비 모양으로 접거나 구부리거나 동그랗게 하여 곡선 모양으로 두상의 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법이다.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한 가닥으로 한 개의 고리를 만들거나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크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월통모양으로 형태를 잡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다.

E. **롤(rolls style)** : 흔히 소라머리라고도 불리는 업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머리카락 자체만으로 감싸 말아 본인 스스로 연출이 가능하다. 롤은 머리카락 자체 내에서 수직축을 따라 네이프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가며 싸여지고 감겨지고 롤의 크기나 볼륨은 머리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F. **매듭(kont style)** : 머리카락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매듭은 시선을 가운데로 이끌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을 만들어 준다. 매듭은 모양이나 두상의 크기에 의해 형태가 결정이 되며 한 가닥 매듭, 두 가닥 매듭, 대각 매듭 등이 있으며 2가닥 매듭의 시농 스타일이 있다.

3. 신부 이미지 분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추럴, 로맨틱, 모던, 엘레강스 4가지의 신부 이미지로 분류한다.

(1) 내추럴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는 느긋한, 평화로운, 편안한, 건강한, 신선한,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등의 이미지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도시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전원적이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메이크업	자연스럽고 차분한 톤의 배색 중채도 옐로우 그린, 베이지, 브라운
헤어스타일	모발 길이를 최대한 길게 활용한 스타일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의 자연스런 웨이브

(2) 모던 이미지

모던 이미지는 현대적, 지적인, 차가운, 도시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취적이고 개성적이며 선진감각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스타일로 문명화된 사회의 세련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메이크업	검정, 회색, 카키, 브라운의 소프트 스모키
헤어스타일	주로 컬이 없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

(3) 로맨틱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는 귀여운,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낭만적인, 장식적인, 감미로운 등의 이미지가 기본이 되고 완숙한 아름다움보다는 미성숙으로서 어딘지 모르게 소녀태가 나는 이미지를 일컫는 말로 매니쉬의 반대 이미지이다. 로맨틱 감각이라면 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이미지로 부드러운 감각으로 표현되는 장식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프릴이나 레이스를 한껏 사용한 19세기 프랑스 인형풍의 이미지이다.

메이크업	따뜻한 톤을 주조색으로 밝은 이미지 핑크, 베이지, 옐로우, 오렌지 계열
헤어스타일	앞가르미와 올백, 시농 위치는 탑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 강한 컬의 형태

4) 엘레강스 이미지

엘레강스 이미지는 우아한, 품위있는, 세련된, 고급스런, 부드러운, 정숙한, 다정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이미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엘레강스는 단순히 우아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만으로 인식되지 않고 전통을 고수하는 클래식한 여성스런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페미닌 이미지 스타일을 대표하기도 한다.

메이크업	차분한 톤의 주조색과 약간 어두운 톤의 보조색 배색 퍼플, 와인, 베이지 브라운 계열
헤어스타일	볼륨이 적은 단아한 스타일, 시농 위치는 네이프 포인트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달비아용

4. 웨딩스타일링의 활용

(1) 내추럴 이미지

1) 웨딩 메이크업

- 피부표현 : 메이크업 베이스 후 수분이 함유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가벼운 질감으로 펴 바른다.
- 눈썹 : 브라운 색도우와 펜슬을 이용해 본인의 눈썹 결을 그대로 살려 그린다.
- 눈 화장 : 베이지 톤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펴 바르고 주조색은 오렌지계열을 사용하며, 아이라인 부위에 브라운 색도우로 음영을 준다.
- 볼터치 : 사선형으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색도우 색에 맞추어 오렌지 계열로 터치한다.
- 입술 : 투명 립글로스를 사용해 글로시하게 표현한다.

2) 웨딩 헤어스타일

- 가르마 위치 : 옆 가르마로 표현한다.
- 앞머리 유무 : 내리지 않고 머리결을 살린다.
- 귀선의 매입과 노출 여부 : 완전 매입으로 마치 물결이 흐르는 듯 한쪽으로 애교머리를 내린다.
- 시농의 위치 : 볼륨위치를 목선에 놓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한다.

(2) 모던 이미지

1) 웨딩 메이크업

- 피부표현 : 메이크업 베이스 후 수분이 함유된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펴 바르고 잡티 등을 컨실러로 커버 후 가벼운 질감으로 펴 바른다.
- 눈썹 : 브라운 색도우와 펜슬을 이용해 본인의 눈썹 결을 그대로 살려 그린다.

- 눈 화장 : 베이지 톤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펴 바르고, 주조색은 브라운 계열로 하며 펜슬로 눈 위, 아래 점막을 꼼꼼하게 메꾸어 모던하게 표현하며, 아이라인은 꼬리를 약간 길게 뺀다.
- 볼터치 : 색도우와 동일한 색을 이용해 사선형으로 터치
- 입술 : 누드베이지, 누드핑크 등의 립글로스로 글로시하게 표현

2) 웨딩 헤어스타일

- 가르마 위치 : 사선형의 옆 가르마를 한 후 볼륨감 없이 깨끗하게 옆으로 빗어 넘긴다.
- 앞머리 유무 : 앞머리는 내리지 않고 표현
- 귀선의 매입과 노출 여부 : 완전 노출로 도시적 이미지로 한다.
- 시농의 위치 : 볼륨위치는 네이프 포인트이고 헤어스타일의 표현 기법 중 롤 기법을 응용하여 완성

(3) 로맨틱 이미지

1) 웨딩 메이크업

- 피부표현 : 펄 감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로 안색을 정리하고 수분이 함유된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펴 바른 후 컨실러로 잡티를 커버하고 약간의 펄 파우더를 사용하여 매트한 질감보다 글로시한 느낌으로 표현
- 눈썹 : 브라운 색도우와 펜슬을 이용해 본인의 눈썹결을 그대로 살려 그린다.
- 눈 화장 : 베이지 톤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펴 바른 후 주조색은 핑크 계열을 사용하고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효과를 주고 아이라인은 눈매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린다.
- 볼터치 : 색도우 색에 맞추어서 핑크 계열로 광대뼈 부분을 감싸듯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터치 한다.
- 입술 : 핑크 계열의 립스틱을 바른 후 그 위에 립글로스를 덧발라서 촉촉하게 표현한다.

2) 웨딩 헤어스타일

- 가르마 위치 : 가르마 없이 표현한다.
- 앞머리 유무 : 내리지 않았고 약간의 볼륨을 준 올백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한다.
- 귀선의 매입과 노출 여부 : 양쪽 모두 귀가 드러난 완전노출로 꽃 장식을 이용해 사랑스럽게 표현한다.
- 시농의 위치 : 볼륨위치를 탑 포인트에 놓이게 한다.

(4) 엘레강스 이미지

1) 웨딩 메이크업

- 피부표현 : 피부 톤에 맞는 메이크업 베이스 후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펄파우더로 마무리한다.
- 눈썹 : 브라운 색도우와 펜슬을 이용해 본인의 눈썹 결을 그대로 살려 꼬리를 약간 길게 그린다.

- 눈 화장 : 베이지 톤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펴 바른 후 주조색은 퍼플 계열로 하고 아이라인 꼬리를 약간 길게 빼 준다.
- 볼터치 : 핑크색을 이용해 사선형으로 터치한다.
- 입술 : 라벤더 핑크 계열의 립스틱을 바른 후 립글로스로 마무리하여 표현한다.

2) 웨딩 헤어스타일

- 가르마 위치 : 옆 가르마를 한 후 볼륨을 주어 단아하게 표현한다.
- 앞머리 유무 : 앞머리를 내리지 않고 마무리 한다.
- 귀선의 매입과 노출 여부 : 귀선의 완전 노출로 표현한다.
- 시농의 위치 : 네이프 포인트에 풍성한 볼륨감을 주어 S자 모양의 컬을 이용, 우아한 이미지로 완성한다.

(5) 신랑 메이크업

남자메이크업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진상에서 신부와의 스킨 톤을 맞춰주면서 신랑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 윤곽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모공이 더욱 커 보이므로 리퀴드 타입의 화운데이션으로 가볍게 바르고 스킨톤을 맞추어 주어 너무 밝게 피부표현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혼주 메이크업

신랑, 신부의 양가 어머님들도 메이크업을 해야 하며 연령을 고려해서 나이에 어울리는 우아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양가의 어머님의 한복색상을 고려해서 색조를 선택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5. 웨딩드레스 스타일링

(1) 드레스 유형별 스타일링

1) A라인

가장 무난한 드레스 중의 하나로 1955년 크리스찬 디올이 발표한 후로 가장 대중적이고 클래식한 웨딩드레스이다. 스커트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우아하고 여성스러우며, 어떤 체형이든 잘 어울린다. 특히나 가슴이 빈약하고 마른신부에게는 체형커버를 하기에 좋은 타입이다. 심플한 장갑과 볼륨감 있는 베일이 잘 어울린다.

2) 머메이드 라인

일명 인어라인 드레스로 이름 그대로 인어꼬리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머메이드 웨딩드레스라고 불린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완전히 피트되며 아래부분은 인어꼬리처럼 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바디라인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한 드레스이니 만큼 지나치게 화려한 악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프린세스 라인

중세시대 공주같은 분위기의 웨딩드레스로 상체는 가슴다트와 허리다트가 연결되어 마치 코르셋을 연상케하는 디자인이다. 귀족적인 느낌으로 허리를 날씬하게 강조해주는 것이 장점이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통통한 신부나 가슴이 크거나 골반이나 힙이 작은 신부에게 적합하다. 드레스가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크고 화려한 악세서리는 피하며, 머리장식은 귀여운 느낌의 티아라나 작은 베일 정도가 어울린다.

4) 엠파이어 라인

엠파이어라인의 웨딩드레스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황제시절 유행했던 복식 스타일에서 유래된 드레스로 가슴 밑에서 허리선 절개가 이루어지는 하이 웨스트형식이다. 로맨틱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키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고, 팔이 가늘고 길거나 키가 작고 마른 신부에게 잘 어울리는 웨딩드레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허리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임신 중인 신부에게도 적합하다.

5) 시스 라인

칼집이라는 의미의 시스드레스는 칼집에 몸을 넣은 것처럼 딱 맞는 웨딩드레스로 고대 이집트에서 입었던 시스 가운에서 유래되었다.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원하는 신부들에게 적합하며 전체적으로 몸의 라인을 따라 길고 가늘게 떨어져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다. 하이넥 느낌의 시스라인일 경우는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의 연출도 가능하다.

6) 벨 라인 (부팡)

1980년대부터 한 세기를 풍미한 벨라인의 부팡 드레스는 탑에 개더스커트가 달린 드레스로 피트되는 상체에 플레어나 개더주름을 넣어 스커트가 풍성한 스타일이다. 스커트가 종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벨라인이라 불리는 부팡 드레스는 힙이 빈약하거나 반대로 하체비만이나 복부에 살이 많은 신부에게 적합하다. 드레스가 풍성하기 때문에 화려한 이어링과 티아라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체형별 드레스와 턱시도

	여 : 웨딩드레스	남 : 턱시도
키가 작은 유형	웨딩드레스는 깔끔한 라인의 디자인을 선택해 키를 커 보이게 연출한다. 신부가 마르고 작은 경우엔 소매에 볼륨을 넣은 디자인을, 통통한 경우엔 V네크라인이나 깊게 파인 스퀘어 네크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앰파이어 스타일도 적합하다.	상하가 같은 색상으로 된 턱시도는 하체를 길어보이게 한다. 테일 코트나 검정 색의 싱글 턱시도가 무난하며 재킷의 길이는 허프를 덮게 한다. 키 높이 구두도 활용할 수 있다.
키가 큰 유형	어깨나 스커트 등을 부풀리지 않은 깔끔한 웨딩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디와 스커트가 떨어진 재킷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도 실제 키보다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스커트의 단 처리 또한 굽직한 무늬의 레이스나 스커트 원단과 다른 소재를 가로 라인으로 배열해서 시선을 차단시킨다.	신랑에게는 회색 톤의 모닝코트를 추천한다. 단 재킷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마른 상체의 남성이라면 광택이 있으면서도 밝은 색깔의 화려한 베스트를 선택하도록 하자.
마른 체형	키가 커 보이면서도 말라보이지 않도록 연출한다. 네크라인 부분에 주름을 넣어 볼륨을 살리거나 네크라인이 어깨까지 연결되는 스타일을 선택해 상체가 넓어 보이도록 한다. 스커트는 풍성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망사 소재나, 커튼을 잡아 올린 풍성한 디자인도 좋다.	일반 턱시도보다는 재킷의 길이가 긴 모닝 코트를 선택하고 키 높이 구두를 신어 단점을 커버해보자. 슬랙스의 컬러는 상의와 동일한 것이 좋다. 무게감이 없는 아이보리와 같은 밝은 색상은 피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톤의 회색 계통으로 코디한다.
통통 체형	일단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은 피한다. 공단이나 세로 스트라이프 소재를 이용하여 심플한 아름다움을 살린 웨딩드레스를 선택한다. 허리선 부분을 깊은 V자로 처리하는 것도 결점 커버에 도움이 된다. 가슴 부분이 넓고 깊게 파인 V네크라인이나 하트세이프트 네크라인의 A라인도 한층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신랑의 체격이 크고 재킷에 무늬가 있을 경우는 짙은 색의 액세서리를 고르거나 짙은 색의 심플한 베스트에 사선 줄무늬의 애스콧 타이로 포인트를 준다.

(3) 단점을 커버하는 드레스 스타일링

- 어깨가 넓은 체형 : 어깨가 넓은 체형은 어설프게 가리려고 하는 것 보다 어깨 부분을 시원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장식은 최대한 피하고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웨딩드레스를 선택한다. 특히 팔뚝 부분에서 어깨

쪽으로 시선처리가 된 래글런 스타일의 웨딩드레스와 한쪽 어깨에 사선으로 내려오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풍성한 실루엣보다는 전체적으로 심플한 H라인 웨딩드레스를 선택해 단아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 목이 짧은 경우 : 목이 짧은 경우는 네크라인 목과 최대한 떨어진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좋다. 공주같은 퍼프소매나 어깨가 올라간 파워숄더 스타일은 피하고, 깊게 파인 V네크라인이나 어깨가 드러나는 탑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선택 하도록 한다. 목과 어깨가 최대한 많이 드러날 수 있게 헤어는 위로 올리고, 화려한 장식을 이용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효과가 좋다. 목에는 액세서리를 자제하고 작은 귀걸이를 사용해 얼굴선을 최대한 길어 보이게 연출한다.
- 얼굴이 큰 경우 : 얼굴이 크면 어깨가 좁아 보이고 하체가 짧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목 부분이 올라오는 웨딩드레스는 피해야 할 아이템이다. V네크라인은 시선을 분산 시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시선을 가운데로 집중시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한다. 어깨와 스커트의 볼륨은 최대한 살리고 허리가 잘록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면 단점 커버에 효과적이다.
- 팔이 통통한 경우 : 통통한 팔뚝이 고민이라면 퍼프소매나 캡소매, 짧은 소매의 웨딩드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긴 소매의 드레스나 반 소재의 소매 기장을 선택하되, 긴소매가 싫다면 세로 라인을 활용해 비즈나 진주 등으로 팔에 장식을 해주면 시선을 분산 시킬 수 있다. 또한 조명에 따라 컬러가 달라지는 크리스털 장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허리가 굵은 경우 : 허리가 두껍다면 몸에 착 달라붙는 머메이드라인보다는 풍성한 벨라인이 좋다. 허리 밑으로 볼륨을 주면 허리를 최대한 잘록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바디에 V모양으로 절개선을 잡아서 시선을 분리하고 배는 부케로 살짝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뒷모습은 볼륨있는 장식을 단 트레인으로 커버해주면 효과적이다.
- 가슴이 작거나 큰 경우 : 가슴이 빈약하다면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체부분에 장식이 달린 웨딩드레스를 선택한다. 웨딩 브래지어를 착용해 볼륨감을 살려주고 가슴 부분에 리본이나 코사지, 비즈 등을 장식하면 커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반대로 가슴이 큰 경우에는 바디라인이 심플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선택한다. 또한 허리 부분에 리본이나 장식이 있는 포인트 웨딩드레스로 결점을 커버해주는 것이 좋다.

6. 한복 스타일링의 활용

(1) 메이크업

1) 개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선이 곱고 화사한 색상으로 여성스럽고 화려하다. 그러므로 한복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곡선과 색상에 조화되는 우아한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색상 선택을 절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유사색 계열의 메이크업이 무난한 데, 소매의 끝동이

나 고름, 치마 색을 고려하여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면 된다.

2) 메이크업 테크닉

- 피부표현 : 얼굴 중앙은 한 단계 밝게, 가장자리 부위는 한 단계 어둡게, 입체감있는 단아한 피부표현과 투명 파우더로 뾰송뾰송하게 마무리한다. 특히 한복의 동정선을 따라 드러나는 목 부위는 잊지 말고 파우더를 발라주어 얼굴과 목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눈썹 : 펜슬을 이용하여 곡선형의 가늘고 긴 눈썹을 그려주고 색도우를 살짝 덧발라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눈썹 끝은 가늘게 빼주어 한복의 곡선과 조화되게 한다.
- 눈 : 단조롭고 심플하게, 한복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대비계열이나 유사계열의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다. 눈은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섀도우는 저고리에 잘 어울리는 화사한 색상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준다. 눈에 음영을 주고 싶다면 한복에 포인트가 되는 컬러 중 가장 짙은 계열을 아이섀도우를 눈꼬리 부분에 살짝 발라준다.
아이라인은 눈의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되, 눈의 형태에 따라 그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눈 앞머리에서 중앙 부분까지는 속눈썹을 바짝 붙여 그리고, 중앙에서 눈꼬리까지는 눈 모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려준다.
- 볼 : 화사함과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주도록 하며, 입술색과 동일한 계열의 색으로 은은하게 터치한다.
- 입술 : 각지지 않게 그린다. 너무 과장하지도 않는다. 립컬러의 경우 고름, 소매끝동, 치마색상이나 연령에 맞추는 것이 무난하다. 짙은 총의 경우는 고명도 색을, 중년총의 경우는 침착하고 차분한 색을, 성숙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는 저명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지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립스틱을 바르기 전, 파우더로 입술을 정리해주고 립라이너로 입술 윤곽을 그린다.

(2) 헤어

1) 짧은 머리

- 비녀와 뒤꽂이를 헤어핀으로 이용 :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넣어 풍성하게 살려준 뒤 볼륨감을 준 앞머리 뒤로 가운데 부분에 비녀와 꽂이를 꽂아 장식한다. 짧은 뒷머리는 끝부분이 살짝 말아 올라가게 손질하면 상큼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 부분가발을 이용한 컷트머리의 업스타일 : 앞머리는 옆 가리마를 타서 자연스럽게 빗어내려 이마가 드러나게 붙여주고, 뒷머리 부분에는 가발을 덧대 부풀려준다. 앞머리와 뒷머리의 경계부분에 꼬아둔 부분가발을 이용, 깨끗하게 정리된 업스타일을 연출한다.
- 댕기를 이용한 언밸런스한 화사함 : 전체적으로 뒤로 깔끔하게 빗어넘긴 뒤 한쪽의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도록 댕기와 꽂이로 장식하여 마치 꽃을 꽂은 듯한 화사함을 더한다.

2) 단발 머리

- 살짝 꼬은 부분가발을 여러개 겹쳐 화려함을 강조 : 앞 가리마를 타고 옆머리는 단정하게 붙여 뒤에서 내려묶는다. 살짝 꼬아준 부분가발을 머리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여러겹 겹쳐 붙인 뒷쪽에서 크게 부풀려 준

다. 화려한 스타일로 약혼식에 잘 어울린다.

- 여백미가 돋보이는 자연스런 올림머리 :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준뒤 뒤쪽에서 하나로 모은 올림머리로 바나나 편을 꽂은 듯한 모습이다. 머리 장신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연출로 단아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3) 긴 머리

- 비녀를 이용한 전통 쪽머리로 정갈함을 표현 : 앞 가리마를 타고 머리결을 깨끗하게 정돈한 뒤 빗어넘겨 쪽을 진후, 비녀를 꽂고 뒤꽂이로 화려함을 더한다. 한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로 깨끗한 목선이 드러나 정갈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목선이 아름답고 얼굴형이 가름한 신부에게 권하는 스타일이다.

- 전통 땡기를 리본장식으로 이용해 깜찍함이 돋보임 : 전통 땡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리본장식으로 이용,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위해 가리마를 지그재그로 탄 뒤 머리채를 모아 한쪽 옆에서 땋아주고 땡기로 리본장식을 한다. 합들이는 날 깜찍하고 귀여운 신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 부분 칼라링으로 입체감을 준 신세대형 : 앞머리는 옆가리마를 타서 가지런히 붙여주고 뒷머리는 하나로 묶고 웨이브를 넣어준뒤 가볍게 붙여준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부분 가발을 이용해 모양을 주고 가발 부분에 한복 색상과 어울리는 칼라링을 하면 신세대 신부에게 어울리는 한복헤어를 연출할 수 있다.

(3) 한복의 체형별 스타일링

1)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

너무 복잡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은 더욱 통통하게 보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을 고르되 컬러는 조금 어둡게 선택하며, 많은 컬러가 배합된 것도 피한다. 저고리는 강한 원색이나 어두운 계열을 골라 상체를 축소되어 보이게 하고, 소매 끝에 색동을 넣으면 시선이 분산돼 키가 커 보인다. 가슴 쪽에 살이 많다면 가슴싸개를 입어 체형을 보완한다.

2) 키가 작고 마른 체형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는 왜소한 체형을 볼륨감 있게 연출해 주므로 밝고 화사한 컬러를 선택한다. 통통한 체형이 피하는 화려한 문양이나 장식이 들어간 저고리와 치마도 소화 가능하다.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는 하체가 길어 보여 키가 커 보인다.

3) 키가 크고 통통한 체형

심플한 문양이 있는 디자인을 고르거나 액세서리 장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강한 원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저고리를 골라 상체를 작아 보이게 하고, 진한 색의 깃이나 고름은 시선을 분산시켜 상체를 더욱 아담하게 만들어 준다. 통통한 체형을 커버한답시고 세로 스트라이프 문양을 선택하는 것은 금물. 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몸집이 더 크게 보인다. 치마 앞부분에 자수로 포인트를 주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4)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화려한 디테일의 저고리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으며, 가로 문양의 파스텔톤 색동 저고리로 아담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해도 좋다. 배자를 덧입거나 치마에 가로 문양을 넣어 상하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면 큰 키를 커버할 수 있다.

(4) 한복 스타일링의 활용

1) 폐백

신부가 혼례 후 시댁에 와서 시댁 어른들에게 드리는 칫인사를 말한다.

현구고례(見舅姑禮)라고도 한다. 가문에 따라서는 사당참배를 먼저 하는 경우와 현구고례를 한 이튿날 조상보기라 하여 사당에 예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폐백은 각 지방별로 ‘피백 · 구고례 · 현구리 · 현구례 · 예단드린다’라고도 한다. 신부집에서 장만해 온 음식을 차려놓고 시부모부터 시작하여 시가의 어른들에게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이때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富貴多男)이라고 말한다. 시부모가 신부에게 예물을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나 신부가 시부모에게 옷이나 벼선 등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백의례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며 현대에는 신식 혼례를 많이 하므로 대개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폐백음식은 일반적으로 대추 · 밤 · 닭 · 술 · 고기 · 옛 등이 쓰인다.

한복의 색상이 평소에 입는 옷보다 채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얼굴을 투명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 자신의 얼굴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골라 얼굴에 얇게 펴바른다.

눈썹은 둑글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그린다. 눈썹머리에서 꼬리부분으로 갈수록 진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아이섀도의 색상은 한복 색상의 전체적인 계열과 어울리게 선택한다. 연한 파스텔 계열을 펴바르고 와인색이나 밝은 브라운 또는 옅은 그레이 등으로 눈꼬리에 포인트를 준다. 넓게 펴바르지 말고 라인의 느낌만을 살짝 주도록 한다. 블루나 그린 등의 원색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한다.

입술은 한복과 가장 유사하거나 짙은 색상으로 레드, 오렌지, 밝은 퍼플, 와인색 등을 선택하면 단아한 느낌이 연출된다. 폐백시의 한복메이크업은 레드계열로 연지 곤지를 바르는 것이 특징이다.

2) 한복 화보촬영

여성적인 부드러운 곡선미에 한복의상과 어울리도록 우아하고 섬세하며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한복, 헤어, 조명, 카메라,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조화롭게 표현한다.

- 윤곽 : 완벽한 윤곽수정을 하며, 단아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 피부 : 평소보다 희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밝고 깨끗하게 표현한다.
- 눈 : 아이섀도 색상을 한복 색상과 맞추어 자연스러운 눈매로 표현한다.
- 볼 : 색상은 입술색과 같은 계열로 은은한 홍조를 띠게 표현한다.
- 입술 : 선명한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